

2018
회계년도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6-10

2019년 12월

2018 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H <https://www.koreaexim.go.kr>
T 02-3779-6114 F 02-784-1030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9.12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8 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8 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8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수요부진 및 전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49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M&A를 통한 유통시장 확보와 기술력·브랜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투자가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163억 달러로 투자업종 1위를 차지하였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선진국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역외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이 162억 달러로 투자업종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장벽을 우회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유효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통계 작성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기초통계 산출 및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입안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은 투자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5,072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잔액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현지법인들이 2018년 자동차업과 도소매업(백화점 등)의 실적악화로 인해 매출액이 각각 25%, 20% 감소하고, 투자수익이 각각 58%, 19%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집중도가 분산되고 있는 모습은 리스크 관리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중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업종별로는 회복세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경영실적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국가별, 업종별 세부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의 단행본 자료와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http://keri.koreaexim.go.kr>)

아무쪼록 본 책자가 우리 해외직접 투자기업, 정부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수립 및 정책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본 경영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투자기업들과 외국 환은행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 016

머리말 024

제 1부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029

Ⅰ. 2018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030

1. 분석범위 030

가. 분석대상 030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031

(1) 업종별 현황 031

(2) 지역별 현황 031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032

2. 경영성과 033

가. 매출액 033

나. 영업이익 035

다. 당기순이익 039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039

(2) 당기순이익 현황 041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046

3. 매출입 현황 049

가. 매출 현황 049

나. 매입 현황 053

4. 재무 현황 057

가. 부채비율 057



나. 차입금 059

다. 이자보상배율 063

라. 유동비율 064

마. 금융비용부담률 066

Ⅱ.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068

1. 투자수익 068

가. 투자수익률 068

나. 투자자순이익 070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072

라. 대부이자 074

2. 배당금 076

3. 수출입 효과 078

가. 순수출 078

나. 수출입 유발효과 081

4. 고용효과 083

Ⅲ. 기타 분석 086

1. 설문사항 086

가. 개요 086

나. 진출목적별 현황 087

다. 영업환경 현황 087

라. 운영상 애로사항 090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092

바. 향후 투자 계획 095

제 2부 주제별 심층 분석 099

Ⅳ.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00

1. 분석목적 100



2. 분석범위	100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103
가. 경영성과	103
(1) 매출액	103
(2) 영업이익	109
(3) 당기순이익	115
나. 매출입 현황	120
(1) 매출입 현황 개괄	120
(2) 업종별 매출입 현황	120
(3) 지역별 매출입 현황	122
(4) 수출입효과	124
다. 재무현황	125
(1) 재무현황 개괄	125
(2) 부채비율	126
(3) 차입금의존도	128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130
라. 투자수익	132
(1) 투자수익률	132
(2) 투자자순이익	133
(3) 로열티	134
(4) 배당금	135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36
1. 분석 목적	136
2. 분석 범위	136
3. 2018년 경영성과	139
가. 매출액	139
나. 수익성	141



다. 매출입구조	146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148
마. 수출입 유발효과	150
4. 최근 3년 경영성과	151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151
나. 수익성	156
다. 투자수익	160
라. 수출입 유발효과	165
 VII. 시사점	168
1.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악화	168
2. 중국 투자비중 감소, 미국 및 ASEAN 투자 확대	169
3.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전략 재편 필요	170
 제 3부 부록	171
제 4부 참고자료	235



〈표 I-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2017년말 현재).....	030	〈표 I-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052
〈표 I-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현황.....	031	〈표 I-30〉 현지법인 매입 현황.....	053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032	〈표 I-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054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032	〈표 I-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054
〈표 I-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033	〈표 I-33〉 지역별 매입 현황.....	055
〈표 I-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034	〈표 I-34〉 지역별 매입 비중.....	055
〈표 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035	〈표 I-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056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036	〈표 I-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056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036	〈표 I-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057
〈표 I-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037	〈표 I-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058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038	〈표 I-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059
〈표 I-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039	〈표 I-4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060
〈표 I-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039	〈표 I-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061
〈표 I-14〉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040	〈표 I-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062
〈표 I-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흑자 현지법인 현황.....	041	〈표 I-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063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042	〈표 I-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064
〈표 I-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043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065
〈표 I-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043	〈표 I-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065
〈표 I-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044	〈표 I-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066
〈표 I-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045	〈표 I-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067
〈표 I-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046	〈표 II-1〉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068
〈표 I-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048	〈표 II-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069
〈표 I-23〉 현지법인 매출현황.....	049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070
〈표 I-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050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071
〈표 I-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050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071
〈표 I-26〉 지역별 매출 현황.....	051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072
〈표 I-27〉 지역별 매출 비중.....	051	〈표 I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073
〈표 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052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074	〈표 III-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093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075	〈표 III-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094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	076	〈표 III-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현황	096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077	〈표 III-9〉 지역별 투자 계획	097
〈표 II-12〉 배당금 지급 현황	077		
〈표 II-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078	〈표 IV-1〉 분석대상 법인수 현황	101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078	〈표 IV-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현황	102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079	〈표 IV-3〉 매출액 현황	103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079	〈표 IV-4〉 업종별 매출 추이	104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080	〈표 IV-5〉 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105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080	〈표 IV-6〉 지역별 매출액 현황	106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080	〈표 IV-7〉 지역별 매출 증가율 추이	106
〈표 II-20〉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081	〈표 IV-8〉 업종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7
〈표 II-21〉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081	〈표 IV-9〉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8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082	〈표 IV-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109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082	〈표 IV-11〉 영업이익 현황	110
〈표 II-24〉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083	〈표 IV-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111
〈표 II-25〉 업종별 고용인원 현황	084	〈표 IV-13〉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현황	112
〈표 II-26〉 지역별 고용인원 현황	084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113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085	〈표 IV-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114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인원 현황	085	〈표 IV-16〉 당기순이익 현황	115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085	〈표 IV-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116
		〈표 IV-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117
〈표 III-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086	〈표 IV-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118
〈표 III-2〉 업종별 경쟁관계 현황	088	〈표 IV-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119
〈표 III-3〉 지역별 경쟁관계 현황	089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비중 현황	121
〈표 III-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091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비중 현황	121
〈표 III-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092	〈표 IV-23〉 지역별 매출비중 현황	122



〈표 IV-24〉 지역별 매입비중 현황	123
〈표 IV-25〉 수출입효과	124
〈표 IV-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 추이	125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현황	127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127
〈표 IV-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128
〈표 IV-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8
〈표 IV-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9
〈표 IV-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129
〈표 IV-33〉 업종별 유동비율 현황	130
〈표 IV-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131
〈표 IV-35〉 투자수익률 현황	132
〈표 IV-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133
〈표 IV-37〉 업종별 로열티 현황	134
〈표 IV-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현황	135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	137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분포	138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138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139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140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141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142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143
〈표 V-9〉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144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145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145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146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147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148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149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150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추이	151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152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추이	154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추이	145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156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157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158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159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160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161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162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163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164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 추이	165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 추이	166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 추이	166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67





〈그림 I-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034
〈그림 I-2〉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047
〈그림 I-3〉 매출현황 및 비중	049
〈그림 I-4〉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053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075
〈그림 III-1〉 진출목적별 현황	087
〈그림 III-2〉 현지법인 경쟁관계	088
〈그림 III-3〉 업종별 경쟁관계 비중	089
〈그림 III-4〉 지역별 경쟁관계 비중	090
〈그림 III-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090
〈그림 III-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091
〈그림 III-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092
〈그림 III-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093
〈그림 III-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094
〈그림 III-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095
〈그림 III-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현황	095
〈그림 III-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096
〈그림 III-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097
〈그림 IV-1〉 매출 현황 및 추이	103
〈그림 IV-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 추이	109
〈그림 IV-3〉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110
〈그림 IV-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115
〈그림 IV-5〉 매출입구조	120
〈그림 IV-6〉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126
〈그림 IV-7〉 주요 재무지표 추이	126

〈그림 IV-8〉 투자수익률 추이	132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비교	159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161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163



I. 경영분석대상 및 방법

- 제1부에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투자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7,698개사 중 5,072개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2018 회계연도 경영분석을 실시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체현지법인	57,075	339,348
자료수집대상	7,698	230,799
분석대상	5,072	187,063
분석대상/자료수집대상	65.9	81.1

- 제2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별 심층 분석을 실시

- 최근 5년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시계열 경영성과
-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성과

II. 경영분석 결과

1. 2018 회계연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 2018 회계연도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5,072개사)의 매출액은 6,289억 달러, 영업이익은 196억 달러, 당기순이익은 68억 달러 기록
-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1%, 당기순이익률은 1.1%를 기록하였으며, 국내기업(5.6%, 3.9%) 대비 낮은 수준을 시현함.
- 도소매업 업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모두 전년대비 각 0.7%p 및 0.5%p 증가함.

(단위: %)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전체
영업이익률	3.4	27.1	1.1	3.1
당기순이익률	1.7	0.4	1.0	1.1

나. 매출입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은 현지매출 비중이 62.5%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 비중은 19.5%, 제3국수출 비중은 18.0%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출액	63,908	329,178	115,086	7,513	32,235	80,980
비중	10.2	52.3	18.3	1.2	5.1	12.9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은 한국수입 비중이 45.8%, 현지매입 비중은 36.9%, 제3국수입 비중은 17.2%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51,119	137,697	212,225	22,023	43,285	44,886
비중	10.0	26.9	41.5	4.3	8.5	8.8

다. 재무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2018 회계연도에 부채비율 128.0%, 차입금의존도 22.8%, 유동비율 130.5%, 이자보상배율 3.8배를 기록하며 재무 안정성이 전년대비 일부 개선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제조업	113.3	22.9	136.3	4.6
광업	127.1	38.9	127.1	4.8
도소매업	158.8	5.9	124.0	5.5
전체	128.0	22.8	130.5	3.8

라. 투자수익

- 분석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2018 회계연도 한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1.6%p 하락한 5.8%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액	6,892	3,476	519	10,887	187,063	5.8

마. 수출입효과

-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앞 수출은 2,342억 달러, 수입은 1,226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1,116억 달러를 시현

(단위: 백만 달러)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순수출(수출 - 수입)
관계회사	212,225	115,086	97,139
기타	22,023	7,513	14,510
전체	234,248	122,599	111,649

- 현지법인과 거래에 따른 수출유발효과는 125.2%, 수입유발효과는 65.5%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전년(72.1%)대비 크게 하락한 59.7%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187,063	234,248	125.2	122,599	65.5	59.7

2.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 최근 5년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결과,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및 평균 당기순이익이 2017년 반등 하였으나 2018년 다시 소폭 하락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매출액	163	142	131	139	124
평균 영업이익	5.5	3.4	3.3	4.2	3.9
평균 당기순이익	2.9	△0.9	1.8	2.6	1.3

- 업종별로는, 광업의 광업과 건설업은 5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부동산업, 전기가스업은 적자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

(단위: %)

당기순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1	1.4	3.1	3.1	1.7
광업	△7.9	△80.7	△32.6	△4.7	0.4
도소매업	0.7	0.7	0.7	0.6	1.0
전체	1.8	△0.7	1.4	1.8	1.1

나. 매출입현황

- 매출의 경우 현지매출 비중이 62.5%를 차지,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수출 19.5%, 제3국수출 18.0% 대비 진출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중심의 영업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매입의 경우에는 현지매입(36.9%)과 한국수입(45.8%)로 2015년 이후 현지매입 보다 한국매입 비중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현지화 및 현지국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악화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지매출	66.4	66.9	67.2	64.4	62.5
한국수출	15.9	15.4	15.8	17.6	19.5
제3국수출	17.7	17.7	17.0	18.0	18.0
현지매입	42.8	39.5	40.3	36.9	36.9
한국수입	38.0	40.6	42.0	46.4	45.8
제3국수입	19.3	20.0	17.7	16.7	17.2

다. 재무현황

-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제반 재무지표는 2014년부터 현지법인의 수익성 부진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다가, 2017년에는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18년에는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이자 보상배율 모두 하락

(단위: %, 배)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채비율	현지법인	163.5	166.0	166.3	152.0	128.0
	국내기업	134.5	128.4	121.2	114.1	111.1
차입금의존도	현지법인	28.1	30.9	30.4	27.0	22.8
	국내기업	32.2	31.4	29.8	28.8	28.8
유동비율	현지법인	130.3	129.0	134.9	133.8	130.5
	국내기업	129.6	130.5	131.6	134.0	138.5
이자보상배율	현지법인	4.6	2.8	2.8	4.1	3.8
	국내기업	2.8	3.6	4.4	5.4	4.7

라. 투자수익

- 광업의 투자손실폭이 감소되고, 도소매업 및 건설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의 투자수익이 크게 감소(51.2억 달러)함에 따라 2018년에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5.8%의 투자수익률을 시현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수익률(A/B)	9.4	2.0	6.0	7.4	5.8
투자수익(A)	13,954	3,325	11,029	14,229	10,887
투자자순이익	8,384	△88	7,512	10,111	6,892
대부이자	340	415	442	388	519
로열티	5,231	2,998	3,075	3,730	3,476
투자잔액(B)	148,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마. 수출입효과

- 2018 투자잔액 증가율은 △2.7%로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투자잔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업 및 도소매업에서 각각 투자잔액이 71.9억 달러, 35.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잔액	148,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수출액	214,089	210,366	212,034	260,002	234,248
수입액	110,861	101,367	98,883	121,895	122,599
순수출	103,228	108,999	113,151	138,107	111,649
수출유발효과	144.2	126.4	116.1	135.3	125.2
수입유발효과	74.7	60.9	54.1	63.4	65.5
무역수지개선효과	69.5	65.5	62.0	71.9	59.7

3.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가. 매출액

- 제조업은 2018년도 경영분석대상 5,072개사, 투자잔액 1,871억 달러 기준 투자잔액의 41.0%, 현지법인 수익 57.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37.2%, 24.8%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62.0%

(단위: 백만 달러, %)

	전기전자	자동차	1차금속	제조업 전체
매출액	122,951	81,946	27,250	330,419
비중	37.2	24.8	8.2	100.0

나. 수익성

-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영업이익의 61.4%를 차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와 화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54.5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4.4%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14.4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1.8%를 기록

(단위: %)

	전기전자	자동차	1차금속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률	4.4	1.8	3.5	3.4
당기순이익률	4.4	0.5	△0.9	1.7

다. 매출입현황

-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전자, 의복은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출 비중이 50.2%로 현지매출 비중(35.2%)보다 높아, 현지법인 생산 제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매출(78.0%)이 대부분을 차지

(단위: 백만 달러, %)

	매출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기전자	43,332	61,694	17,925	35.2	50.2	14.6
자동차	63,893	1,959	16,094	78.0	2.4	19.6
1차금속	22,152	1,478	3,620	81.3	5.4	13.3
전체	186,050	87,158	57,211	56.3	26.4	17.3

- 제조업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0.4%로, 매출(26.4%)에 비해 한국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45.2%로 한국수입(40.4%) 및 제3국수입(14.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매입액			비중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기전자	24,293	58,602	16,694	24.4	58.8	16.8
자동차	46,602	18,474	5,313	66.2	26.2	7.5
1차금속	9,378	7,072	2,181	50.3	38.0	11.7
전체	117,701	105,395	37,581	45.2	40.4	14.4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83억 달러로, 10.9%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총 26.1억 달러의 배당금을 한국투자자 앞 지급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기전자	5,023	1,216	16	6,255	19,230	32.5
자동차	503	1,443	5	1,952	15,752	12.4
1차금속	△106	8	3	△96	8,386	△1.1
전체	5,094	3,190	48	8,332	76,704	10.9

마. 수출입 유발효과

-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통해 분석된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은 1,054억 달러, 수입은 872억 달러를 기록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순수출(D=B-C)	무역수지 개선효과(D/A)
전기전자	19,230	58,602	61,694	△3,092	△16.1
자동차	15,752	18,474	1,959	16,515	104.8
1차금속	8,386	7,072	1,478	5,594	66.7
전체	76,704	105,395	87,158	18,237	23.8



분석 목적

※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자료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 기관의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보고서 구성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의 2018 회계연도 경영실태와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였음.
 ※ 제2부에서는 주제별 심층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경영 성과 및 2018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별도 분석하였음.



자료수집 대상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지점 및 지사는 제외
 ※ 본 경영분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인 투자잔액 미화 200만 달러 초과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12.24)에 따라 2019년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이 투자잔액 미화 100만 달러 초과에서 200만 달러 초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경영분석부터 조사 대상 현지법인이 변동하였는 바, 2018년 이전 보고서와의 비교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수집 방법

※ 외국환은행은 자료제출 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자 앞으로 연간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
 • 투자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 외국환은행에 서면제출하며 외국 환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보고함.



자료검증 방법

※ 자료제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 분석, 투자자 앞 직접 확인 등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보완·수정하였음. 또한, 자료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분석 방법 1

※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가 신고한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였음.
 업종별 분류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제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함
 (제10차 개정 업종분류 기준 적용에 따른 자료 해석 상 유의점)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축소) 9차 소분류 금융지주회사 및 비금융지주 회사 10차 개정 기준 적용으로 지주회사로 통합되면서, 기존 대분류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이동하면서 9차기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었던 비금융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면서 2017 회계연도 경영분석대상부터 제외
 ※ 지역별 분류는 <참고 2: 지역 분류표>의 지리적 대륙별 분류방식을 적용 하였음.
 ※ 기업규모별 분류는 투자자들이 신고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기업에 의한 공동투자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투자자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음.
 ※ 일부 경영성과 분석시 단순 합계금액만을 사용할 경우 소수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바, 도수분포, 흑자·적자 현지법인 비중 등을 함께 분석하였음.



분석 방법 2

- ※ 업종 및 지역별 분석은 최종투자국 및 최종투자업종을 기준으로 실시함.
- ※ 자금중개 등의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최초 투자국 및 최초투자업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지 및 진출업종에 대한 왜곡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이에 통계정보의 정확성과 분석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 회계연도 경영분석부터 최종투자업종, 최종투자국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2013년 이전 보고서의 업종별, 지역별 분석과의 비교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분석 연혁

- ※ 한국수출입은행은 1999년 7월 해외직접투자 통계 업무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2000년 3월 처음으로 199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동년 12월에는 1999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음.
- ※ 한편, 1999 회계연도 경영분석 보고서부터 단행본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음. 이후 매년 직전 회계연도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보고서는 21회차임.
- ※ 초기에는 분석대상 현지법인 수가 300개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16 회계연도 6,225개사, 2017 회계연도 6,463개사, 2018 회계연도 5,072개사¹⁾로 증가하여 통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음.
- ※ 금년에는 동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기초데이터의 국가별, 업종별 표 세부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단행본 자료와 함께 게시하였음. (<http://keri.koreaexim.go.kr>)
-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및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제공)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투자잔액 100만 달러 이상 현지법인 대상에서 투자잔액 200만 달러 이상 현지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만~200만 달러 구간의 대상 현지법인 제외

공개가 불가하나, 본 보고서에 사용된 표에서 지면의 한계로 표기할 수 없었던 국가와 업종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제 1 부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경영분석

030	I. 2018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068	II.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086	III. 기타 분석

I. 2018 회계년도 경영실적 분석

1. 분석범위

가. 분석대상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총 5,072개사이며, 투자잔액²⁾은 1,871억 달러임

■ 2018년 말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투자잔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7,698개사 중 청산·영업정지·미결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현지법인 등을 제외하였음.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법인수 기준으로 자료수집 대상의 65.9%를 차지하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81.1%에 해당함.

표 I-1 분석대상 현지법인 범위 (2018년말 현재)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전체현지법인	57,075	339,348
자료수집대상	7,698	230,799
분석대상	5,072	187,063
분석대상/자료수집대상	65.9	81.1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 업종별 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잔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이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이 16.4%, 광업이 16.2%로 그 뒤를 이었음.

표 I-2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²⁾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2,931	76,704	41.0	4,197	92,291	40.0
도소매업	576	30,771	16.4	816	42,526	18.4
광업	125	30,228	16.2	189	41,717	18.1
전문과학기술업	136	13,178	7.0	226	4,968	2.2
부동산업	473	12,015	6.4	964	16,258	7.0
건설업	122	6,477	3.5	191	7,460	3.2
정보통신업	203	5,874	3.1	320	7,876	3.4
전기가스업	52	2,926	1.6	101	5,658	2.5
운수창고업	99	2,717	1.5	160	4,066	1.8
기타	355	6,173	3.3	534	7,980	3.5
전체	5,072	187,063	100.0	7,698	230,799	100.0

(2) 지역별 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비중은 아시아 39.3%, 북미 31.6%, 유럽 14.1% 순이며, 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과반수가 넘는 70.9% 비중을 차지

■ 분석대상 법인 당 투자잔액은 아시아 지역이 22백만 달러로 가장 낮음.

2) 기타는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시설관리지원업, 보건복지업, 교육업, 협회단체수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을 포함

1) 투자잔액은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 금액이며, 한국투자자의 투자잔액만을 계상함.

표 I-3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³⁾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3312	73,596	39.3	5,076	99,843	43.3
북미	858	59,179	31.6	1,295	58,762	25.5
유럽	440	26,301	14.1	646	36,600	15.9
기타	462	27,987	15.0	681	35,594	15.4
전체	5072	187,063	100.0	7,698	230,799	100.0

(3)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을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분류하면 투자잔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81.2%, 중소기업이 16.2%, 기타가 2.6%를 차지

표 I-4 분석대상 현지법인 투자자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분석대상			모집단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기업	2,506	151,944	81.2	3,380	191,813	83.1
중소기업	2,139	30,252	16.2	3,460	32,257	14.0
기타	427	4,867	2.6	858	6,729	2.9
전체	5,072	187,063	100.0	7,698	230,799	100.0

2. 경영성과

가. 매출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매출액은 전년(6,922억 달러)대비 9.1% 감소한 6,289억 달러를 기록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08억 달러로 55.8%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북미 18.3%, 유럽 17.1% 순임. 또한 아시아(△6.4%), 북미(△23.6%), 유럽(△4.2%) 등 세 지역 모두에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3,304억 달러로 52.5% 비중을, 도소매업은 2,406억 달러로 38.3%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두 업종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음.

아시아 매출의 61.9%는 제조업에서, 북미 매출의 57.2%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하였음.

표 I-5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17,026	36,557	48,715	28,120	330,419
광업	7,663	3,233	1,355	5,666	17,918
도소매업	100,924	65,903	54,810	19,001	240,637
부동산업	325	837	64	70	1,296
정보통신업	5,060	2,867	359	153	8,439
건설업	2,301	198	958	900	4,358
전기가스업	1,301	407	212	73	1,993
전문과학기술업	2,423	529	421	100	3,474
운수창고업	4,040	1,619	781	659	7,099
기타	9,690	2,989	131	459	13,269
전체	350,753	115,139	107,808	55,201	628,900

매출액 상위 5개국은 중국(1,420억 달러, 22.6%), 미국(1,082억 달러, 17.2%), 싱가포르(698억 달러, 11.1%), 베트남(543억 달러, 8.6%), 독일(245억 달러, 3.9%) 순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약 1.2억 달러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4.2억 달러)에서, 지역별로는 유럽(2.5억 달러)에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3) 기타는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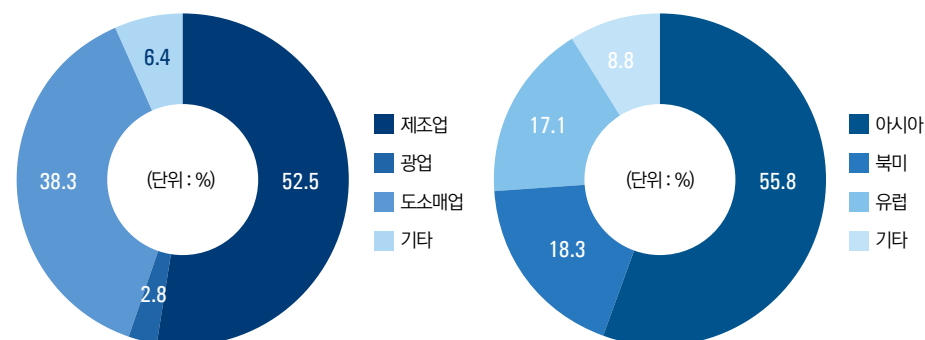
표 I-6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95	144	235	151	113
광업	213	85	226	126	143
도소매업	323	511	616	413	418
부동산업	2	4	1	3	3
정보통신업	46	43	18	19	42
건설업	33	18	80	30	36
전기가스업	54	58	27	6	38
전문과학기술업	39	10	26	20	26
운수창고업	68	147	56	44	72
기타	57	42	6	5	37
전체	106	134	245	119	124

그림 I-1 업종 및 지역별 매출액 비중

(단위: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매출액이 2.3억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0.2억 달러)의 11.5배를 기록하였으며, 그 격차는 전년(12.5배)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대기업 현지법인은 도소매업, 제조업, 광업순으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순으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기록.

표 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08	22	25	113
광업	166	2	3	143
도소매업	633	16	54	418
부동산업	8	2	1	3
정보통신업	56	16	41	42
건설업	50	4	0	36
전기가스업	45	3	0	38
전문과학기술업	49	5	8	26
운수창고업	91	10	3	72
기타	103	7	3	37
전체	234	18	10	124

나.영업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210억 달러)대비 6.7% 감소한 195억 달러를 기록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12억 달러)과 광업(48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음. 또한, 전기가스업(△78.4%)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두드러짐.

지역별로는 아시아(110억 달러)에서 전체의 56.6%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32억 달러), 북미(17억 달러) 순임.

표 I-8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7,373	249	1,962	1,632	11,216
광업	2,256	655	325	1,611	4,847
도소매업	672	989	917	38	2,617
부동산업	△10	211	15	36	252
정보통신업	△39	△215	△176	△8	△437
건설업	85	35	142	241	503
전기가스업	325	123	1	△111	338
전문과학기술업	55	△360	△56	4	△356
운수창고업	248	49	82	60	438
기타	106	△3	△9	58	152
전체	11,072	1,734	3,204	3,560	19,569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은 광업 38.8백만 달러, 전기가스업 6.5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은 유럽 7.3백만 달러, 아시아 3.3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음

표 I-9 업종 및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227	983	9,480	8,774	3,827
광업	62,673	17,232	54,249	35,789	38,776
도소매업	2,155	7,670	10,305	822	4,543
부동산업	△55	965	316	1,707	533
정보통신업	△358	△3,252	△8,786	△1,006	△2,155
건설업	1,238	3,167	11,807	8,023	4,120
전기가스업	13,529	17,625	133	△8,555	6,498
전문과학기술업	893	△6,787	△3,508	868	△2,619
운수창고업	4,200	4,451	5,865	3,970	4,429
기타	625	△46	△446	629	428
전체	3,343	2,021	7,281	7,706	3,858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1%로 전년(3.0%)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업종별로는, 주요 진출 업종인 제조업(3.4%)과 도소매업(1.1%)보다도 부동산업(19.4%), 광업(27.1%)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음. 한편, 전문과학기술업(△10.3%)이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 3.2%, 유럽 3.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전문과학기술업(△67.9%), 정보통신업(△7.5%) 등에서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1.5%)을 기록.

표 I-10 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4	0.7	4.0	5.8	3.4
광업	29.4	20.3	24.0	28.4	27.1
도소매업	0.7	1.5	1.7	0.2	1.1
부동산업	△3.1	25.3	23.1	51.5	19.4
정보통신업	△0.8	△7.5	△48.9	△5.3	△5.2
건설업	3.7	17.6	14.8	26.7	11.5
전기가스업	25.0	30.3	0.5	△152.1	17.0
전문과학기술업	2.3	△67.9	△13.3	4.3	△10.3
운수창고업	6.1	3.0	10.5	9.0	6.2
기타	1.1	△0.1	△7.2	12.7	1.1
전체	3.2	1.5	3.0	6.4	3.1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7.6백만 달러로,
이는 중소기업 현지법인(0.07백만 달러)의 108.6배 수준

대기업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7.7백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 다수 업종에서 영업 실적이 저하됨에 따라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0.4백만 달러) 대비 큰폭 감소.

표 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7,372	256	3,702	3,827
광업	44,878	△547	1,842	38,776
도소매업	7,113	△183	△551	4,543
부동산업	1,910	605	△230	533
정보통신업	△2,181	△2,041	△2,497	△2,155
건설업	5,933	△42	△64	4,120
전기가스업	7,904	△1,232	-	6,498
전문과학기술업	△1,322	△3,504	△5,915	△2,619
운수창고업	5,715	222	17	4,429
기타	249	470	574	428
전체	7,646	65	631	3,858

대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3%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0.4%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음

대기업 현지법인은 광업(27.1%)에서,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부동산업(24.7%)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음.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대기업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업종은 기타업종뿐임.

표 I-1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5	1.1	15.0	3.4
광업	27.1	△27.9	55.2	27.1
도소매업	1.1	△1.1	△1.0	1.1
부동산업	24.9	24.7	△36.7	19.4
정보통신업	△3.9	△13.1	△6.2	△5.2
건설업	11.9	△1.2	△16.2	11.5
전기가스업	17.7	△41.2	0.0	17.0
전문과학기술업	△2.7	△77.8	△77.6	△10.3
운수창고업	6.3	2.3	0.6	6.2
기타	0.2	6.3	21.2	1.1
전체	3.3	0.4	6.4	3.1

다. 당기순이익

(1)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총 2,348개사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127억 달러) 대비 47.1% 감소한 67억 달러를 기록

표 I-13 흑자 및 적자법인 현황

(단위: 개, %, 백만 달러)

	법인수	비중	당기순이익
흑자법인	2,348	46.3	21,954
적자법인	2,724	53.7	△15,191
전체	5,072	100.0	6,763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흑자 현지법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 부동산업 순임

■ 제조업은 총 2,931개사 중 48.6%에 해당하는 1,425개사가 흑자를 기록하였고, 도소매업은 총 575개사 중 47.6%에 해당하는 274개사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광업은 37.6%의 현지법인이 흑자를 실현하여 전체 평균(46.3%)에는 미달하는 수준.

■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은 흑자법인 비중이 50.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북미 지역에서는 적자 법인의 비중이 59.1%로 높게 나타남.

표 I-14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흑자 법인 수	적자 법인 수	흑자 법인 수	적자 법인 수	흑자 법인 수	적자 법인 수	흑자 법인 수	적자 법인 수	흑자 법인 수	적자 법인 수
제조업	1131	1154	109	144	105	102	80	106	1,425	1,506
광업	15	21	11	27	1	5	20	25	47	78
도소매업	140	172	59	70	55	34	20	26	274	302
부동산업	75	111	98	121	23	24	11	10	207	266
정보통신업	44	65	21	45	8	12	1	7	74	129
건설업	26	43	4	7	6	6	13	17	49	73
전기가스업	14	10	3	4	3	5	5	8	25	27
전문과학기술업	26	36	11	42	8	8	3	2	48	88
운수창고업	33	26	5	6	9	5	9	6	56	43
기타	62	108	30	41	6	15	45	48	143	212
전체	1,566	1,746	351	507	224	216	207	255	2,348	2,724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2,348개사 중 대기업 현지법인이 1,239개사로 52.8%,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925개사로 39.4% 비중을 차지.
한편, 대기업 현지법인 중 49.4%, 중소기업 현지법인 중 43.2%가 흑자를 기록

표 I-1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 흑자 현지법인 현황

(단위: 개,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흑자 법인수	흑자 법인 비중
제조업	730	51.2	652	46.1	43	47.8	1,425	48.6
광업	42	38.9	3	23.1	2	50.0	47	37.6
도소매업	199	53.2	71	38.6	4	22.2	274	47.6
부동산업	38	42.7	85	41.7	84	46.7	207	43.8
정보통신업	49	39.8	21	31.3	4	30.8	74	36.5
건설업	36	42.4	12	36.4	1	25.0	49	40.2
전기가스업	24	54.5	1	12.5	-	0.0	25	0.0
전문과학기술업	33	51.6	14	21.9	1	12.5	48	35.3
운수창고업	45	59.2	10	55.6	1	20.0	56	56.6
기타	43	37.1	56	41.8	44	41.9	143	40.3
전체	1,239	49.4	925	43.2	184	43.1	2,348	46.3

(2)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127억 달러)대비 크게 감소한 67억 달러를 실현

■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컸음. 반면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은 전 지역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

■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제조업, 광업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68억 달러 순이익을, 유럽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15억 달러 순이익을 거두었으며, 북미는 17억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표 I-16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212	△79	1,290	159	5,581
광업	1,480	△1,403	64	△62	79
도소매업	1,122	740	718	△53	2,526
부동산업	△128	△273	△20	△27	△448
정보통신업	△176	△264	△156	△35	△631
건설업	1	28	48	257	333
전기가스업	233	100	△331	△185	△183
전문과학기술업	19	△382	△91	3	△451
운수창고업	106	27	△7	31	156
기타	△29	△169	15	△16	△198
전체	6,838	△1,676	1,529	71	6,763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3백만 달러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4.4백만 달러, 건설업 2.7백만 달러, 제조업 1.9백만 달러 순으로 높은 평균 당기순이익을 기록.

■ 지역별로는 유럽 3.5백만 달러, 아시아 2.1백만 달러 순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높았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2.0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손실 기록.

표 I-17 업종 및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843	△313	6,230	854	1,904
광업	41,099	△36,912	10,681	△1,380	631
도소매업	3,595	5,735	8,062	△1,146	4,386
부동산업	△688	△1,247	△436	△1,266	△948
정보통신업	△1,614	△3,999	△7,803	△4,433	△3,110
건설업	13	2,512	3,975	8,572	2,733
전기가스업	9,712	14,246	△41,364	△14,234	△3,522
전문과학기술업	300	△7,206	△5,674	573	△3,318
운수창고업	1,791	2,427	△503	2,035	1,574
기타	△171	△2,374	730	△174	△559
전체	2,065	△1,953	3,475	154	1,333

국가별로는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7억 달러), 인도네시아(15억 달러) 순으로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손실 규모가 큰 국가로는 미국(△14억 달러), 필리핀(△13억 달러), 멕시코(△5억 달러) 순임

표 I-18 당기순이익 흑자 및 적자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당기순이익	국 가	당기순손실
1	중국	3,201	미국	△1,436
2	베트남	1,766	필리핀	△1,370
3	인도네시아	1,503	멕시코	△566
4	싱가포르	1,083	페루	△241
5	브라질	696	캐나다	△240
6	러시아	455	예멘	△213
7	슬로바키아	439	터키	△198
8	체코	351	스웨덴	△118
9	영국	202	사이프러스	△81
10	사우디아라비아	195	카자흐스탄	△49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1.1%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1.8%) 대비 0.7%p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7%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전문과학기술업이 △13.0%로 가장 낮은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1.9%, 유럽 1.4%, 북미 △1.5% 순임.

표 I-19 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9	△0.2	2.6	0.6	1.7
광업	19.3	△43.4	4.7	△1.1	0.4
도소매업	1.1	1.1	1.3	△0.3	1.0
부동산업	△39.4	△32.6	△31.9	△38.2	△34.6
정보통신업	△3.5	△9.2	△43.4	△23.2	△7.5
건설업	0.0	14.0	5.0	28.6	7.7
전기가스업	17.9	24.5	△155.8	△253.1	△9.2
전문과학기술업	0.8	△72.1	△21.6	2.9	△13.0
운수창고업	2.6	1.6	△0.9	4.6	2.2
기타	△0.3	△5.6	11.8	△3.5	△1.5
전체	1.9	△1.5	1.4	0.1	1.1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이 3.1백만 달러의 당기순이익,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0.4백만 달러의 평균 당기순손실을 시현

대기업 투자자들은 도소매업(6.9백만 달러)에서, 중소기업 투자자들은 운수창고업(0.1백만 달러)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기업 현지법인이 중소기업 현지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정보통신업·전기가스업에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이 더욱 높은 성과를 보임.

표 I-2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823	△93	2,860	1,904
광업	766	△992	2,265	631
도소매업	6,922	△408	687	4,386
부동산업	△1,157	△1,345	△394	△948
정보통신업	△3,329	△2,950	△1,865	△3,110
건설업	4,154	△590	△64	2,733
전기가스업	△3,654	△2,796	-	△3,522
전문과학기술업	△2,254	△4,050	△5,974	△3,318
운수창고업	2,044	127	△364	1,574
기타	△1,340	△290	△41	△559
전체	3,058	△481	303	1,333

대기업 현지법인은 1.3%,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2.7%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 중소기업 현지법인들의 실적이 제조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대폭 저하됨.
- 중소기업 현지법인들이 대기업 현지법인들보다 더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한 업종은 없음.

표 1-2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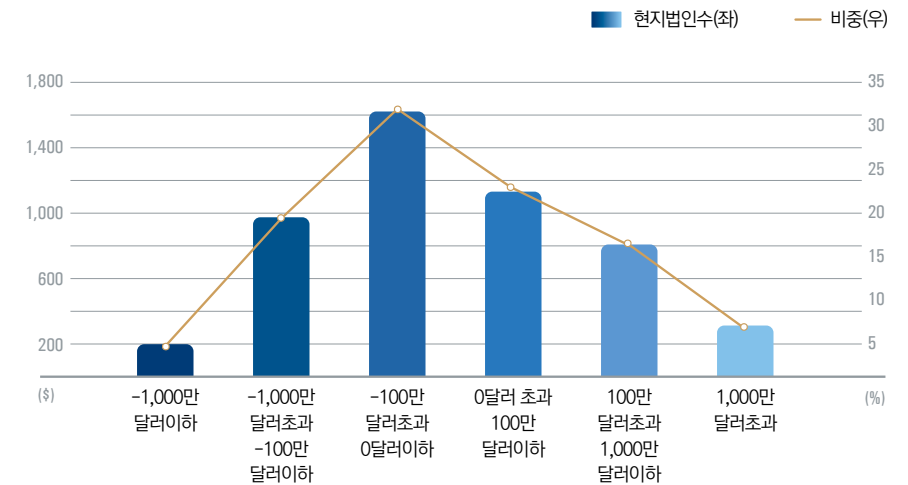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8	△0.4	11.6	1.7
광업	0.5	△50.7	67.9	0.4
도소매업	1.1	△2.5	1.3	1.0
부동산업	△15.1	△55.0	△62.8	△34.6
정보통신업	△6.0	△19.0	△4.6	△7.5
건설업	8.3	△16.6	△16.3	7.7
전기가스업	△8.2	△93.4	0	△9.2
전문과학기술업	△4.6	△90.0	△78.4	△13.0
운수창고업	2.2	1.3	△12.2	2.2
기타	△1.3	△3.9	△1.5	△1.5
전체	1.3	△2.7	3.1	1.1

(3) 당기순이익 분포 및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당기순이익 -100만 달러 초과 0달러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1,671개사)하였으며, -100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 분포한 현지법인이 2,801개사로 55.2% 비중을 차지함

- 100만 달러 초과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087개사(21.4%), -100만 달러 이하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실현한 현지법인은 1,184개사(23.4%).

그림 1-2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영업개시 경과연도별로 살펴보면, 영업개시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흑자법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흑자를 실현한 2,348개사 중 절반 이상이(54.4%) 영업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들로 파악됨

- 영업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흑자법인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현지법인들의 경우 64.6%의 법인이 흑자 실현. 이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구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업활동 개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현지법인이 전체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45.4%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름.

표 I-22 영업개시 경과연도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개, %)

	흑자법인		적자법인		전체법인수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1년미만	111	25.5	324	74.5	435
2년미만	81	28.8	200	71.2	281
3년미만	106	36.4	185	63.6	291
4년미만	104	37.5	173	62.5	277
5년미만	129	40.2	192	59.8	321
6년미만	122	44.2	154	55.8	276
7년미만	118	46.8	134	53.2	252
8년미만	104	45.2	126	54.8	230
9년미만	112	48.1	121	51.9	233
10년미만	84	48.6	89	51.4	173
10년이상	912	52.5	826	47.5	1,738
20년이상	288	63.6	165	36.4	453
30년이상	77	68.8	35	31.3	112
전 체	2,348	46.3	2,724	53.7	5,072

3. 매출입 현황⁴⁾

가. 매출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현지매출 비중이 62.5%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출 비중은 19.5%, 제3국수출 비중은 18.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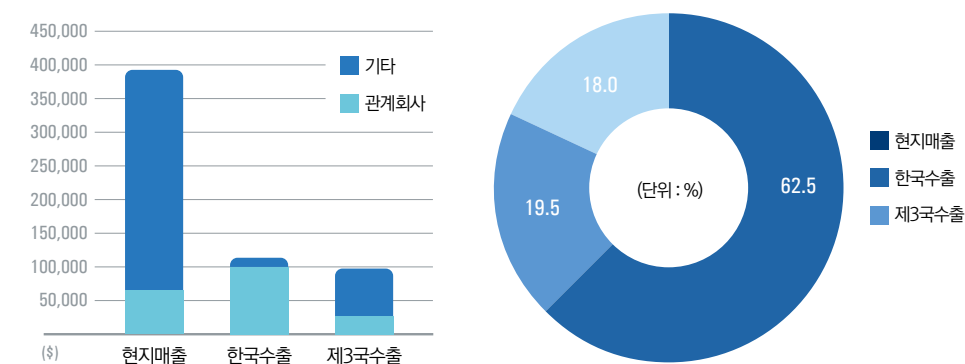
■ 현지매출은 관계회사보다는 기타 현지 판매처에 집중된 반면, 한국 수출은 모기업 등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음. 또한 전체 매출액 중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은 33.6% 수준.

표 I-23 현지법인 매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출액	63,908	329,178	115,086	7,513	32,235	80,980
비중	10.2	52.3	18.3	1.2	5.1	12.9

그림 I-3 매출현황 및 비중



4) 매출입현황은 분석의 유의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 특성상 현지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을 주요 업종으로 분석함.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과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높았음

-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지 확보 목적의 법인 설립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비중(26.4%)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회사 앞 매출 비중(46.2%) 역시 전체 평균(33.6%)보다 높았음.
- 도소매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및 인근지역 판로 개척 목적의 법인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수출 비중이 12.3%로 매우 낮았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비중 역시 18.2%로 전체 평균(33.6%)을 크게 밑도는 수준.

표 I-24 주요 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46,796	139,254	83,211	3,947	22,324	34,886
광업	5,736	7,955	2,210	175	98	1,742
도소매업	7,314	154,816	26,858	2,733	9,535	39,380
전체	63,908	329,178	115,086	7,513	32,235	80,980

표 I-25 주요 업종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제조업	56.3	26.4	17.3
광업	76.4	13.3	10.3
도소매업	67.4	12.3	20.3
전체	62.5	19.5	18.0

지역별로는, 현지매출 비중은 북미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수출 비중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게 나타남

- 아시아의 경우, 중국·베트남 등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의 국가의 매출규모가 커, 현지매출 비중(52.2%)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수출 비중(32.2%)은 전체 평균(19.5%)을 크게 상회함.
- 북미 지역에서는 현지매출 비중(81.4%)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미국 등 대규모 내수시장에 진출한 도소매업 현지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
- 유럽에서는 한국수출 대비 현지매출(68.7%) 및 제3국수출(28.2%)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동유럽 지역의 생산거점에서 서유럽 지역에 판매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이 상당부분 진행된 영향으로 보임.

표 I-26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35,909	147,313	106,521	6,533	12,065	42,412
북미	4,328	89,417	2,535	749	397	17,712
유럽	19,016	55,015	3,313	59	16,393	14,013
기타	4,656	37,432	2,718	172	3,381	6,843
전체	63,908	329,178	115,086	7,513	32,235	80,980

표 I-27 지역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아시아	52.2	32.2	15.5
북미	81.4	2.9	15.7
유럽	68.7	3.1	28.2
기타	76.2	5.2	18.5
전체	62.5	19.5	18.0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출 비중이 70.2%로 대기업 현지법인(61.9%)보다 현지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한편, 관계회사 앞 매출비중은 대기업이 34.5%, 중소기업이 22.1%로, 상대적으로 다수의 관계 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표 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61,592	301,650	109,159	6,613	31,700	76,103
중소기업	2,059	24,515	5,834	801	497	4,171
기타	258	3,013	93	99	39	706
전체	63,908	329,178	115,086	7,513	32,235	80,980

표 I-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 비중

(단위: %)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대기업	61.9	19.7	18.4
중소기업	70.2	17.5	12.3
기타	77.8	4.6	17.7
전체	62.5	19.5	18.0

나. 매입 현황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입 구조는 한국수입 45.8%, 현지매입 36.9%, 제3국 수입 17.3%의 비중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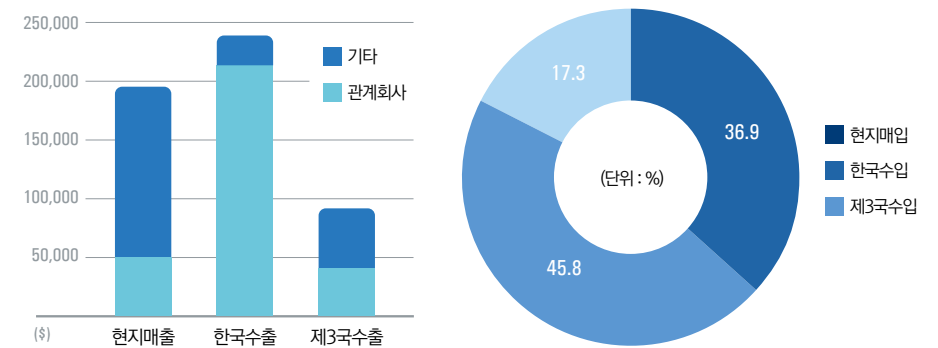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60.0%로 높았으며, 특히 한국 관계회사 앞 매입비중이 41.5%를 차지.

표 I-30 현지법인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매입액	51,119	137,697	212,225	22,023	43,285	44,886
비중	10.0	26.9	41.5	4.3	8.5	8.8

그림 I-4 현지법인 매입현황 및 비중



5) 당해연도 매출원가가 아닌 당기매입액임.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광업에서는 현지매입 비중이, 도소매업에서는 한국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광업은 업종의 특성상 현지매입 비중이 88.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 조달로 현지매입비중(4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수입비중(40.4%) 역시 낮지 않음.

■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 모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판매를 위한 법인 설립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31 주요 업종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28,338	89,363	90,871	14,524	15,819	21,762
광업	2,656	2,158	596	35	15	1
도소매업	19,608	31,741	112,473	6,106	27,327	21,128
전체	51,119	137,697	212,225	22,023	43,285	44,886

표 I-32 주요 업종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45.2	40.4	14.4
광업	88.1	11.6	0.3
도소매업	23.5	54.3	22.2
전체	36.9	45.8	17.2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는 한국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매입 구조를 보임

표 I-33 지역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25,336	94,074	104,412	18,392	8,957	36,891
북미	7,962	18,110	61,144	1,809	3,313	1,522
유럽	14,815	16,418	30,007	1,197	23,192	5,991
기타	3,006	9,095	16,662	625	7,824	481
전체	51,119	137,697	212,225	22,023	43,285	44,886

표 I-34 지역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시아	41.5	42.6	15.9
북미	27.8	67.1	5.2
유럽	34.1	34.1	31.9
기타	32.1	45.9	22.0
전체	36.9	45.8	17.2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현지법인은 한국수입 비중(46.8%)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현지매입(60.1%)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한편, 대기업의 경우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비중이 61.6%,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33.4%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

표 1-35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49,515	122,416	205,413	20,927	42,898	42,238
중소기업	1,544	13,834	6,622	996	382	2,200
기타	61	1,447	189	101	5	448
전체	51,119	137,697	212,225	22,023	43,285	44,886

표 1-36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입 비중

(단위: %)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기업	35.6	46.8	17.6
중소기업	60.1	29.8	10.1
기타	67.0	12.9	20.1
전체	36.9	45.8	17.2

4. 재무 현황

가. 부채비율⁶⁾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28.0%로 전년(152.0%) 대비 24%p 하락하였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채비율이 113.3%, 광업 127.1%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도소매업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158.8%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음. 또한 건설업 현지법인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18년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남.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 소재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이 각 114.8% 및 122.8%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였으며, 유럽(142.4%) 지역의 부채비율은 전체 평균(128.0%) 보다 높은 수준.

표 1-37 업종 및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01.6	158.1	115.6	175.1	113.3
광업	72.4	198.3	196.8	120.9	127.1
도소매업	189.8	104.1	201.4	416.9	158.8
부동산업	122.8	87.0	207.8	131.9	113.3
정보통신업	114.4	77.8	56.3	2,969.3	105.7
건설업	260.9	145.9	245.2	△198.2	1,465.6
전기가스업	155.9	137.1	115.4	79.4	111.0
전문과학기술업	96.3	44.0	36.6	197.3	52.5
운수창고업	105.8	285.7	135.7	152.4	128.3
기타	215.6	99.8	58.3	2,098.0	211.9
전체	114.8	122.8	142.4	197.1	128.0

6) 부채총액/자기자본

대기업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은 128.1%,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37.2%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보임

대기업 현지법인은 도소매업(158.8%), 광업(132.8%) 순으로,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도소매업(291.4%), 운수창고업(179.0%) 순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음.

표 1-3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12.1	145.6	43.4	113.3
광업	132.8	자본잠식	7.0	127.1
도소매업	158.8	291.4	54.6	158.8
부동산업	120.2	99.6	123.8	113.3
정보통신업	106.7	93.6	150.8	105.7
건설업	자본잠식	110.2	52.9	자본잠식
전기가스업	103.9	자본잠식	0	111.0
전문과학기술업	50.7	53.2	97.3	52.5
운수창고업	124.2	179.0	△621.9	128.3
기타	154.3	124.4	△10,120.3	211.9
전체	128.1	137.2	95.2	128.0

나. 차입금⁷⁾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차입금 규모는 1,127억 달러로, 전년(1,607억 달러) 대비 29.9% 감소하였음

업종별 차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제조업 595억 달러, 광업 177억 달러, 도소매업 78억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차입금 규모가 555억 달러로 49.2% 비중이며, 아시아와 북미(205억 달러) 그리고 유럽(126억 달러) 모두 차입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

표 1-39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8,427	6,384	5,625	9,066	59,502
광업	2,240	7,850	694	6,958	17,742
도소매업	4,193	977	797	644	6,611
부동산업	2,206	3,335	1,647	624	7,813
정보통신업	2,037	147	78	117	2,380
건설업	912	142	2,249	1,979	5,282
전기가스업	2,594	258	948	1,926	5,727
전문과학기술업	173	95	404	5	678
운수창고업	1,169	69	106	157	1,502
기타	1,588	1,299	60	2,614	5,562
전체	55,540	20,559	12,610	24,091	112,799

7)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현지법인당 평균 차입금 규모는 대기업이 39.5백만 달러로 중소기업 현지법인(4.9백만 달러)의 8.1배 수준으로 자금시장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정도는 전년(10.9배)대비 다소 완화됨

대기업의 경우 광업(1.6억 달러)과 전기가스업(1.2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가스업(5.11백만 달러)과 부동산업(9.8백만 달러)에서 평균 차입금 규모가 높게 나타남.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차입금 총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제조업이 평균 차입금 규모는 20.3백만 달러로 전체 평균(22.2백만 달러)을 하회하였음. 또한, 광업과 전기가스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본 투입규모가 상당한 만큼, 평균 차입금 규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표 I-40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차입금 현황

(단위: 천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7,369	4,159	3,293	20,301
광업	163,229	4,670	13,198	141,938
도소매업	15,766	2,831	10,744	11,477
부동산업	60,110	9,806	2,570	16,517
정보통신업	17,723	2,987	0	11,724
건설업	60,763	3,365	1,561	43,297
전기가스업	120,865	51,073	0	110,127
전문과학기술업	7,802	2,502	2,366	4,988
운수창고업	17,514	5,494	14,407	15,172
기타	19,365	7,251	22,324	15,668
전체	39,481	4,868	8,071	22,240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⁸⁾는 22.8%로 전년(27.0%) 대비 4.2%p 하락하였음

업종별로는 건설업(58.8%), 전기가스업(45.3%), 부동산업(41.8%) 순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임.

지역별로는 북미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가 31.4%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21.8%)와 유럽(16.8%)도 낮은 차입금의존도를 보임.

표 I-41 업종 및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1.5	27.7	18.1	33.4	22.9
광업	19.0	53.8	22.8	43.1	38.9
도소매업	9.5	2.4	3.6	10.4	5.9
부동산업	39.4	37.2	54.5	54.4	41.7
정보통신업	29.4	7.7	7.8	32.4	23.3
건설업	31.6	45.4	53.2	127.7	58.8
전기가스업	54.1	51.0	46.7	36.2	45.3
전문과학기술업	11.0	6.1	16.8	12.0	12.1
운수창고업	28.8	9.5	6.2	15.7	20.0
기타	36.3	32.6	18.2	89.6	47.9
전체	21.0	21.4	17.8	39.0	22.8

8) 총차입금/총자산

■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대기업(22.4%)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2.8%p 높았으며, 전체 평균(22.8%) 대비 높은 차입금의존도를 나타냄.

표 I-42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3.3	22.1	6.6	22.9
광업	39.7	72.9	5.1	38.9
도소매업	5.4	24.0	18.1	5.9
부동산업	46.0	33.1	44.3	41.7
정보통신업	24.9	16.2	0.0	23.3
건설업	61.0	23.0	28.0	58.8
전기가스업	43.5	95.9	0.0	45.3
전문과학기술업	11.9	13.4	9.5	12.1
운수창고업	18.4	43.8	112.3	20.0
기타	35.2	35.0	95.7	47.9
전체	22.4	25.2	32.5	22.8

다. 이자보상배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전년(4.1배)보다 감소한 3.8배를 기록하였음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5.5배로 가장 높았으며, 광업과 제조업 또한 각 4.8 및 4.6배로 평균(3.8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0배로 전년(6.6배)대비 개선.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위주로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역시 전년(4.1배) 대비 소폭 악화되었음.

표 I-43 업종 및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4.6	1.2	12.7	3.4	4.6
광업	22.4	1.2	4.2	5.1	4.8
도소매업	5.3	4.4	16.2	0.6	5.5
부동산업	영업적자	1.6	0.1	0.8	0.6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2.2	5.7	2.6	2.2	2.4
전기가스업	4.8	9.1	0.1	영업적자	1.9
전문과학기술업	12.2	영업적자	영업적자	59.5	영업적자
운수창고업	2.3	2.6	4.3	2.2	2.5
기타	1.6	영업적자	영업적자	0.8	0.8
전체	5.0	1.4	5.5	2.9	3.8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4.2배로 전년(4.5배)대비 감소. 중소기업은 전년(1.8배)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0.3배)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광업, 도소매업 등을 위주로 영업실적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표 I-44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4.9	1.3	27.0	4.6
광업	4.8	영업적자	1.3	4.8
도소매업	5.9	영업적자	영업적자	5.5
부동산업	0.8	0.8	영업적자	0.6
정보통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2.4	영업적자	0.0	2.4
전기가스업	2.1	영업적자	0.0	1.9
전문과학기술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운수창고업	2.6	0.8	0.0	2.5
기타	0.2	2.7	1.0	0.8
전체	4.2	0.3	2.1	3.8

라. 유동비율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은 130.5%로 전년(133.8%)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정보통신업(184.9%), 과학기술업(157.2%), 제조업(136.3%) 순으로 유동비율이 높았으며, 전기가스업(91.0%)은 유동비율이 100%를 밑돌아 유동성 개선의 필요성 존재.
-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현지법인의 유동비율이 118.6%로 유동성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아시아(134.4%)와 유럽(141.0%)은 전체 평균(130.5%)보다는 높은 수준.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 유동비율이 131.3%로 중소기업 현지법인(119.6%) 보다 양호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45 업종 및 지역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35.1	122.3	151.6	139.5	136.3
광업	163.0	102.1	171.9	108.8	127.1
도소매업	130.7	113.3	133.2	101.8	124.0
부동산업	109.5	82.3	160.3	205.7	108.8
정보통신업	176.8	183.4	271.8	267.4	184.9
건설업	145.6	128.3	94.4	71.6	104.4
전기가스업	176.0	120.1	106.3	27.4	91.0
전문과학기술업	150.3	272.9	102.4	135.3	157.2
운수창고업	117.1	65.2	156.9	87.0	106.7
기타	98.6	199.0	171.0	63.0	111.7
전체	134.4	118.6	141.0	114.8	130.5

표 I-46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39.8	109.3	179.6	136.3
광업	129.6	29.2	7.0	127.1
도소매업	123.7	108.7	247.7	124.0
부동산업	74.2	199.0	260.2	108.8
정보통신업	186.8	183.2	148.0	184.9
건설업	100.9	174.5	269.2	104.4
전기가스업	84.0	362.5	-	91.0
전문과학기술업	128.5	297.5	184.2	157.2
운수창고업	109.6	130.6	14.9	106.7
기타	116.6	153.8	58.0	111.7
전체	131.3	119.6	151.6	130.5

마. 금융비용부담률⁹⁾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금융비용부담률은 0.8%로, 전년(0.7%)대비 소폭 증가함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2.3%), 전기가스업(8.9%), 광업(5.7%)에서 전체 평균(0.7%) 대비 매우 높은 금융비용부담률을 기록.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0.6%), 유럽(0.5%) 지역에서는 금융비용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북미(1.4%)는 전체 평균(0.8%)을 상회하는 수준.

표 I-47 업종 및 지역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0.7	0.6	0.3	1.7	0.7
광업	1.3	16.3	5.8	5.6	5.7
도소매업	0.1	0.3	0.1	0.3	0.2
부동산업	18.2	16.1	279.7	63.8	32.3
정보통신업	0.5	0.2	3.5	10.0	0.7
건설업	1.7	3.1	5.7	12.2	4.8
전기가스업	5.2	3.3	6.4	112.9	8.9
전문과학기술업	0.2	3.8	1.9	0.1	0.9
운수창고업	2.7	1.2	2.4	4.1	2.4
기타	0.7	2.0	2.0	15.4	1.5
전체	0.6	1.1	0.5	2.2	0.8

표 I-48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금융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0.7	0.8	0.6	0.7
광업	5.7	5.7	41.7	5.7
도소매업	0.2	0.7	0.8	0.2
부동산업	32.8	31.1	34.3	32.3
정보통신업	0.7	1.0	0.0	0.7
건설업	4.9	2.9	0.0	4.8
전기가스업	8.4	49.6	0.0	8.9
전문과학기술업	0.3	6.6	5.0	0.9
운수창고업	2.4	2.8	13.6	2.4
기타	1.0	2.3	20.7	1.5
전체	0.8	1.4	3.0	0.8

9)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매출액

Ⅱ.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효과 분석

1. 투자수익

가. 투자수익률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자순이익¹⁰⁾, 로열티, 대부이자를 합산한 투자수익은 109억 달러이며, 이를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5.8%로 전년(7.4%)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투자자순이익 69억 달러, 로열티 35억 달러, 대부이자 5억 달러로, 투자자순이익 및 로열티의 경우 전년(37억 달러 및 4억 달러) 대비 각각 31.8% 및 6.8% 감소

표 II-1 현지법인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B)	투자수익률 (A/B)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금 액	6,892	3,476	519	10,887	187,063	5.8%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수익률이 10.9%로 전년(17.2%)대비 감소하며 전체 투자수익률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도소매업은 8.4%로, 전년(5.0%)대비 상승하여 타업종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정보통신업(△4.2%) 및 부동산업(△2.2%), 전문과학기술업(△0.9%), 광업(△0.3%)으로, 특히 부동산업 및 정보통신업은 전년(각각 1.9% 및 0.2%) 대비 투자수익률이 저하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및 기타지역에서 각각 9.9%, 9.8% 및 3.3%의 투자수익률을 달성

아시아에서는 광업(20.2%), 전기가스업(14.1%)의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미에서는 전기가스업(33.7%) 및 건설업(28.9%), 유럽에서는 도소매업(17.7%) 및 제조업(17.2%)이 높게 나타남.

표 II-2 업종 및 지역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0.7	3.2	17.2	13.0	10.9
광업	20.2	△4.5	1.6	△1.1	△0.3
도소매업	13.7	4.6	17.7	△2.2	8.4
부동산업	△2.5	△5.1	4.5	△1.0	△2.2
정보통신업	△0.6	△10.0	0.8	△22.5	△4.2
건설업	3.7	28.9	5.2	3.1	5.3
전기가스업	14.1	33.7	△3.1	1.4	7.0
전문과학기술업	4.0	△1.0	△2.3	19.1	△0.9
운수창고업	5.3	1.8	△0.4	6.9	4.2
기타	△1.5	△3.2	6.9	3.6	0.1
전체	9.8	0.2	9.9	3.3	5.8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이 7.3%로 전년(8.3%)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률은 전년(1.5%)대비 2.5%p 감소한 △1.0%를 기록

대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 투자수익률이 전년(19.5%)대비 하락한 12.7%를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가스업이 전년(0.6%)대비 크게 하락한 △11.5%를 기록

10) 투자자순이익 = 당기순이익 × 한국투자자 지분율

표 II-3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2.7	0.6	5.1	10.9
광업	△0.3	△5.3	1.2	△0.3
도소매업	9.0	△3.4	△4.7	8.4
부동산업	△0.9	△3.7	△5.2	△2.2
정보통신업	△4.1	△6.7	21.9	△4.2
건설업	5.8	△7.6	△1.1	5.3
전기가스업	8.0	△11.5	-	7.0
전문과학기술업	0.2	△0.8	△121.9	△0.9
운수창고업	4.4	2.3	1.7	4.2
기타	△2.9	1.7	3.2	0.1
전체	7.3	△1.0	0.4	5.8

나. 투자자순이익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은 전년(101억 달러)대비 하락한 69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51억 달러)의 투자자순이익이 전년(99억 달러)대비 감소하였으며, 광업의 투자자순손실 규모가 △2.1억 달러로, 전년(△16.4억 달러)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50억 달러, 유럽은 20억 달러, 북미 △2억 달러 및 기타지역 2억 달러를 기록

■ 투자자 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투자자순이익이 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101억 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6억 달러를 기록하며 손실로 전환

표 II-4 업종 및 지역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3,394	81	1,203	415	5,094
광업	511	△537	66	△252	△212
도소매업	1,061	784	712	△32	2,524
부동산업	△100	△272	△16	△26	△414
정보통신업	△64	△234	11	△28	△314
건설업	45	28	44	74	190
전기가스업	125	91	△36	3	183
전문과학기술업	26	△108	△39	3	△118
운수창고업	46	6	△4	26	74
기타	△46	△70	20	△19	△116
전체	4,999	△230	1,960	163	6,892

표 II-5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5,155	△88	27	5,094
광업	△213	△11	12	△212
도소매업	2,598	△66	△7	2,524
부동산업	△84	△257	△72	△414
정보통신업	△222	△110	18	△314
건설업	208	△17	0	190
전기가스업	203	△20	0	183
전문과학기술업	4	△85	△37	△118
운수창고업	74	2	△1	74
기타	△96	5	△25	△116
전체	7,625	△647	△86	6,892

다.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은 35억 달러로 전년(37억 달러)대비 6.8%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로열티 지급액이 32억 달러로 총지급액의 91.7%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건설업의 지급액(1억 달러)이 3.0%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체 현지법인의 61.8%에 해당하는 21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럽(5.3억 달러), 기타지역(4.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로열티 지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6 업종 및 지역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024	206	517	444	3,190
광업	0	0	0	0	0
도소매업	46	7	13	2	67
부동산업	1	0	0	0	1
정보통신업	50	15	0	1	66
건설업	0	104	0	0	105
전기가스업	3	0	0	0	3
전문과학기술업	1	1	0	0	2
운수창고업	12	0	2	4	18
기타	12	5	0	7	24
전체	2,149	337	531	458	3,476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 앞 로열티 지급액이 33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93.8%를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7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3,057	130	2	3,190
광업	0	0	0	0
도소매업	42	25	0	67
부동산업	1	0	0	1
정보통신업	26	41	0	66
건설업	105	0	0	105
전기가스업	3	0	0	3
전문과학기술업	1	1	0	2
운수창고업	16	0	1	18
기타	10	9	6	24
전체	3,261	207	9	3,476

라. 대부이자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한국투자자에 대한 대부이자 총 지급액은 5.2억 달러로 전년(3.9억 달러)대비 33.6% 상승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4억 달러)이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광업(1.3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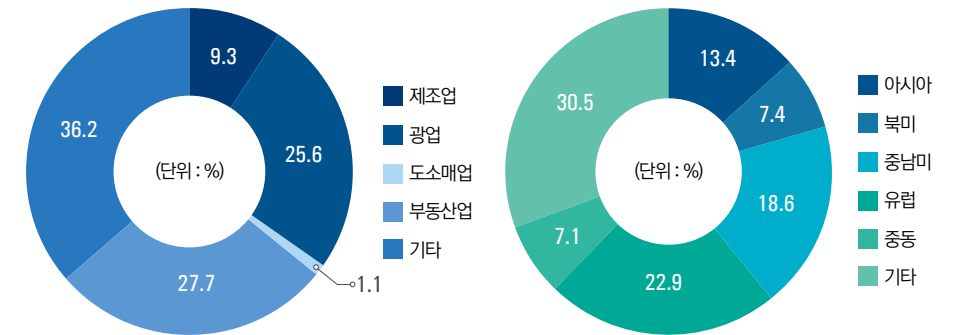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현지법인이 1.2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0.7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함.

표 II-8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9	3	4	13	48
광업	0	16	0	116	133
도소매업	3	1	0	2	6
부동산업	3	9	114	17	144
정보통신업	0	0	0	0	0
건설업	0	1	0	48	49
전기가스업	8	7	0	4	18
전문과학기술업	0	1	0	0	1
운수창고업	19	0	0	2	22
기타	8	2	0	88	98
전체	70	39	119	292	519

그림 II-1 업종 및 지역별 대부이자 비중 현황



■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대부이자 지급액이 2.8억 달러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였고,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1.4억 달러를 지급.

표 II-9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대부이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7	22	0	48
광업	133	0	0	133
도소매업	4	1	0	6
부동산업	21	104	18	144
정보통신업	0	0	0	0
건설업	49	0	0	49
전기가스업	15	3	0	18
전문과학기술업	0	1	0	1
운수창고업	19	1	2	22
기타	8	12	78	98
전체	276	143	99	519

2. 배당금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한국인 투자자 앞 지급한 배당금은 39억 달러로
전년(41억 달러)대비 3.4% 감소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26.1억 달러), 부동산업(4.7억 달러), 도소매업(3.0억 달러) 순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 현지법인이 전체의 56.5%에 해당하는 22.1억 달러를 지급하였고, 북미와 유럽은 각각 4.1억 달러 및 8.7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함.

표 II-10 업종 및 지역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1,721	38	589	263	2,610
광업	64	67	0	129	260
도소매업	165	3	127	5	300
부동산업	44	281	130	17	471
정보통신업	8	1	3	0	12
건설업	55	0	0	0	55
전기가스업	94	0	0	1	94
전문과학기술업	16	0	7	0	24
운수창고업	40	0	10	8	57
기타	6	24	1	0	31
전체	2,212	414	868	422	3,916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현지법인의 배당금 지급액이 33.2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지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5.5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함.

표 II-11 업종 및 투자자 기업규모별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334	264	12	2,610
광업	224	0	36	260
도소매업	287	13	0	300
부동산업	207	262	3	471
정보통신업	9	3	0	12
건설업	55	0	0	55
전기가스업	94	0	0	94
전문과학기술업	22	2	0	24
운수창고업	57	1	0	57
기타	26	5	0	31
전체	3,315	549	51	3,916

■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348개의 현지법인 중 한국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현지법인은 전체의 14.0%인 328개사였음. 흑자시현 현지법인이 지급한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총액은 전체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총액의 85.4% 비중인 33.5억 달러임.

표 II-12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현지법인수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전체	5,072	3,916
배당 실시 흑자법인	328	3,345

3. 수출입 효과

가. 순수출¹¹⁾

한국기업의 대 현지법인 수출은 2,342억 달러, 수입은 1,226억 달러로 순수출액은 1,116억 달러를 시현

수출 규모가 전년(2,600억 달러)대비 258억 달러 감소하고 수입 규모는 전년(1,219억 달러)대비 증가(7억 달러)함에 따라 순수출 규모는 전년(1,381억 달러)대비 265억 달러 감소하였음.

표 II-13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순수출(수출 - 수입)
관계회사	212,225	115,086	97,139
기타	22,023	7,513	14,510
전체	234,248	122,599	111,649

업종별 순수출은 국내기업의 판매법인이 많은 도소매업이 890억 달러로 전체 순수출액의 79.7%를 차지하였음. 반면, 광업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았음

표 II-14 주요 업종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제조업	105,395	87,158	18,237
광업	632	2,386	△1,754
도소매업	118,579	29,591	88,988
전체	234,248	122,599	111,649

표 II-15 주요 업종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제조업	90,871	14,524	83,211	3,947	7,659	10,577
광업	596	35	2,210	175	△1,614	△140
도소매업	112,473	6,106	26,858	2,733	85,615	3,373
전체	212,225	22,023	115,086	7,513	97,139	14,510

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597억 달러, 유럽이 27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선진국 앞 순수출 규모가 전체 순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지역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아시아	122,804	113,054	9,750
북미	62,952	3,283	59,669
유럽	31,204	3,372	27,832
기타	17,287	2,889	14,398
전체	234,248	122,599	111,649

한편, 아시아의 경우, 한국 관계회사의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며 관계 회사를 통한 순수출액은 △21억 달러를 기록.

11)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현지법인과 모기업 또는 기타 한국 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수출 규모를 계산하였음. 수출은 현지법인 매입현황 중 '한국수입' 항목을, 수입은 현지법인 매출현황 중 '한국수출' 항목을 이용하였음.

표 II-17 지역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아시아	104,412	18,392	106,521	6,533	△2,109	11,859
북미	61,144	1,809	2,535	749	58,609	1,060
유럽	30,007	1,197	3,313	59	26,694	1,138
기타	16,662	625	2,718	172	13,945	453
전체	212,225	22,023	115,086	7,513	97,139	14,510

투자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106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순수출액의 99.0%를 차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부분의 순수출액이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음.

표 II-18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대기업	226,340	115,772	110,569
중소기업	7,618	6,636	982
기타	290	191	98
전체	234,248	122,599	111,649

표 II-19 투자자 기업규모별 순수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수출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관계회사	기타
대기업	205,413	20,927	109,159	6,613	96,254	14,314
중소기업	6,622	996	5,834	801	788	194
기타	189	101	93	99	97	2
전체	212,225	22,023	115,086	7,513	97,139	14,510

나. 수출입 유발효과¹²⁾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수출유발효과는 125.2%, 수입유발효과는 65.5%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전년(71.9%)대비 감소한 59.7% 기록

도소매업의 수출유발효과는 385.4%로 전체 평균 수출유발효과(125.2%)를 크게 상회하며 높은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보인 반면, 제조업(137.4%)을 제외한 주요 업종들은 수출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0 현지법인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187,063	234,248	125.2	122,599	65.5	59.7

표 II-21 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제조업	76,704	105,395	137.4	87,158	114	2
광업	30,228	632	2.1	2,386	8	△6
도소매업	30,771	118,579	385.4	29,591	96	289
전체	187,063	234,248	125.2	122,599	66	60

12) 분석대상 현지법인과 한국 기업간의 수출 및 수입 금액을 한국인 투자자의 투자잔액으로 나누어 수출 및 수입유발효과를 계산하였음.

지역별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유럽이 105.8%로 가장 높고, 아시아가 13.2%로 가장 낮았음

북미 및 유럽의 경우,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06.4% 및 118.6%로 높은 수준이나, 수입유발효과는 10% 전후에 불과해 높은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보임. 반면, 아시아의 경우, 수출입 유발효과가 각각 166.9% 및 153.6%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여 낮은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보임.

표 II-22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아시아	73,596	122,804	166.9	113,054	153.6	13.2
북미	59,179	62,952	106.4	3,283	5.5	100.8
유럽	26,301	31,204	118.6	3,372	12.8	105.8
기타	27,987	17,287	61.8	2,889	10.3	51.4
전체	187,063	234,248	125.2	122,599	65.5	59.7

투자자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각각 72.8%, 3.2%로 나타남

표 II-23 투자자 기업규모별 수출입 유발효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한국 → 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 → 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 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 유발효과 (E=C/A)	
대기업	151,944	226,340	149.0	115,772	76.2	72.8
중소기업	30,252	7,618	25.2	6,636	21.9	3.2
기타	4,867	290	6.0	191	3.9	2.0
전체	187,063	234,248	125.2	122,599	65.5	59.7

4. 고용효과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전체 고용인원은 총 1,819,838명이며, 이 중 한국인은 34,059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 1.9%를 차지함

직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현지인 생산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99.6%)을 차지함. 한편, 임원의 경우 한국인 비중이 27.0%로, 다른 직종에 비해 한국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4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생산직	1,461,152	6,099	1,455,053	0.4
영업직	131,697	6,849	124,848	5.2
관리직	208,796	16,198	192,598	7.8
임원	18,193	4,913	13,280	27.0
전체	1,819,838	34,059	1,785,779	40.4

업종별로는 제조업 현지법인이 전체 고용인원의 89.4%인 1,626,377명을 고용하였으며 현지 시장에서의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해 진출하는 제조업 현지법인의 특성상 한국인 비중은 1.4%로 낮았음

한국인 비중은 부동산업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업(10.2%) 및 전문과학기술업(8.4%) 또한 한국인 고용 비중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해당 업종 특성상 고급기술인력 및 관리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25 업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제조업	1,626,377	22,186	1,604,191	1.4
광업	17,999	368	17,631	2.0
도소매업	83,120	6,041	77,079	7.3
부동산업	2,839	455	2,384	16.0
정보통신업	19,887	1,119	18,768	5.6
건설업	10,709	769	9,940	7.2
전기가스업	1,145	117	1,028	10.2
전문과학기술업	6,248	525	5,723	8.4
운수창고업	16,675	254	16,421	1.5
기타	34,839	2,225	32,614	6.4
전체	1,819,838	34,059	1,785,779	1.9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4.6%인 1,538,751명이며, 아시아 고용인원 중 현지인 근로자의 비중이 98.4%에 달함

한편, 한국인 비중의 경우 북미가 6.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대기업 판매법인이 다수인 북미의 경우, 영업지원, 마케팅 등 관리업무를 위한 한국인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I-26 지역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아시아	1,538,751	25,304	1,513,447	1.6
북미	61,464	3,696	57,768	6.0
유럽	94,311	2,355	91,956	2.5
기타	125,312	2,704	122,608	2.2
전체	1,819,838	34,059	1,785,779	1.9

표 II-27 지역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아시아	4,759	5,495	11,579	3,471	1,249,649	103,157	149,437	11,204
북미	610	704	1,791	591	30,544	12,563	13,547	1,114
유럽	232	303	1,501	319	68,868	5,472	16,843	773
기타	498	347	1,327	532	105,992	3,656	12,771	189
전체	6,099	6,849	16,198	4,913	1,455,053	124,848	192,598	13,280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한국인 고용인원 비중이 2% 수준으로, 투자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현지 채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기보다는 현지에서 단순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인 생산직 근로자 비중(86.0%)이 대기업(77.9%)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II-28 투자자 기업규모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

	총인원	한국인	현지인	한국인 비중
대기업	1,233,890	22,260	1,211,630	1.8
중소기업	559,793	10,813	548,980	1.9
기타	26,155	986	25,169	3.8
전체	1,819,838	34,059	1,785,779	1.9

표 II-29 투자자 기업규모 및 직종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한국인				현지인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생산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대기업	4,504	3,579	11,718	2,459	960,987	104,810	138,454	7,379
중소기업	1,530	3,034	4,152	2,097	481,550	17,859	43,964	5,607
기타	65	236	328	357	12,516	2,179	10,180	294
전체	6,099	6,849	16,198	4,913	1,455,053	124,848	192,598	13,280

Ⅲ. 기타 분석

1. 설문사항

가. 개요

제 Ⅲ장에서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2018 회계년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5,072개사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음

■ 모든 지역에서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가 가장 많은 비중(57.8%)을 차지하는 바, 제조업의 설문 결과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Ⅲ-1 업종 및 지역별 분석대상 현지법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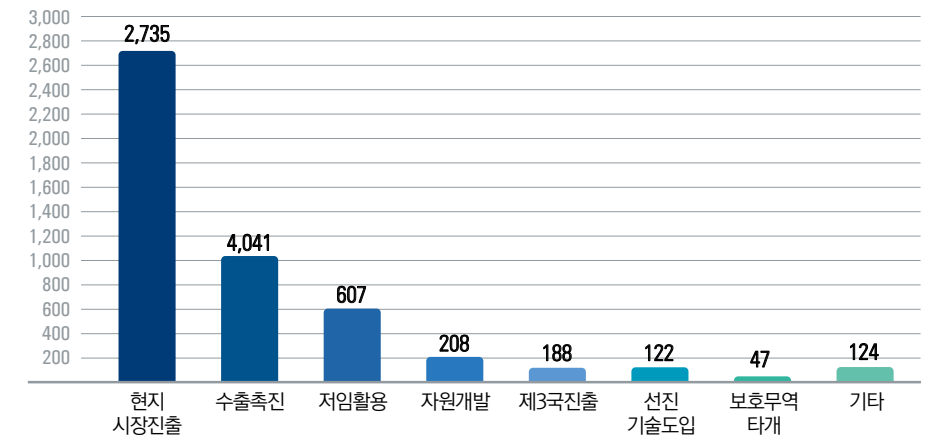
(단위: 개)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체
제조업	2,285	253	207	186	2,931
광업	36	38	6	45	125
도소매업	312	129	89	46	576
부동산업	186	219	47	21	473
정보통신업	109	66	20	8	203
건설업	69	11	12	30	122
전기가스업	24	7	8	13	52
전문과학기술업	62	53	16	5	136
운수창고업	59	11	14	15	99
기타	170	71	21	93	355
전체	3,312	858	440	462	5,072

나. 진출목적별 현황

2018 회계년도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응답수 기준 현지시장진출이 2,735개사(53.9%), 수출촉진이 1,041개사(20.5%), 저임활용이 607개사(12.0%) 순으로 높았음

그림 Ⅲ-1 진출목적별 현황



다. 영업환경 현황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영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61.3%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93.4%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투자자들은 현지법인의 영업환경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현지법인의 경우 98.0% 이상의 응답자가 영업환경을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률이 9.0%로 상대적으로 영업환경이 열악하다고 보는 비중이 높았음.

그림 Ⅲ-2 현지법인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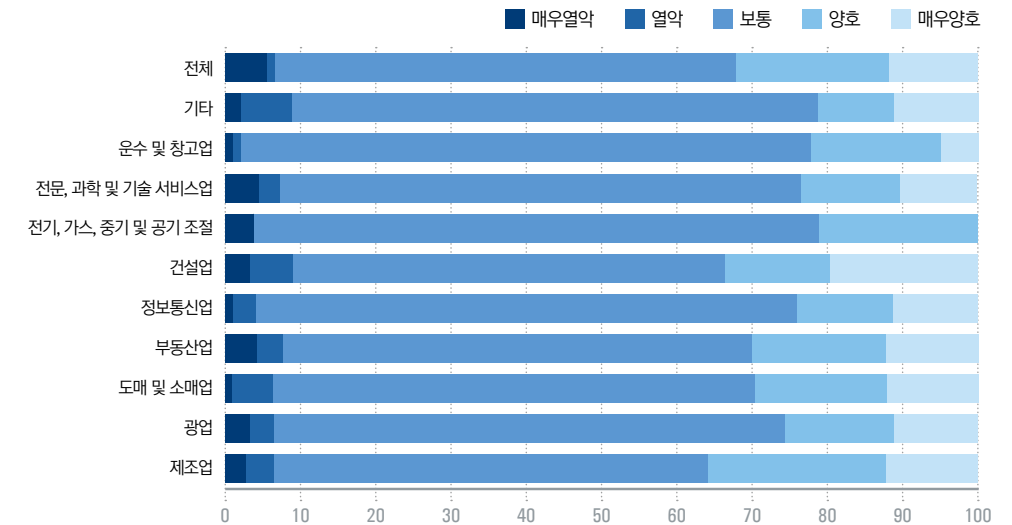


표 Ⅲ-2 업종별 경쟁관계 현황

(단위: %, 개)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제조업	2.7	3.8	57.6	23.7	12.2	2,931
광업	3.2	3.2	68.0	14.4	11.2	125
도소매업	0.9	5.4	64.1	17.5	12.2	576
부동산업	4.2	3.4	62.4	17.8	12.3	473
정보통신업	1.0	3.0	71.9	12.8	11.3	203
건설업	3.3	5.7	57.4	13.9	19.7	122
전기가스업	3.8	0.0	75.0	21.2	0.0	52
전문과학기술업	4.4	2.9	69.1	13.2	10.3	136
운수창고업	1.0	1.0	75.8	17.2	5.1	99
기타	2.0	6.8	69.9	10.1	11.3	355
전체	2.6	4.0	61.3	20.2	11.9	5,072

그림 Ⅲ-3 업종별 경쟁관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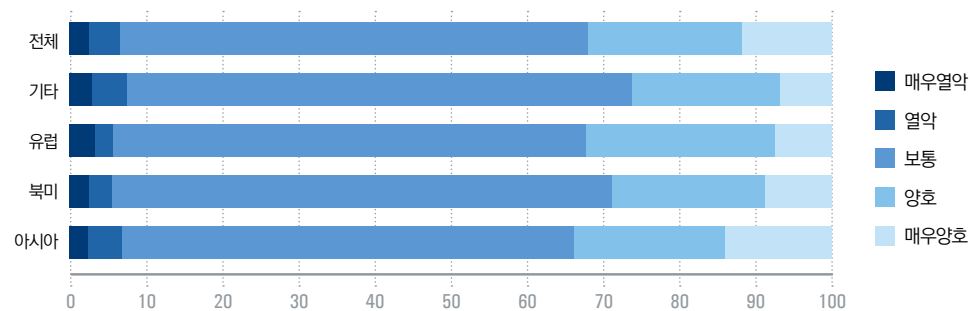
지역별 영업환경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은 북미가 94.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는 93.2%로 평균(93.4%) 수준

표 Ⅲ-3 지역별 경쟁관계 현황

(단위: %, 개)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자수
아시아	2.4	4.4	59.4	19.7	14.1	3,312
북미	2.6	2.9	65.7	20.0	8.7	858
유럽	3.4	2.3	62.0	24.8	7.5	440
기타	3.0	4.5	66.2	19.5	6.7	462
전체	2.6	4.0	61.3	20.2	11.9	5,072

그림 Ⅲ-4 지역별 경쟁관계 비중

라. 운영상 애로사항¹³⁾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허용)은 인사 및 재무 등 영업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 비중은 인사(17.6%), 재무(17.4%), 생산(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5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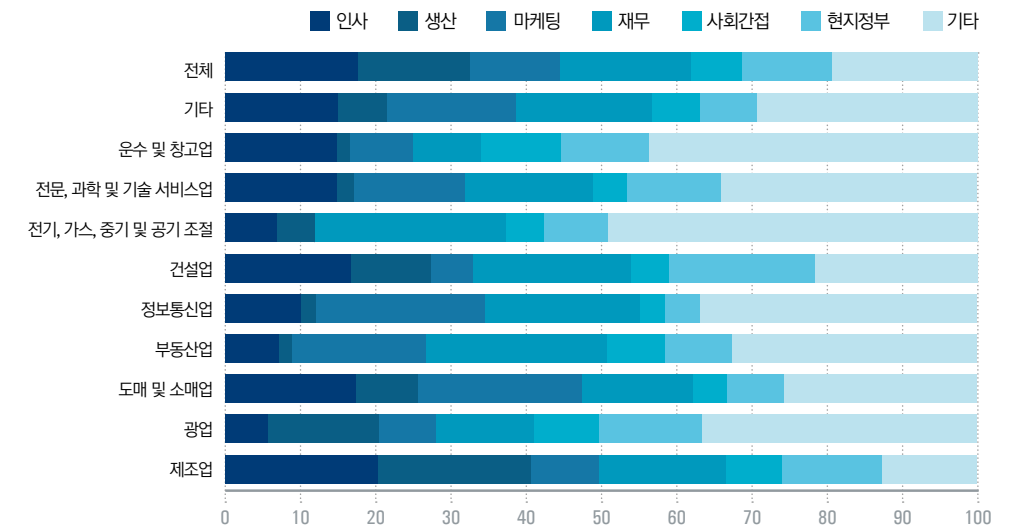
제조업의 경우, 임금상승, 잦은 생산직 이직 등 인사(20.3%) 및 생산(20.4%)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업 및 전기가스업의 경우, 재무관련 애로사항이 각각 24.1% 및 25.4%로 가장 많았음.

표 Ⅲ-4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제조업	20.3	20.4	9.0	16.9	7.5	13.2	12.7	4,740
광업	5.6	14.9	7.5	13.0	8.7	13.7	36.6	161
도소매업	17.3	8.3	21.9	14.7	4.5	7.7	25.6	762
부동산업	7.1	1.7	17.9	24.1	7.6	9.0	32.6	577
정보통신업	10.0	2.1	22.4	20.7	3.3	4.6	36.9	241
건설업	16.7	10.6	5.6	21.1	5.0	19.4	21.7	180
전기가스업	6.8	5.1	0.0	25.4	5.1	8.5	49.2	59
전문과학기술업	14.8	2.3	14.8	17.0	4.5	12.5	34.1	176
운수창고업	14.9	1.7	8.3	9.1	10.7	11.6	43.8	121
기타	15.0	6.5	17.1	18.1	6.5	7.5	29.4	480
전체	17.6	15.0	11.9	17.4	6.9	11.7	19.4	7,497

그림 Ⅲ-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전 지역에서 재무와 관련된 애로사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도 아시아는 생산인력 관리 등 인사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북미는 도소매업의 마케팅 관련 애로사항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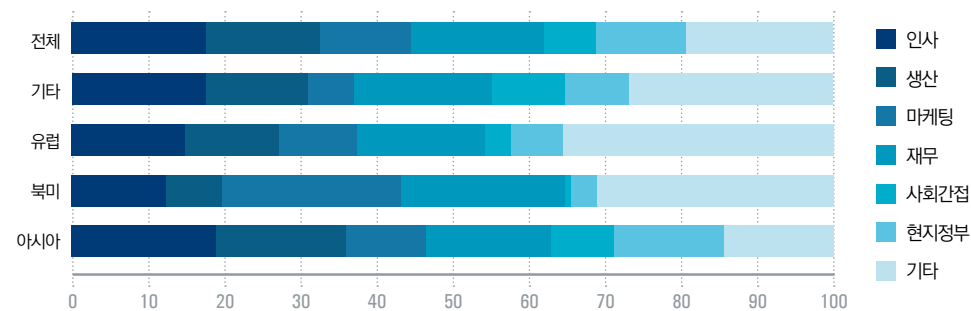
13) 운영상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5,072개사)보다 많음.

표 Ⅲ-5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아시아	18.9	17.1	10.4	16.5	8.2	14.4	14.4	5,200
북미	12.4	7.3	23.5	21.5	0.9	3.4	31.0	1,059
유럽	14.9	12.3	10.2	16.9	3.3	6.9	35.5	569
기타	17.6	13.5	6.0	18.1	9.6	8.5	26.8	669
전체	17.6	15.0	11.9	17.4	6.9	11.7	19.4	7,497

그림 Ⅲ-7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비중



마.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¹⁴⁾

분석대상 현지법인이 소재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노동, 금융 순으로 전년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Ⅲ-8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단위: %)



표 Ⅲ-6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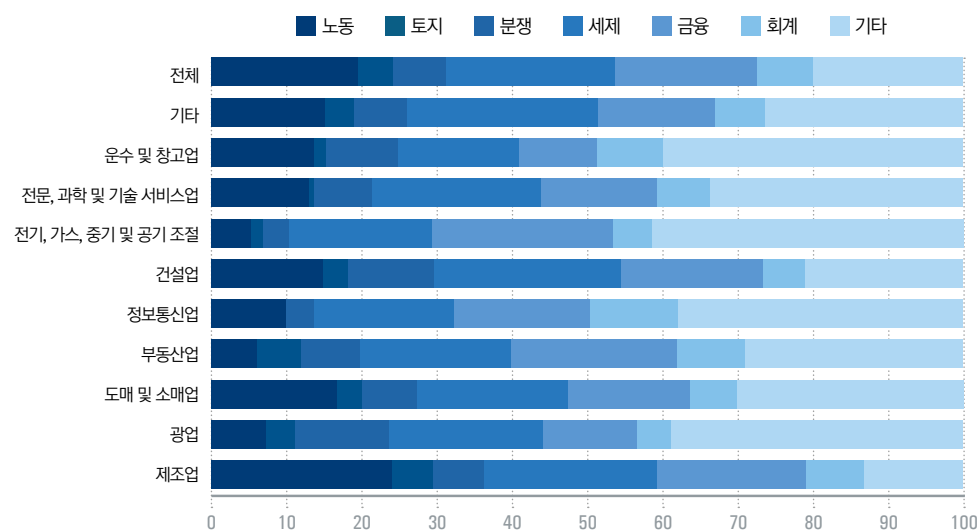
(단위: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제조업	24.0	5.4	6.8	23.1	19.8	7.6	13.3	4,405
광업	7.2	3.9	12.5	20.4	12.5	4.6	38.8	152
도소매업	16.7	3.2	7.4	20.1	16.2	6.3	30.1	730
부동산업	6.0	5.9	7.9	20.1	22.1	9.0	29.1	598
정보통신업	9.9	0.0	3.7	18.6	18.2	11.6	38.0	242
건설업	14.8	3.4	11.4	25.0	18.8	5.7	21.0	176
전기가스업	5.2	1.7	3.4	19.0	24.1	5.2	41.4	58
전문과학기술업	13.0	0.6	7.7	22.5	15.4	7.1	33.7	169
운수창고업	13.6	1.6	9.6	16.0	10.4	8.8	40.0	125
기타	15.1	3.8	7.1	25.5	15.5	6.7	26.4	451
전체	19.5	4.6	7.1	22.4	18.9	7.5	19.9	7,106

제조업은 노동 및 세제 관련 개선 요구 응답이 많았으며, 광업 및 건설업은 세제와 금융 관련 개선 요구 의견이 있었음.

14)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수가 분석대상(5,072개사)보다 많음.

그림 Ⅲ-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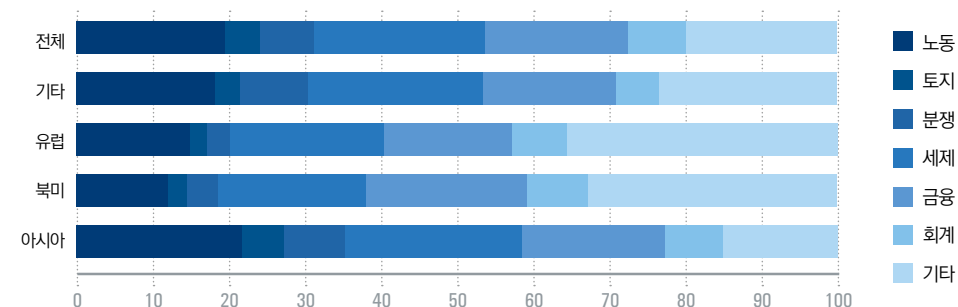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세제 및 노동 관련 개선 요구가 많았으며, 북미 및 유럽은 세제 및 금융 관련 개선 요구가 많게 나타남.

표 Ⅲ-7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아시아	21.8	5.5	8.0	23.2	18.8	7.7	15.0	4,902
북미	12.0	2.5	4.2	19.4	21.1	8.0	32.8	1,019
유럽	14.9	2.3	2.9	20.3	16.8	7.3	35.5	558
기타	18.2	3.3	8.9	23.0	17.4	5.7	23.4	627
전체	19.5	4.6	7.1	22.4	18.9	7.5	19.9	7,106

그림 Ⅲ-1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비중



바. 향후 투자 계획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74.1%가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현상유지'라고 답했으며,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라고 대답한 비율은 총 88.3%를 차지함

그림 Ⅲ-11 현지법인 향후 투자 계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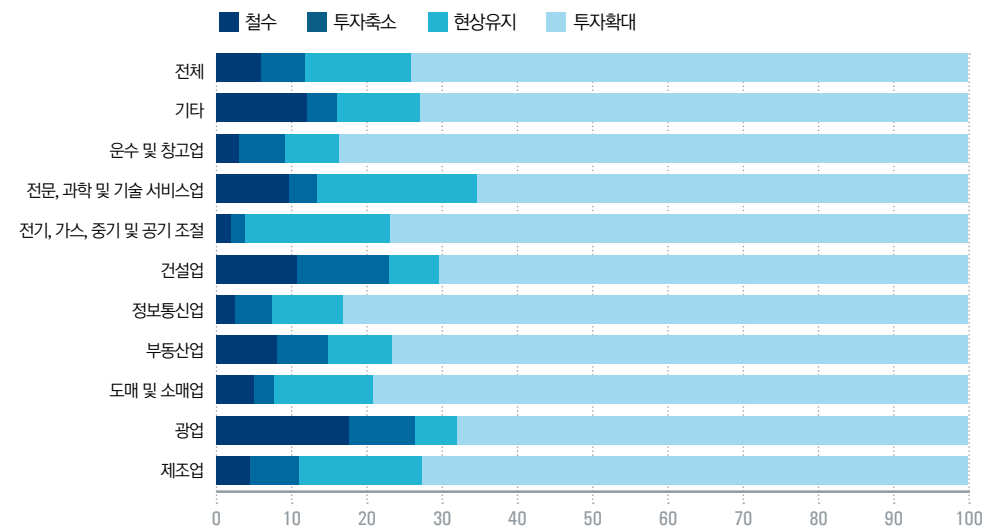
업종별로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가스업(96.2%), 정보통신업(92.6%), 도매·소매업(92.4%) 순이었으며, 광업 및 건설업의 경우 '투자축소 또는 철수'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4%, 2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Ⅲ-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현황

(단위: %, 개)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제조업	4.5	6.4	16.5	72.6	2,931
광업	17.6	8.8	5.6	68.0	125
도소매업	5.0	2.6	13.2	79.2	576
부동산업	8.0	6.8	8.5	76.7	473
정보통신업	2.5	4.9	9.4	83.3	203
건설업	10.7	12.3	6.6	70.5	122
전기가스업	1.9	1.9	19.2	76.9	52
전문과학기술업	9.6	3.7	21.3	65.4	136
운수창고업	3.0	6.1	7.1	83.8	99
기타	12.1	3.9	11.0	73.0	355
전체	5.9	5.8	14.2	74.1	5,072

그림Ⅲ-12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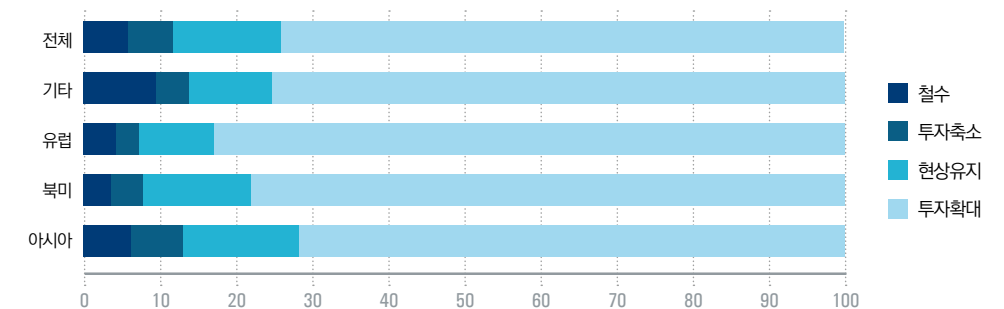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현상유지 또는 투자확대'로 응답한 비중은 유럽(92.7%), 북미(92.2%), 아시아(87.0%), 순으로 높았으며, '철수 또는 투자축소' 응답 비중은 아시아(13.0%), 북미(7.8%) 순으로 높았음.

표Ⅲ-9 지역별 투자 계획

(단위: %, 개)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아시아	6.2	6.9	15.2	71.7	3,312
북미	3.6	4.2	14.2	78.0	858
유럽	4.3	3.0	9.8	83.0	440
기타	9.5	4.3	11.0	75.1	462
전체	5.9	5.8	14.2	74.1	5,072

그림Ⅲ-13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비중





제 2 부

주제별 심층 분석

100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36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68	VI. 시사점

IV. 5년 시계열 현지법인 경영분석

1. 분석목적

제IV장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집된 현지법인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전체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현지법인들의 경영실적과 매출입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분석범위

분석대상기업은 2014 회계연도부터 2018 회계연도까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선정¹⁵⁾

- 지난 5년간 연속하여 제출된 보고서 기준이 아니라 각 연도마다 제출된 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년 4,268개사, 2015년 4,637개사, 2016년 4,787개사, 2017년 4,983개사, 2018년 5,072개사의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음.
- 2019년부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투자잔액 100만 달러 이상에서 2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4년부터의 과거 자료 또한 투자잔액 200만 달러 이상으로 수정하여, 분석대상의 법인수와 투자잔액이 변경되었음.

연도별 분석대상 법인수 및 분석대상법인 투자잔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V-1 분석대상 법인수 현황

(단위: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종별	4,286	4,637	4,787	4,983	5,072
제조업	2,555	2,741	2,833	3,015	2,931
광업	177	170	165	147	125
도소매업	516	556	586	556	576
부동산업	152	187	219	259	473
정보통신업	145	168	175	207	203
건설업	118	117	123	113	122
전기가스업	63	66	72	86	52
전문과학기술업	93	105	116	128	136
운수창고업	111	108	107	113	99
기타	356	419	391	359	355
지역별	4,286	4,637	4,787	4,983	5,072
아시아	2,929	3,085	3,190	3,333	3,312
북미	597	676	696	745	858
유럽	372	402	403	439	440
기타	388	474	498	466	462
투자자규모별	4,286	4,637	4,787	4,983	5,072
대기업	2,373	2,501	2,590	2,631	2,506
중소기업	1,643	1,784	1,878	2,033	2,139
기타	270	352	319	319	427

15) 각 연도마다 제출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도별 분석대상 기업수도 상이함

표Ⅳ-2 분석대상 법인 투자잔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업종별	145,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제조업	65,864	71,022	76,101	78,254	76,704
광업	33,603	36,743	39,759	37,413	30,228
도소매업	21,192	23,802	28,611	34,361	30,771
부동산업	4,426	7,637	10,779	11,679	12,015
정보통신업	2,417	2,974	3,385	6,069	5,874
건설업	3,319	4,183	5,386	5,307	6,477
전기가스업	4,207	4,333	4,469	4,839	2,926
전문과학기술업	3,583	2,265	2,703	4,290	13,178
운수창고업	2,303	2,609	2,631	2,759	2,717
기타	7,588	10,803	8,795	7,217	6,173
지역별	145,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아시아	67,144	72,631	77,684	78,663	73,596
북미	34,674	39,895	47,124	51,623	59,179
유럽	22,907	24,125	24,518	28,919	26,301
기타	23,776	29,721	33,292	32,983	27,987
투자자규모별	145,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대기업	129,490	143,677	158,604	166,194	151,944
중소기업	13,393	15,007	18,218	20,499	30,252
기타	5,618	7,688	5,796	5,495	4,867

3.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가. 경영성과

(1) 매출액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124백만 달러를 시현하였으며, 2017년의 증가세 반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한편, 연도별 최대매출액 및 매출액 표준편차 추이 등을 볼 때,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14~'16년 3년 연속 현지법인의 매출실적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17년 반등하였으나, '18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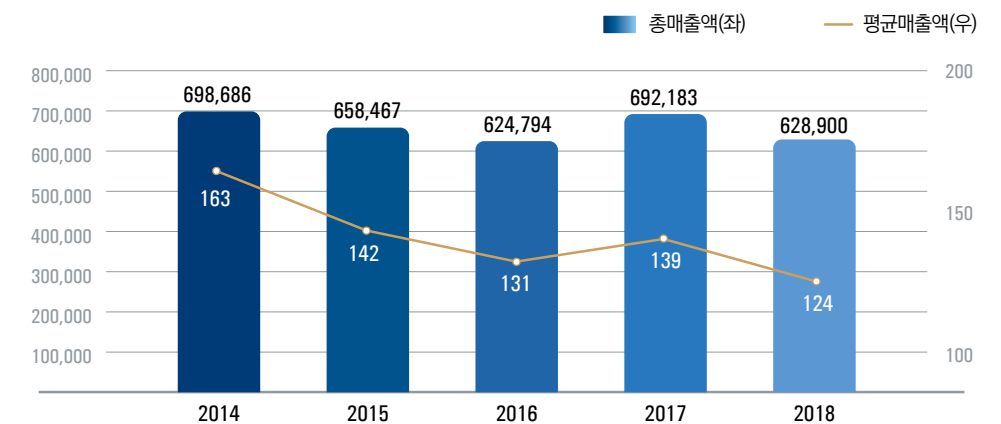
표Ⅳ-3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평균	163	142	131	139	124
표준 편차	986	920	863	909	833
최대값	29,982	31,615	29,764	29,507	28,286

그림Ⅳ-1 매출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매출액)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합한 매출비중은 90~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도소매업 및 전기가스업 매출비중이 하락함

■ 제조업은 '14년 매출비중 52.4%에서 '18년 52.5%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업종별 매출비중은 커다란 변동이 없음.

■ '14년 대비 '18년 전체 매출액은 △10.0% 하락하였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9.8%, △10.1% 하락하였음.

표Ⅳ-4 업종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66,372	335,437	323,734	355,047	330,419
광업	17,777	13,335	10,019	14,744	17,918
도소매업	267,776	268,187	258,048	282,538	240,637
부동산업	754	1,062	1,083	1,886	1,296
정보통신업	4,434	4,697	4,985	7,302	8,439
건설업	6,839	6,783	4,953	3,275	4,358
전기가스업	10,154	5,148	1,565	9,370	1,993
전문과학기술업	3,022	2,996	2,789	3,252	3,474
운수창고업	5,446	6,355	6,861	4,614	7,099
기타	16,112	14,468	10,755	10,155	13,269
전체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표Ⅳ-5 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6.2	△8.4	△3.5	9.7	△6.9
광업	△15.9	△25.0	△24.9	47.2	21.5
도소매업	△0.8	0.2	△3.8	9.5	△14.8
부동산업	△16.7	40.8	2.0	74.1	△31.3
정보통신업	28.2	5.9	6.1	46.5	15.6
건설업	9.7	△0.8	△27.0	△33.9	33.0
전기가스업	136.9	△49.3	△69.6	498.6	△78.7
전문과학기술업	12.1	△0.9	△6.9	16.6	6.8
운수창고업	3.5	16.7	8.0	△32.7	53.8
기타	31.4	△10.2	△25.7	△5.6	30.7
전체	△2.5	△5.8	△5.1	10.8	△9.1

지역별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매출비중이 55%를 전후로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매출비중이 '14년 19.0%에서 '16년 23.5%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8년에는 18.3%로 2년 연속 하락하였음

■ 한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매출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5년 연속 매출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매출비중은 55.8%로 전년(54.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매출증가율) 지역별 매출증가율은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매출액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북미지역의 '18년도 매출감소율이 △23.6%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Ⅳ-6 지역별 매출액 현황¹⁶⁾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401,380	355,931	335,389	374,652	350,753
북미	132,638	151,957	146,984	150,666	115,139
유럽	112,063	104,326	98,230	112,482	107,808
기타	52,605	46,253	44,192	54,383	55,201
전체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표Ⅳ-7 지역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2.8	△11.3	△5.8	11.7	△6.4
북미	5.1	14.6	△3.3	2.5	△23.6
유럽	△7.5	△6.9	△5.8	14.5	△4.2
기타	△6.4	△12.1	△4.5	23.1	1.5
전체	△2.5	△5.8	△5.1	10.8	△9.1

(평균매출액)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4.3%), 도소매업(△17.8%), 부동산업(△62.4%) 등 주요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전체 현지법인의 평균매출액 또한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에서 '17년에는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하였으나, '18년에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광업과 전기통신업은 2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세를 나타냄.

■ 한편, 도소매업의 평균매출액 규모(4.2억 달러)가 가장 컸으며, 광업(1.4억 달러)과 제조업 (1.1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표Ⅳ-8 업종별 평균 매출액 현황¹⁷⁾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43	122	114	118	113
광업	100	78	61	100	143
도소매업	519	482	440	508	418
부동산업	5	6	5	7	3
정보통신업	31	28	28	35	42
건설업	58	58	40	29	36
전기가스업	161	78	22	109	38
전문과학기술업	32	29	24	25	26
운수창고업	49	59	64	41	72
기타	45	35	28	28	37
전체	163	142	131	139	124

16) 기타 지역은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17) 기타에는 임대업, 수도, 하수 원료 재생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숙박음식업, 협회단체수리업 등이 포함됨.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북미 및 유럽의 2018년 평균 매출액이 아시아 대비 각각 1.3배 및 2.3배 수준을 보였으며, 기타(중남미, 중동,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한편,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18.9%), 말레이시아(17.5%), 베트남(12.2%) 등의 평균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14.4%), 홍콩(△29.8%), 인도(△40.2%) 등의 영향으로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음.

표Ⅳ-9 지역별 평균 매출액 현황¹⁸⁾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37	115	105	112	106
북미	222	225	211	202	134
유럽	301	260	244	256	245
기타	136	98	89	117	119
전체	163	142	131	139	124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매출액은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평균매출액은 △9.1% 감소하였음. 특히 대기업은 2017년 5년만에 평균매출액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다시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대기업은 도소매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평균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은 도소매업의 평균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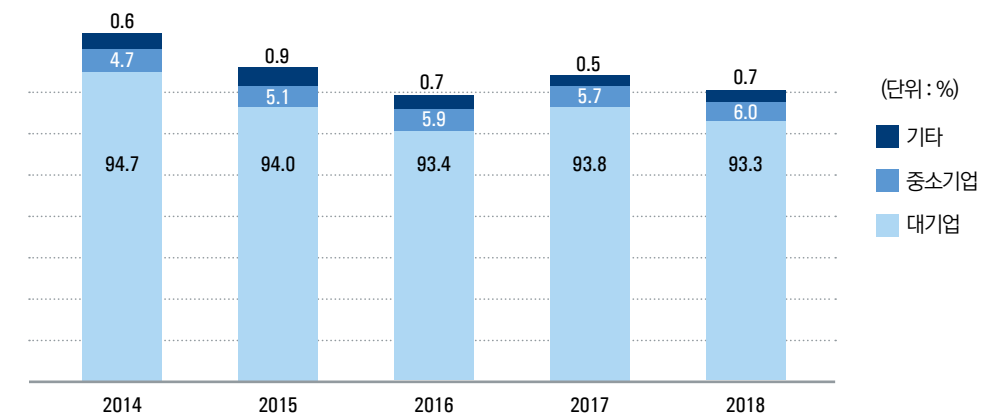
표Ⅳ-1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279	247	225	247	234
중소기업	20	19	20	19	18
기타	15	17	13	10	10
전체	163	142	131	139	124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2014년 94.7%에서 2018년 9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5년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Ⅳ-2 투자자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 추이



(2) 영업이익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13~16 4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한 4.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한 3.9백만 달러를 시현함

영업이익률은 2015년 2.4%까지 하락하였으나, '16~'18년 3년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2017년 3.0%, 2018년 3.1%를 기록함.

한편, 기업간 영업이익 표준편차가 2011년 56백만 달러에서 2014년 83백만 달러로 확대되며 기업간 실적차이가 점차 심화되었고, 16년에는 39백만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17년 47백만 달러, 2018년 40백만 달러로 상승하였음.

18) 기타 지역은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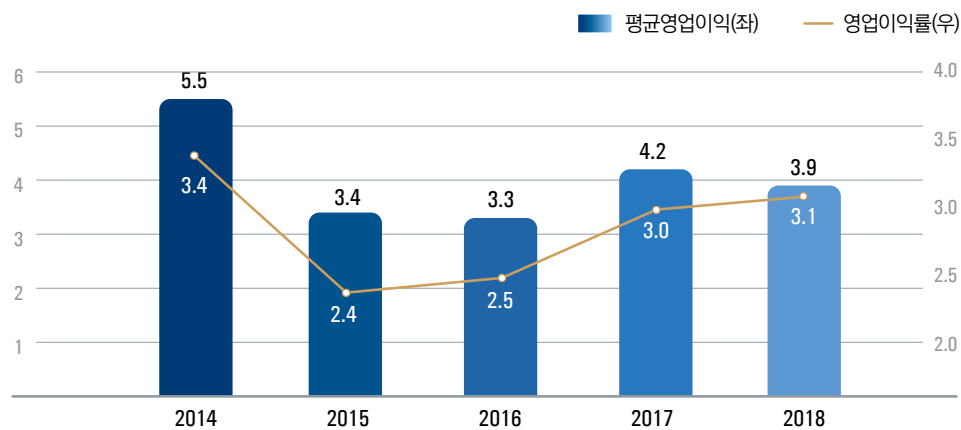
표Ⅳ-11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3,432	15,578	15,605	21,082	19,569
평균	5.5	3.4	3.3	4.2	3.9
영업이익률	3.4	2.4	2.5	3.0	3.1
표준 편차	83	46	39	47	40
최소값	△1,095	△993	△524	△627	△269
최대값	3,024	1,620	1,464	1,439	1,007

그림Ⅳ-3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평균 영업이익) 업종별로 살펴보면, '14~'16년 3년간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등 주요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7~'18년 광업 영업이익이 크게 반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등의 부진으로 평균 영업이익은 하락함

- 제조업은 평균 영업이익이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여 '18년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3.8백만 달러를 시현함.
- 한편, 광업은 평균 영업이익이 2011년 35백만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2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5~16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영업실적 호조로 2017~2018년 2년 연속 크게 증가함.

표Ⅳ-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6,076	4,607	4,530	4,598	3,827
광업	5,666	△ 7,690	△ 1,648	24,080	38,776
도소매업	5,402	5,181	3,515	1,857	4,543
부동산업	1,164	1,722	1,538	1,909	533
정보통신업	1,103	△ 692	△ 940	△ 109	△ 2,155
건설업	△ 10,034	△ 4,116	△ 844	1,151	4,120
전기가스업	63,481	13,347	4,902	18,204	6,498
전문과학기술업	873	△ 95	△ 934	△ 1,429	△ 2,619
운수창고업	2,667	5,279	4,508	4,372	4,429
기타	1,654	503	484	468	428
전체	5,467	3,360	3,260	4,231	3,858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까지는 4%대를, 2015년 이후 3~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업은 '15~'16 2년 영업손실 이후 '17~'18 연속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음

■ 주요 업종 중 광업과 부동산업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27.1%, 19.4%로 2년 연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과학기술업은 2016년 △5.6%, 2017년 △10.3%로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함.

표 IV-13 업종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4.2	3.8	4.0	3.9	3.4
광업	5.6	△9.8	△2.7	24.0	27.1
도소매업	1.0	1.1	0.8	0.4	1.1
부동산업	23.5	30.3	31.1	26.2	19.4
정보통신업	3.6	△2.5	△3.3	△0.3	△5.2
건설업	△17.3	△7.1	△2.1	4.0	11.5
전기가스업	39.4	17.1	22.5	16.7	17.0
전문과학기술업	2.7	△0.3	△3.9	△5.6	△10.3
운수창고업	5.4	9.0	7.0	10.7	6.2
기타	3.7	1.5	1.8	1.7	1.1
전체	3.4	2.4	2.5	3.0	3.1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영업이익의 규모는 유럽, 기타지역, 아시아, 북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와 카타르, UAE 등 중동지역의 평균 영업실적이 개선되었으나, 기업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평균 이익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평균 이익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함

■ 북미의 평균 영업이익이 '14년 7.8백만 달러에서 '18년 2.0백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자동차 도소매업 및 전문과학기술업 등의 현지법인의 실적악화에 기인함. 유럽의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현지법인 실적개선에 전년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함.

■ 지역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최근 5년간 3%대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는 최근 3년간 광업과 도소매업의 실적악화로 영업이익률이 하락세이나 '18년에는 도소매업의 실적이 일부 회복세를 나타냄. 한편, 유럽은 2016~18년 3년 연속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음.

표 IV-14 지역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영업 이익	아시아	4,917	4,397	3,951	4,228	3,343
	북미	7,763	2,383	1,502	524	2,021
	유럽	5,334	4,214	6,022	7,483	7,281
	기타	6,217	△ 2,723	△ 943	7,113	7,706
	전체	5,467	3,360	3,260	4,231	3,858
영업 이익 률	아시아	3.6	3.8	3.8	3.8	3.2
	북미	3.5	1.1	0.7	0.3	1.5
	유럽	1.8	1.6	2.5	2.9	3.0
	기타	4.6	△2.8	△1.1	6.1	6.4
	전체	3.4	2.4	2.5	3.0	3.1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2017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 2014~2015년 큰 폭의 하락 이후 2016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18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평균 영업이익을 시현함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2014년 1.6%p에서, 2016년에는 0.5%p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악화되면서 2018년에는 2.9%p 차이가 다시 벌어짐.

2018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부동산업(24.7%), 제조업(1.1%) 등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업(△77.8%), 전기가스업(△41.2%), 광업(△27.9%)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18년 영업이익률 0.4%로 전년대비 1.4%p 하락하였음.

표Ⅳ-15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영업 이익	대기업	9,486	5,990	5,636	7,718	7,646
	중소기업	355	183	392	357	65
	기타	1,257	766	849	160	631
	전체	5,467	3,360	3,260	4,231	3,858
영업 이익 률	대기업	3.4	2.4	2.5	3.1	3.3
	중소기업	1.8	1.0	2.0	1.8	0.4
	기타	8.7	4.5	6.6	1.5	6.4
	전체	3.4	2.4	2.5	3.0	3.1

(3)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15년에는 광업의 대규모 순손실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년간 증가세에서 '18년에는 전기가스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의 손실확대로 감소세를 나타냄

2018년 영업이익률(3.1%)은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당기순이익률은 1.1%로 전년(1.8%)대비 0.7%p 하락함.

한편, 당기순이익 표준편차가 2015년 85백만 달러에서 2018년 47백만 달러로 수익성 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기업간 수익성 편차가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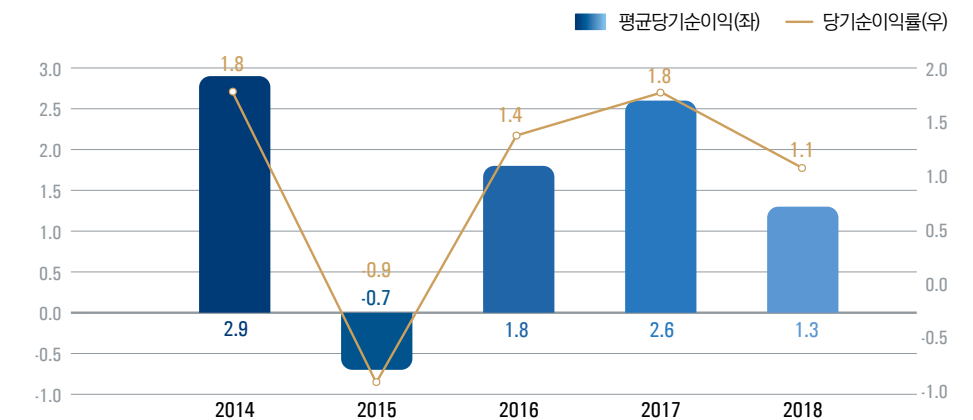
표Ⅳ-16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2,620	△4,384	8,555	12,774	6,763
평균	2.9	△0.9	1.8	2.6	1.3
당기순이익률	1.8	△0.7	1.4	1.8	1.1
표준 편차	64	85	43	51	47
최소값	△837	△3,760	△544	△1,234	△1,382
최대값	1,906	1,350	1,187	1,296	1,355

그림Ⅳ-4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업의 손실 전환(△47백만 달러)의 영향으로 전년(3.6백만 달러) 대비 47.5% 감소한 1.9백만 달러를 실현하였고,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의 손실 확대, 전기가스업의 적자 전환 등으로 평균 당기순이익(1.3백만 달러)이 전년(2.6백만 달러)대비 48.0% 감소하였음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도소매업은 2014년 3.8백만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7년까지 2.9백만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는 자동차 도소매업 및 백화점업의 실적 악화에 불구하고 가전제품 도매업 및 액체연료 도매업 등의 호조로 평균 당기순이익은 4.4백만 달러로 상승하였음. 한편, 광업과 건설업은 2012년 이후 6년만에 '18년 흑자로 전환하여 각각 0.6백만달러, 2.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Ⅳ-17 업종별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4,416	1,768	3,561	3,628	1,904
광업	△ 7,942	△ 63,284	△ 19,792	△ 4,725	631
도소매업	3,789	3,427	3,146	2,936	4,386
부동산업	△ 286	1,129	599	822	△ 948
정보통신업	△ 385	△ 2,599	△ 1,263	△ 1,441	△ 3,110
건설업	△ 13,617	△ 7,722	△ 4,174	△ 936	2,733
전기가스업	40,390	9,579	3,751	12,567	△ 3,522
전문과학기술업	△ 1,376	922	1,356	△ 1,388	△ 3,318
운수창고업	△ 83	2,499	1,790	2,175	1,574
기타	240	△ 590	△ 322	△ 163	△ 559
전체	2,945	△ 945	1,787	2,564	1,333

업종별 당기순이익률을 살펴보면, 광업과 건설업은 5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부동산업, 전기가스업은 적자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한편, 전기가스업의 경우에는 '17년 중국 가스 관련 사업의 1회성 당기순이익 실현의 기저효과 및 터키 화력발전사업의 대규모 손실 실현 등으로 전년(11.5%) 대비 '18년 당기순손실률이 △9.2%로 실적이 크게 하락함.

표Ⅳ-18 업종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1%	1.4%	3.1%	3.1%	1.7%
광업	△7.9%	△80.7%	△32.6%	△4.7%	0.4%
도소매업	0.7%	0.7%	0.7%	0.6%	1.0%
부동산업	△5.8%	19.9%	12.1%	11.3%	△34.6%
정보통신업	△1.3%	△9.3%	△4.4%	△4.1%	△7.5%
건설업	△23.5%	△13.3%	△10.4%	△3.2%	7.7%
전기가스업	25.1%	12.3%	17.3%	11.5%	△9.2%
전문과학기술업	△4.2%	3.2%	5.6%	△5.5%	△13.0%
운수창고업	△0.2%	4.2%	2.8%	5.3%	2.2%
기타	0.5%	△1.7%	△1.2%	△0.6%	△1.5%
전체	1.8%	△0.7%	1.4%	1.8%	1.1%

지역별로는, 2018년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주요지역의 평균 평균 당기순이익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
기타지역은 중남미를 제외한 대양주,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1.1백만 달러) 대비 0.2백만달러로 흑자 전환하였음

■ 한편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아시아(1.9%)와 유럽 지역(1.4%)은 전년대비 각각 △1.0%p,
△0.9%p로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으며, 북미(△1.5%) 또한 전년(△0.2%) 대비 △1.3%p
하락하였음.

■ 기타지역의 경우 호주 전기가스업, 나이지리아 운송장비 제조업, 브라질 전자업종 등의 수익성
개선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률은 전년 △1.0%에서 0.1%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표Ⅳ-19 지역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영업 이익	아시아	3,925	2,024	3,002	3,294	2,065
	북미	2,758	△ 9,227	△ 289	△ 432	△ 1,953
	유럽	△ 206	2,348	4,724	6,011	3,475
	기타	△ 1,148	△ 11,255	△ 5,469	△ 1,117	154
	전체	2,945	△ 945	1,787	2,564	1,333
영업 이익 률	아시아	2.9	1.8	2.9	2.9	1.9
	북미	1.2	△4.1	△0.1	△0.2	△1.5
	유럽	△0.1	0.9	1.9	2.3	1.4
	기타	△0.8	△11.5	△6.2	△1.0	0.1
	전체	1.8	△0.7	1.4	1.8	1.1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5년에는 △1.4백만 달러로 적자전환하였으나, 2016년 흑자전환하여
2018년에는 3.1백만 달러를 시현하였으며, 중소기업도 2016년부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대부분의 기간 중 대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나, 2016년에는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률(3.2%)이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대기업(1.3%)보다 높았고, 2018
년에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률이 △2.7%로 크게 하락하였음.

표Ⅳ-20 투자자 기업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천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영업 이익	대기업	5,336	△ 1,378	2,930	4,824	3,058
	중소기업	△ 75	△ 387	628	106	△ 481
	기타	306	△ 703	△ 665	△ 411	303
	전체	2,945	△ 945	1,787	2,564	1,333
영업 이익 률	대기업	1.9	△0.6	1.3	2.0	1.3
	중소기업	△0.4	△2.1	3.2	0.5	△2.7
	기타	2.1	△4.1	△5.2	△4.0	3.1
	전체	1.8	△0.7	1.4	1.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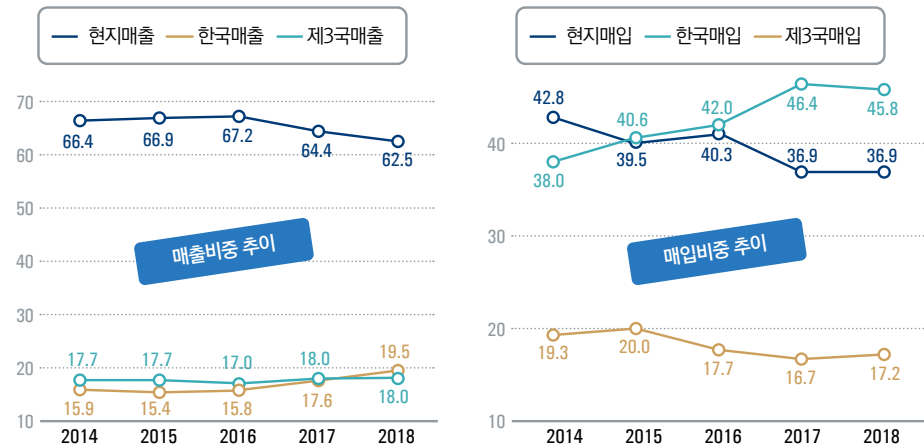
나. 매출입 현황

(1) 매출입 현황 개괄

2018년 현지매출 비중이 62.5%를 차지,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수출 19.5%, 제3국수출 18.0% 대비 진출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중심의 영업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매입의 경우에는 현지매입(36.9%)과 한국수입(45.8%)로 2015년 이후 현지매입 보다 한국매입 비중이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현지화 및 현지국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V-5 매출입구조

(단위: %)



(2) 업종별 매출입 현황

(매출현황) 제조업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현지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부터 2년 연속 중국 자동차업의 현지매출 하락과 전자제품의 한국수출 증가 등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50%대로 하락함
주로 1차금속, 화학, 자동차 및 식료품의 현지매출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가 큰 도소매업 또한 중국의 현지매출 비중이 '18년 83.7%로 전년 89.0% 대비 5.3%p 하락하는 등, 현지매출 비중이 하락하면서 한국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업종 현지매출 비중은 62.5%를 시현함.

표 IV-21 주요 업종별 매출비중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현지매출	62.0	60.1	60.9	56.7	56.3
	한국수출	22.9	23.8	23.9	26.5	26.4
	제3국수출	15.1	16.0	15.2	16.8	17.3
광업	현지매출	81.4	67.8	70.5	74.3	76.4
	한국수출	5.9	15.6	17.9	13.0	13.3
	제3국수출	12.7	16.7	11.6	12.7	10.3
도소매업	현지매출	70.3	73.2	73.5	70.8	67.4
	한국수출	7.9	6.2	6.8	8.2	12.3
	제3국수출	21.8	20.6	19.7	21.1	20.3

(매입현황)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지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입 비중이 5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제품(13.4%), 고무제품(11.1%), 음료(24.7%)부문의 현지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축소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현지매입 비중은 45.2%로 전년대비 1.4%p 하락하였음.

표 IV-22 주요 업종별 매입비중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현지매입	51.1	47.1	51.1	46.6	45.2
	한국수입	32.4	34.3	33.5	38.5	40.4
	제3국수입	16.5	18.6	15.4	14.9	14.4
광업	현지매입	92.0	90.7	91.1	90.1	88.1
	한국수입	6.8	8.3	8.7	9.5	11.6
	제3국수입	1.2	1.0	0.2	0.4	0.3
도소매업	현지매입	29.1	28.1	25.0	21.7	23.5
	한국수입	47.5	49.3	53.6	58.1	54.3
	제3국수입	23.4	22.6	21.4	20.2	22.2

(3) 지역별 매출입 현황

(매출현황) 아시아는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대비 가장 낮고 한국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아시아 제조업 중 전자부품 부문과 의복의 한국매출 비중은 각각 64.6%, 72.5%에 달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한국 모기업의 생산기지 및 임가공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북미의 현지매출 비중이 타 지역대비 가장 높고, 한국수출 비중이 낮은 것은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Ⅳ-23 지역별 매출비중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현지매출	59.5	58.4	58.6	55.1	52.2
	한국수출	25.6	26.3	27.4	30.2	32.2
	제3국수출	14.9	15.3	14.0	14.7	15.5
	합계	99.9	99.9	99.9	99.9	99.9
북미	현지매출	84.2	87.5	88.5	85.0	81.4
	한국수출	2.3	1.8	1.5	1.7	2.9
	제3국수출	13.5	10.7	10.0	13.3	15.7
	합계	99.9	99.9	99.9	99.9	99.9
유럽	현지매출	63.5	59.4	79.6	61.3	76.3
	한국수출	2.3	2.6	5.0	2.9	5.2
	제3국수출	34.2	38.0	15.4	35.8	18.5
	합계	99.9	99.9	99.9	99.9	99.9
기타	현지매출	81.1	81.7	79.6	77.9	76.3
	한국수출	4.8	5.1	5.0	5.4	5.2
	제3국수출	14.1	13.2	15.4	16.7	18.5
	합계	99.9	99.9	99.9	99.9	99.9

(매입현황) 북미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아 전통적으로 한국수입 비중이 현지매입 비중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북미의 한국수입 비중은 2012년(44.3%)부터 6년 연속으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에는 67.1%로 하락세로 전환함

아시아는 한국 및 제3국수입 비중에 비해 현지매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18년에는 한국수입이 42.6%로 현지매입 비중을 상회하였음. 중국은 현지매입 비중이 57.0%로 현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으나, 베트남(57.8%), 대만(76.5%) 등은 한국에서의 수입비중이 높아 현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Ⅳ-24 지역별 매입비중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현지매입	49.6	45.9	48.4	44.1	41.5
	한국수입	34.4	37.4	36.3	41.1	42.6
	제3국수입	16.0	16.7	15.3	14.8	15.9
북미	현지매입	41.6	36.4	31.3	26.8	27.8
	한국수입	50.2	54.8	60.8	68.0	67.1
	제3국수입	8.2	8.8	7.9	5.2	5.1
유럽	현지매입	28.1	28.9	29.2	30.6	34.1
	한국수입	33.5	30.8	32.1	33.6	34.1
	제3국수입	38.4	40.3	38.7	35.8	31.8
기타	현지매입	24.9	26.6	35.6	28.9	32.1
	한국수입	43.5	39.4	44.0	49.5	45.9
	제3국수입	31.6	34.0	20.4	21.6	22.0

(4) 수출입효과

2018 투자잔액 증가율은 △2.7%로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투자잔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업 및 도소매업에서 각각 투자잔액이 71.9억 달러, 35.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순수출액 감소율은 2018년 △19.2%로 2012년 이후 6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 감소와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효과 또한 2017년 71.9%에서 2018년 59.7%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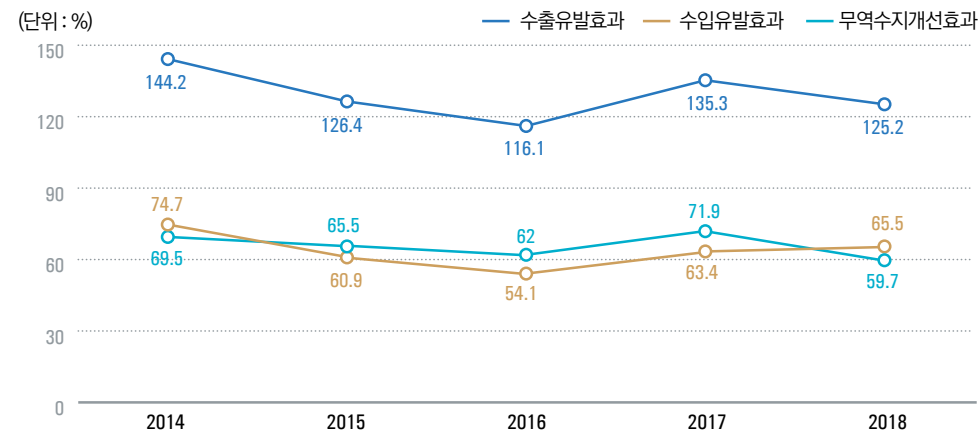
표 IV-25 수출입효과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잔액	148,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수출액	214,089	210,366	212,034	260,002	234,248
수입액	110,861	101,367	98,883	121,895	122,599
순수출	103,228	108,999	113,151	138,107	111,649
수출유발효과	144.2	126.4	116.1	135.3	125.2
수입유발효과	74.7	60.9	54.1	63.4	65.5
무역수지개선효과	69.5	65.5	62.0	71.9	59.7

그림 IV-6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단위: %)



다. 재무현황

(1) 재무현황 개괄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제반 재무지표는 2014년부터 현지법인의 수익성 부진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개선되었음
하지만 2018년에는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모두 하락하였음

표 IV-26 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 추이

(단위: %, 배)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채비율	현지법인	163.5	166.0	166.3	152.0	128.0
	국내기업	134.5	128.4	121.2	114.1	111.1
차입금의존도	현지법인	28.1	30.9	30.4	27.0	22.8
	국내기업	32.2	31.4	29.8	28.8	28.8
유동비율	현지법인	130.3	129.0	134.9	133.8	130.5
	국내기업	129.6	130.5	131.6	134.0	138.5
이자보상배율	현지법인	4.6	2.8	2.8	4.1	3.8
	국내기업	2.8	3.6	4.4	5.4	4.7

한편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에 비해 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그림 IV-7 주요 재무지표 추이



(2) 부채비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운수창고업을 제외한 주요업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한편, 전문과학기술업은 10차 산업분류 상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면서 이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7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8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남

표 IV-27 업종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39.0	135.8	134.4	122.7	113.3
광업	105.5	118.3	123.2	122.9	127.1
도소매업	279.2	270.9	252.2	222.5	158.8
부동산업	162.2	112.7	109.9	124.9	113.3
정보통신업	116.2	143.3	79.3	84.6	105.7
건설업	△479.9	△795.2	△715.6	△622.2	1465.6
전기가스업	140.2	120.9	99.9	143.6	111.0
전문과학기술업	159.9	184.3	228.3	162.2	52.5
운수창고업	359.8	258.2	156.9	123.0	128.3
기타	122.9	184.3	303.7	365.8	211.9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중, 아시아 지역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114.8%)을 기록함. 한편, 아시아는 건설업, 부동산업의 부채감소로, 북미는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부채감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냄

표 IV-28 지역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36.1	133.1	131.6	124.7	114.8
북미	207.7	240.7	196.2	176.3	122.8
유럽	204.1	186.5	199.4	177.2	142.4
기타	189.1	191.4	261.9	226.8	197.1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각 기업규모별로는 부채비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모든 기업규모군에서 2년 연속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음

표Ⅳ-29 투자자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164.3	166.5	167.6	154.8	128.1
중소기업	160.4	167.9	142.5	118.6	137.2
기타	140.1	146.7	203.7	178.8	95.2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3) 차입금의존도

주요 업종 중 도소매업(5.9%)의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건설업(58.8%)의 경우 2017년보다는 하락하였으나 5년 연속으로 주요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제조업과 광업 및 부동산업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 지표 대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표Ⅳ-30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24.7	24.2	23.7	22.5	22.9
광업	35.2	40.4	39.6	39.3	38.9
도소매업	26.2	33.3	32.4	23.4	5.9
부동산업	46.8	43.4	41.0	41.6	41.7
정보통신업	17.3	22.8	13.6	17.7	23.3
건설업	62.6	65.3	68.1	72.9	58.8
전기가스업	44.1	41.0	42.5	44.2	45.3
전문과학기술업	5.8	5.3	4.1	4.4	12.1
운수창고업	27.1	28.2	33.0	28.5	20.0
기타	34.2	45.3	57.5	58.0	47.9
전체	28.1	30.9	30.4	27.0	22.8

지역별로는, 아시아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북미는 도소매업 및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이 감소하여 현지법인의 차입금의존도가 전년대비 하락함

표Ⅳ-31 지역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23.9	25.9	25.0	22.0	21.0
북미	36.6	40.8	36.4	34.8	21.4
유럽	19.5	19.9	21.6	16.8	17.8
기타	38.3	43.2	47.3	44.3	39.0
전체	28.1	30.9	30.4	27.0	22.8

기업규모별로 보면, '15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던 차입금의존도가 2018년에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7년까지는 대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중소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함

표Ⅳ-32 투자자 기업규모별 차입금의존도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28.0	30.8	30.3	27.0	22.4
중소기업	25.5	25.2	26.5	22.8	25.2
기타	39.2	45.0	48.6	49.3	32.5
전체	28.1	30.9	30.4	27.0	22.8

(4)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2018년 130.5%를 기록하며 7년 연속으로 안정성 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음.
 건설업은 5년만에 유동비율이 104.4%로 초과하였으며,
 전기가스업은 2015년 이후 3년만에 100% 미만을 기록하였음

표Ⅳ-33 업종별 유동비율 현황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20.5	118.8	122.9	129.1	136.3
광업	122.1	115.7	99.8	106.6	127.1
도소매업	156.6	158.0	162.0	149.8	124.0
부동산업	151.5	113.1	157.0	158.3	108.8
정보통신업	120.7	114.2	174.0	149.8	184.9
건설업	76.6	79.4	75.9	78.7	104.4
전기가스업	115.0	94.1	108.1	101.8	91.0
전문과학기술업	104.7	97.5	118.5	116.0	157.2
운수창고업	88.3	128.4	119.7	117.3	106.7
기타	152.1	110.1	110.8	103.8	111.7
전체	130.3	129.0	134.9	133.8	130.5

(이자보상배율) 2014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4.1배로 개선되었으며
 2018년 소폭 하락하여 3.8배를 기록함. 광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개선추세를
 보였으나,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3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배)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6.9	5.3	5.3	6.6	4.6
광업	0.8	영업적자	영업적자	3.3	4.8
도소매업	7.4	7.0	4.5	2.5	5.5
부동산업	1.0	1.0	1.0	1.4	0.6
정보통신업	2.6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건설업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0.6	2.4
전기가스업	14.9	5.1	1.7	5.2	1.9
전문과학기술업	1.6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영업적자
운수창고업	1.3	2.3	2.3	3.0	2.5
기타	3.3	0.8	0.6	0.5	0.8
전체	4.6	2.8	2.8	4.1	3.8

라. 투자수익

(1) 투자수익률

광업의 투자손실폭이 감소되고, 도소매업 및 건설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의 투자수익이 크게 감소(51.2억 달러)함에 따라 2018년에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5.8%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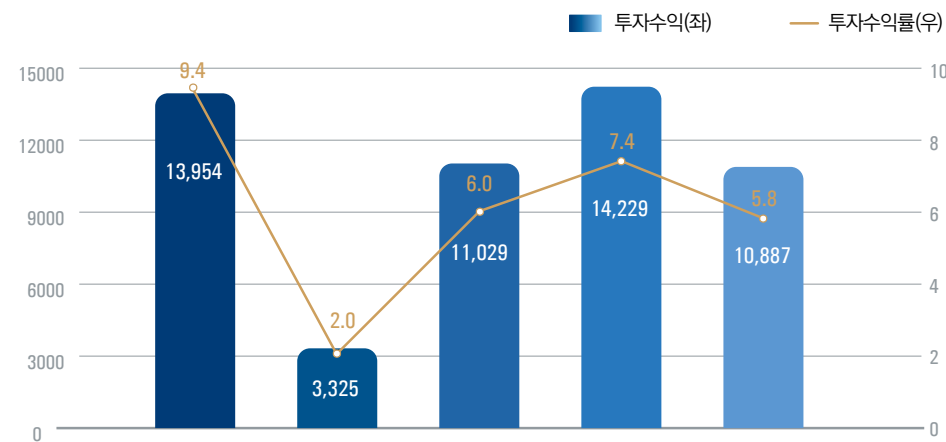
표Ⅳ-35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수익률(A/B)	9.4	2.0	6.0	7.4	5.8
투 자 수 익(A)	13,954	3,325	11,029	14,229	10,887
투자자순이익	8,384	△88	7,512	10,111	6,892
대부이자	340	415	442	388	519
로열티	5,231	2,998	3,075	3,730	3,476
투 자 잔 액(B)	148,501	166,372	182,619	192,189	187,063

그림Ⅳ-8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 투자자순이익

2018년 제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56억 달러로 2014년의 113억 달러의 50% 수준이나, 제조업의 투자자순이익은 2018년 51억 달러로 2014년 82억 달러의 62%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투자자순이익 합계는 76억 달러로 전체 투자자순이익 69억달러의 111%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순이익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2018년 제조업의 투자자순이익 규모가 전년대비 48.6%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투자자순이익은 개선되었으나, 부동산업 및 정보통신업의 투자자순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투자자 이익 감소세를 시현함.

표Ⅳ-36 업종별 투자자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8,245	3,637	8,284	9,905	5,094
광업	△881	△4,761	△2,392	△1,638	△212
도소매업	2,105	2,004	1,700	1,588	2,524
부동산업	△55	56	136	162	△414
정보통신업	35	△288	9	△49	△314
건설업	△1,433	△874	△543	△108	190
전기가스업	566	228	116	251	183
전문과학기술업	△88	△3	294	△14	△118
운수창고업	△29	127	90	86	74
기타	△81	△213	△180	△72	△116
전체	8,384	△88	7,512	10,111	6,892

(3) 로열티

로열티 수입은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부터 전기전자 제조업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2016년부터 3년간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 부문의 견조한 로열티 수입으로 30억 달러대에서 증감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비중이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조업 부문의 로열티 수입이 각각 14.3억 달러, 12.2억 달러로 전체 로열티의 76.5%를 차지하였음.

표Ⅳ-37 업종별 로열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4,823	2,801	2,866	3,483	3,190
광업	6	10	9	42	0
도소매업	328	103	104	108	67
부동산업	0	1	1	3	1
정보통신업	27	30	27	57	66
건설업	0	0	3	3	105
전기가스업	3	2	21	3	3
전문과학기술업	2	0	3	1	2
운수창고업	8	5	5	3	18
기타	33	47	37	26	24
전체	5,231	2,998	3,075	3,730	3,476

(4) 배당금

한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수익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3년간 약 40억 달러 규모의 배당금 수익액을 기록함. 2018년에는 제조업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의 배당금 증가로 39억 달러를 시현함

■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91.5% 증가하면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배당금 감소분을 보완하여 전체 배당금 수입 규모를 유지함.

표Ⅳ-38 업종별 한국투자자 앞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898	1,521	2,842	2,811	2,610
광업	345	384	182	311	260
도소매업	1,003	400	373	324	300
부동산업	19	198	221	246	471
정보통신업	6	7	8	10	12
건설업	96	128	61	46	55
전기가스업	273	127	31	157	94
전문과학기술업	5	4	16	22	24
운수창고업	31	88	111	79	57
기타	71	71	80	48	31
전체	5,748	2,928	3,924	4,053	3,916

V.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

1. 분석 목적

제조업은 2018년도 경영분석대상 5,072개사, 투자잔액 1,871억 달러 기준 투자잔액의 41.0%, 현지법인 수의 57.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도소매업의 경우 국내 모기업의 수출입 대행, 광업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성격이 강하여 투자 동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제조업과는 다르며, 투자수익 및 수출입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바, 제조업 현지법인의 세부 업종별 경영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2. 분석 범위

이하에서는 제1부의 분석 대상인 2018 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대상 5,072개사 중 제조업 현지법인 2,931개사를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세부 업종의 경우에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상품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전기전자 산업에 속해있는 현지법인이 전자부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모두 전자부품으로 집계됨.
- 또한, 현지법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최종 완제품이 속한 산업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전기장비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경우 전자부품으로 분류됨.
- 또한, 분석 대상이 투자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유, 의류 등 투자규모가 작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 등 설비 산업에 비해 대표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비교 분석

- 현지법인은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회사이므로 내부 거래, 이전 가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매출, 이익 등 현지법인 경영성과 지표는 일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

분석대상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황 및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전기전자 제조업이 투자잔액 기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20.5%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지역별로는 주요 제조업종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현지법인수와 투자잔액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 기계 제조업의 경우 유럽이 아시아보다 투자잔액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V-1 제조업 세부업종별 현지법인 현황¹⁹⁾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투자잔액		평균 투자잔액
	분석대상	비중	분석대상	비중	
전기전자	480	16.4	19,230	25.1	40
자동차	573	19.5	15,752	20.5	27
1차금속	158	5.4	8,386	10.9	53
화학	258	8.8	7,348	9.6	28
기타기계	172	5.9	4,165	5.4	24
전기장비	151	5.2	3,754	4.9	25
기타운송장비	31	1.1	2,309	3.0	74
고무/플라스틱	139	4.7	1,722	2.2	12
식료품	93	3.2	2,003	2.6	22
의복	206	7.0	1,813	2.4	9
기타	670	22.9	10,220	13.3	15
전체	2,931	100.0	76,704	100.0	26

19) 기타에는 섬유, 금속제품, 기타 제품, 신발, 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됨.

표 V-2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현지법인수 분포

(단위: 개)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08	40	21	11
자동차	379	39	88	67
1차금속	126	11	9	12
화학	216	22	12	8
기타기계	130	19	12	11
전기장비	122	13	12	4
기타운송장비	22	1	2	6
고무/플라스틱	109	7	10	13
식료품	66	13	7	7
의복	180	6	3	17
기타	527	82	31	30
전체	2,285	253	207	186

표 V-3 제조업 세부업종별 지역별 투자잔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16,022	1,885	823	500
자동차	7,294	871	5,269	2,318
1차금속	5,188	1,246	101	1,852
화학	5,337	1,678	205	128
기타기계	1,482	349	1,756	577
전기장비	2,546	753	436	20
기타운송장비	2,103	9	33	164
고무/플라스틱	1,227	52	345	98
식료품	1,383	310	114	196
의복	1,567	73	12	162
기타	6,803	1,793	937	687
전체	50,952	9,019	10,030	6,703

3. 2018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전기전자와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37.2%, 24.8%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62.0%를 차지

두 업종의 법인수 비중(35.9%)에 비하여 투자잔액 비중(62.0%)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 제조업종대비 해외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중후장대형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 의복 등 시장진입장벽 혹은 기술차별화 정도의 차이가 낮은 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식료품과 의복의 경우 투자잔액 2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 조사대상에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V-4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매출액	비 중
전기전자	122,951	37.2
자동차	81,946	24.8
1차금속	27,250	8.2
화학	19,629	5.9
기타기계	7,760	2.3
전기장비	22,529	6.8
기타운송장비	2,090	0.6
고무/플라스틱	4,318	1.3
식료품	3,893	1.2
의복	3,919	1.2
기타	34,133	10.3
전체	330,419	100.0

전기전자는 아시아 매출비중이 각각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유럽과 아시아 매출비중이 각각 37.4%, 36.4%로 나타남

■ 자동차의 경우 중국과 미국에서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매출비중 하락으로 유럽 지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의 해외동반 진출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1차 금속, 화학, 전기장비, 의복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아시아의 매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V-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91,499	14,285	8,441	8,726
자동차	29,831	11,019	30,638	10,458
1차금속	18,865	3,060	904	4,421
화학	16,732	971	1,539	388
기타기계	5,152	1,021	1,269	318
전기장비	19,106	1,353	1,900	170
기타운송장비	1,185	0	61	844
고무/플라스틱	3,037	414	684	183
식료품	1,950	1,183	160	601
의복	3,456	122	7	334
기타	26,214	3,130	3,112	1,677
전체	217,026	36,557	48,715	28,120

나. 수익성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전체 제조업 현지법인 영업이익의 61.4%를 차지함

■ 전기전자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54.5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4.4%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14.4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1.8%를 기록함.

■ 한편, 제조업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3.4%를 기록하며, 국내 제조업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5.6%)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제조업 현지법인들이 현지화와 현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여 생산효율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모든 업종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V-6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법인		국내기업
	금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전기전자	5,452	4.4	18.2
자동차	1,436	1.8	1.9
1차금속	960	3.5	5.0
화학	1,042	5.3	8.2
기타기계	268	3.5	6.0
전기장비	613	2.7	3.4
기타운송장비	△180	△8.6	△0.3
고무/플라스틱	132	3.0	4.5
식료품	157	4.0	4.2
의복	16	0.4	3.9
기타	1,319	3.9	4.9
전체	11,216	3.4	7.3

영업이익 규모는 아시아가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 기타지역 순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서는 전기전자(41.2억 달러), 화학(9.6억 달러)의 영업이익 규모가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럽 또한 자동차(12.6억 달러), 전기전자(3.3억 달러)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북미는 자동차업종의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기장비, 화학 등은 영업손실을 시현함.

표 V-7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124	31	332	966
자동차	△108	173	1,257	114
1차금속	342	130	27	461
화학	964	△41	50	69
기타기계	234	17	40	△23
전기장비	566	△132	176	2
기타운송장비	△166	△0	△10	△5
고무/플라스틱	105	22	△2	7
식료품	54	63	2	37
의복	35	△4	△3	△12
기타	1,222	△10	92	15
전체	7,373	249	1,962	1,632

제조업의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아시아 3.4%, 유럽 4.0%, 북미는 0.7%를 기록, 기타지역은 브라질과 호주의 실적호조로 5.8%를 시현

■ 전기전자는 아시아 4.5%, 유럽 3.9%, 북미 0.2% 순이며, 자동차는 유럽 4.1%, 북미 1.6%, 아시아 △0.4% 순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전기전자 및 1차금속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각각 11.5%, 18.8%를 시현하면서 기타지역의 영업이익률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표 V-8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5	0.2	3.9	11.1
자동차	△0.4	1.6	4.1	1.1
1차금속	1.8	4.2	3.0	10.4
화학	5.8	△4.2	3.3	17.7
기타기계	4.5	1.7	3.2	△7.3
전기장비	3.0	△9.7	9.3	1.4
기타운송장비	△14.0	△604.3	△15.6	△0.5
고무/플라스틱	3.5	5.2	△0.3	3.7
식료품	2.8	5.4	1.3	6.2
의복	1.0	△3.2	△43.7	△3.6
기타	4.7	△0.3	3.0	0.9
전체	3.4	0.7	4.0	5.8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와 화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기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제조업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수준인 53.8억 달러, 당기순이익률은 4.4%를 기록하였으며, 화학은 당기순이익 7.9억 달러, 당기순이익률 4.0%를 시현함.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의 제조업 평균 당기순이익률(5.5%)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전기전자의 경우,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현지법인 이익률과의 격차는 13.8%p, 9.4%p로 확대되었음. 2018년에는 모든 제조업 세부업종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기타 세부 업종별, 지역별 특성은 손익 구조상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V-9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현지법인		국내기업
	금액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전기전자	5,382	4.4	13.7
자동차	422	0.5	1.5
1차금속	△243	△0.9	1.9
화학	793	4.0	7.8
기타기계	119	1.5	4.6
전기장비	313	1.4	2.3
기타운송장비	△1,468	△70.2	△0.5
고무/플라스틱	34	0.8	2.1
식료품	△54	△1.4	3.7
의복	△49	△1.3	1.5
기타	331	1.0	4.1
전체	5,581	1.7	5.5

표 V-10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229	9	271	873
자동차	△372	99	851	△156
1차금속	△14	86	19	△334
화학	752	△67	67	41
기타기계	192	△13	△18	△43
전기장비	280	△97	130	△0
기타운송장비	△1,411	△0	△17	△38
고무/플라스틱	53	14	△32	△1
식료품	△51	△15	△8	20
의복	△22	△5	△4	△18
기타	576	△90	31	△186
전체	4,212	△79	1,290	159

표 V-11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당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4.6	0.1	3.2	10.0
자동차	△1.2	0.9	2.8	△1.5
1차금속	△0.1	2.8	2.1	△7.5
화학	4.5	△6.9	4.3	10.6
기타기계	3.7	△1.2	△1.4	△13.5
전기장비	1.5	△7.2	6.9	△0.3
기타운송장비	△119.1	△1,521.7	△28.5	△4.5
고무/플라스틱	1.7	3.3	△4.6	△0.3
식료품	△2.6	△1.3	△5.2	3.3
의복	△0.6	△4.5	△54.5	△5.3
기타	2.2	△2.9	1.0	△11.1
전체	1.9	△0.2	2.6	0.6

다. 매출입구조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기전자, 의복은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출 비중이 50.2%로 현지매출 비중(35.2%)보다 높아, 현지법인 생산 제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동차의 경우는 현지매출(78.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식료품, 고무, 기타기계 및 1차 금속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현지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의복은 한국수출 비중이 69.3%로 현지매출 비중(15.4%)보다 높았음.

표 V-12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전기전자	43,332	61,694	17,925	35.2	50.2	14.6
자동차	63,893	1,959	16,094	78.0	2.4	19.6
1차금속	22,152	1,478	3,620	81.3	5.4	13.3
화학	14,775	764	4,090	75.3	3.9	20.8
기타기계	5,182	2,031	547	66.8	26.2	7.1
전기장비	10,763	5,994	5,772	47.8	26.6	25.6
기타운송장비	331	747	1,011	15.9	35.8	48.4
고무/플라스틱	2,953	413	952	68.4	9.6	22.0
식료품	3,223	111	560	82.8	2.8	14.4
의복	605	2,716	597	15.4	69.3	15.2
기타	18,842	9,249	6,042	55.2	27.1	17.7
전체	186,050	87,158	57,211	56.3	26.4	17.3

제조업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0.4%로, 매출(26.4%)에 비해
한국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매입 비중은 45.2%로
한국수입(40.4%) 및 제3국수입(14.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58.8%로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았으며, 매출입 모두에서 한국과의 거래가 매우 활발한 업종임을 알 수 있음.
- 자동차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66.2%로 높지만 현지매출 비중 78.0%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한국수입 비중은 26.2%로 매출에서의 한국 거래 비중(2.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출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식료품의 경우 매출(82.8%)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도 현지 거래 비중이 76.0%로 높게 나타나 생산과 판매의 현지화가 가장 활발한 업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의복의 경우 한국수입 비중이 7.9%로 한국수출 비중(69.3%)보다 크게 낮아 수입유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V-13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비중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전기전자	24,293	58,602	16,694	24.4	58.8	16.8
자동차	46,602	18,474	5,313	66.2	26.2	7.5
1차금속	9,378	7,072	2,181	50.3	38.0	11.7
화학	8,713	3,544	3,418	55.6	22.6	21.8
기타기계	3,192	1,802	289	60.4	34.1	5.5
전기장비	5,757	8,478	4,253	31.1	45.9	23.0
기타운송장비	600	705	254	38.5	45.2	16.3
고무/플라스틱	1,457	1,070	381	50.1	36.8	13.1
식료품	1,857	206	382	76.0	8.4	15.6
의복	1,877	194	386	76.4	7.9	15.7
기타	13,973	5,247	4,030	60.1	22.6	17.3
전체	117,701	105,395	37,581	45.2	40.4	14.4

라. 투자수익 및 배당금

제조업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은 83억 달러로, 10.9%의 투자수익률 기록

- 당기순이익 양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측 지분율을 반영한 투자자순이익 또한 전기전자(50억 달러)가 화학(5억 달러), 자동차(5억 달러)보다 높게 나타남.
- 로열티 수입은 자동차가 전기전자보다 높았으며, 투자수익률은 전기전자가 32.5%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기장비 16.5%, 자동차 12.4% 순.
- 투자자순이익 및 로열티의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이자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음.

표 V-14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잔액 (B)	투자 수익률 (A/B)
	투자자 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	합계(A)		
전기전자	5,023	1,216	16	6,255	19,230	32.5
자동차	503	1,443	5	1,952	15,752	12.4
1차금속	△106	8	3	△96	8,386	△1.1
화학	507	53	2	561	7,348	7.6
기타기계	114	44	2	160	4,165	3.8
전기장비	368	252	1	621	3,754	16.5
기타운송장비	△1,406	22	1	△1,384	2,309	△59.9
고무/플라스틱	33	56	2	91	1,722	5.3
식료품	△16	16	1	2	2,003	0.1
의복	△47	1	5	△41	1,813	△2.3
기타	122	79	11	211	10,220	2.1
전체	5,094	3,190	48	8,332	76,704	10.9

한편, 제조업 현지법인은 총 26.1억 달러의 배당금을 한국투자자 앞 지급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의 비중이 65.9%를 차지

- 이는 제조업 현지법인 당기순이익(55.8억 달러)의 46.8% 및 투자자순이익(50.9억 달러)의 5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45.1%에 해당하는 7.8억 달러, 화학은 16.7%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표 V-15 제조업 세부업종 및 지역별 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전기전자	776	-	-	194
자동차	175	1	503	23
1차금속	32	9	-	31
화학	285	8	13	11
기타기계	45	-	0	-
전기장비	26	0	60	-
기타운송장비	1	-	-	-
고무/플라스틱	190	0	8	-
식료품	8	-	0	0
의복	1	-	-	-
기타	182	20	4	3
전체	1,721	38	589	263

마.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통해 분석된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은 1,054억 달러, 수입은 872억 달러를 기록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586억 달러,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17억 달러로 순수입액이 31억 달러로 나타나,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16.1%를 기록함.
- 반면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 185억 달러, 수입액 20억 달러로 165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전기전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1차 금속, 전기장비, 화학, 고무의 경우 현지법인 앞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컸음.
- 의복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액이 현지법인 앞 수출액을 25억 달러 초과하여, 무역수지개선효과가 타 업종 대비 가장 낮은 수준(△139.1%)을 보임.

표 V-16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수출	수입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전기전자	19,230	58,602	61,694	△3,092	△16.1
자동차	15,752	18,474	1,959	16,515	104.8
1차금속	8,386	7,072	1,478	5,594	66.7
화학	7,348	3,544	764	2,780	37.8
기타기계	4,165	1,802	2,031	△229	△5.5
전기장비	3,754	8,478	5,994	2,484	66.2
기타운송장비	2,309	705	747	△42	△1.8
고무/플라스틱	1,722	1,070	413	657	38.2
식료품	2,003	206	111	95	4.7
의복	1,813	194	2,716	△2,522	△139.1
기타	10,220	5,247	9,249	△4,003	△39.2
전체	76,704	105,395	87,158	18,237	23.8

4. 최근 3년 경영성과

가. 매출액 및 매출입구조

최근 3년간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분석결과 2016년에는 일시 자동차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부터 다시 전기전자 제조업의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1,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대비 △19.5% 감소한 819억 달러를 기록.
- 2018년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장비, 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1차금속, 화학, 기타기계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중국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의 감소가 전반적인 매출액 하락을 주도함.

표 V-17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103,065	130,823	122,951
자동차	107,084	101,804	81,946
1차금속	18,002	23,514	27,250
화학	15,829	17,955	19,629
기타기계	8,145	7,492	7,760
전기장비	22,847	24,332	22,529
기타운송장비	4,033	3,479	2,090
고무/플라스틱	6,701	5,497	4,318
식료품	5,391	5,406	3,893
의복	4,112	4,636	3,919
기타	28,524	30,108	34,133
전체	323,734	355,047	330,419

표 V-18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평균
전기전자	△10.8	26.9	△6.0	3.4
자동차	0.5	△4.9	△19.5	△8.0
1차금속	△2.5	30.6	15.9	14.7
화학	3.9	13.4	9.3	8.9
기타기계	△6.8	△8.0	3.6	△3.7
전기장비	△1.7	6.5	△7.4	△0.9
기타운송장비	3.1	△13.7	△39.9	△16.9
고무/플라스틱	0.3	△18.0	△21.4	△13.0
식료품	△10.8	0.3	△28.0	△12.8
의복	△13.9	12.7	△15.5	△5.6
기타	8.7	5.6	13.4	9.2
전체	△3.5	9.7	△6.9	△0.3

제조업 현지법인의 현지매출(56.3%)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0.4%p) 하락하였으나, 제3국수출(17.3%) 비중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 현지매출 비중이 2016년 60.9%에서 2018년 56.3%로 하락한 반면 한국수출 비중은 23.9%에서 26.4%로 상승함.
- 이는 자동차 부문의 현지매출 비중이 하락(2016년 81.6% → 2018년 78.0%)하고 제3국수출 비중이 상승(2016년 16.7% → 2018년 19.6%)한 것이 주요 원인임.
- 특히, 중국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2018년 순수출액이 25.4억 달러로 전년대비 23.7% 하락하였으나, 전기전자 부문의 순수입액이 2018년 231.3억달러로 전년대비 23.9% 감소하면서 중국 제조업 전체의 순수입 규모는 2018년 147.6억달러로 전년대비 26.7% 축소되었음.
- 자동차의 경우 현지매출 비중이 75~80%를 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대부분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송비, 관세 및 국내 공장의 높은 가동률 등으로 인해 자동차업종의 한국 앞 수출비중은 1~2%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나, 중국 등에서 생산된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해서 조립생산하는 CKD 방식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전기전자 및 의복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각각 50%, 70% 내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 한국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매출 비중 또한 35%, 15% 내외를 보이면서 판매경로가 한국과 현지시장으로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매입 구조에서도 제조업 전반적으로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한국 및 제3국을 통한 조달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지매입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기조였으나 2018년에는 중국의 자동차업과 1차금속, 전기장비 등에서 현지 부품조달보다 한국에서의 부품 조달 비중이 확대된 결과 현지매입 비중이 하락하고 한국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음.
- 전기전자의 경우 아직 제조업 평균(33.5%)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16년 48.1%에서 2018년 58.8%로 10.7%p 상승함.
- 자동차의 경우 2018년 현지매입 비중이 66.2%인데 반해, 한국수입 비중은 2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소싱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동차 산업 관련 한국부품 업체들의 활발한 해외동반진출로 현지에서 가치사슬을 형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식료품의 경우 현지매입 비중이 75~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이 여타 업종 대비 현지화의 정도가 훨씬 높음을 시사함.

표 V-19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현지매출	35.0	34.5	35.2
	한국수출	53.2	52.3	50.2
	제3국수출	11.8	13.2	14.6
자동차	현지매출	81.6	76.2	78.0
	한국수출	1.6	1.8	2.4
	제3국수출	16.7	22.0	19.6
1차금속	현지매출	87.8	82.3	81.3
	한국수출	4.5	6.9	5.4
	제3국수출	7.7	10.8	13.3
화학	현지매출	78.3	79.1	75.3
	한국수출	3.5	4.1	3.9
	제3국수출	18.2	16.8	20.8
기타기계및장비	현지매출	76.9	69.7	66.8
	한국수출	18.5	24.7	26.2
	제3국수출	4.5	5.6	7.1
전기장비	현지매출	58.8	55.7	47.8
	한국수출	27.6	29.6	26.6
	제3국수출	13.6	14.7	25.6
기타운송장비	현지매출	16.9	20.8	15.9
	한국수출	22.8	18.4	35.8
	제3국수출	60.3	60.8	48.4
고무/플라스틱	현지매출	64.8	67.5	68.4
	한국수출	4.8	7.7	9.6
	제3국수출	30.3	24.8	22.0
식료품	현지매출	82.0	74.2	82.8
	한국수출	3.4	4.1	2.8
	제3국수출	14.6	21.8	14.4
의복	현지매출	28.2	26.9	15.4
	한국수출	59.8	60.7	69.3
	제3국수출	12.0	12.4	15.2
기타	현지매출	53.2	54.9	55.2
	한국수출	26.7	27.5	27.1
	제3국수출	20.1	17.6	17.7
전체	현지매출	60.9	56.7	56.3
	한국수출	23.9	26.5	26.4
	제3국수출	15.2	16.8	17.3

표 V-20 제조업 세부업종별 매입비중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현지매입	28.5	24.3	24.4
	한국수입	48.1	56.2	58.8
	제3국수입	23.4	19.5	16.8
자동차	현지매입	72.2	67.7	66.2
	한국수입	22.8	24.3	26.2
	제3국수입	5.0	8.0	7.5
1차금속	현지매입	51.4	53.5	50.3
	한국수입	34.8	34.3	38.0
	제3국수입	13.8	12.2	11.7
화학	현지매입	52.4	55.9	55.6
	한국수입	23.0	25.0	22.6
	제3국수입	24.6	19.1	21.8
기타기계및장비	현지매입	74.2	61.7	60.4
	한국수입	20.8	32.8	34.1
	제3국수입	5.0	5.5	5.5
전기장비	현지매입	39.9	44.6	31.1
	한국수입	43.3	39.4	45.9
	제3국수입	16.7	16.1	23.0
기타운송장비	현지매입	58.0	34.6	38.5
	한국수입	27.4	48.1	45.2
	제3국수입	14.6	17.3	16.3
고무/플라스틱	현지매입	37.0	40.8	50.1
	한국수입	33.6	46.9	36.8
	제3국수입	29.4	12.3	13.1
식료품	현지매입	73.9	71.2	76.0
	한국수입	7.2	7.8	8.4
	제3국수입	18.9	20.9	15.6
의복	현지매입	49.2	60.6	76.4
	한국수입	15.2	10.4	7.9
	제3국수입	35.5	29.1	15.7
기타	현지매입	58.6	56.9	60.1
	한국수입	23.6	25.0	22.6
	제3국수입	17.8	18.1	17.3
전체	현지매입	51.1	46.6	45.2
	한국수입	33.5	38.5	40.4
	제3국수입	15.4	14.9	14.4

나. 수익성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기전자 제조업이 가장 큰 영업이익을 시현

-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할 경우 그 비중이 제조업 전체의 61.4%를 차지하며, 투자잔액 기준 두 업종의 비중이 45.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타 제조업종 대비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 전기전자의 경우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가장 큰 제조업종으로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2016년 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2018년 14.4억 달러를 시현하였음.
- 이외 주요 업종으로는 화학, 1차금속, 전기장비 등이 있으며, 기타운송장비는 최근 3개년 모두 적자를 기록함.

표 V-21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4,541	7,370	5,452
자동차	4,376	1,779	1,436
1차금속	183	399	960
화학	1,060	1,462	1,042
기타기계및장비	504	238	268
전기장비	764	674	613
기타운송장비	△435	△28	△180
고무/플라스틱	560	204	132
식료품	351	240	157
의복	20	33	16
기타	910	1,490	1,319
전체	12,833	13,863	11,216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및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5%p 하락한 3.4% 기록

- 전기전자 부문은 2017년 5.6%에서 2018년 4.4%로 하락하면서 2016년 수준을 시현하였으며, 자동차 부문은 2016년 4.1%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1.7%, 1.8%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함.
- 화학의 경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6.7%로 제조업 중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임.

표 V-22 제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4.4	5.6	4.4
자동차	4.1	1.7	1.8
1차금속	1.0	1.7	3.5
화학	6.7	8.1	5.3
기타기계및장비	6.2	3.2	3.5
전기장비	3.3	2.8	2.7
기타운송장비	△10.8	△0.8	△8.6
고무/플라스틱	8.4	3.7	3.0
식료품	6.5	4.4	4.0
의복	0.5	0.7	0.4
기타	3.2	4.9	3.9
전체	4.0	3.9	3.4

당기순이익률의 추이는 영업이익률 추이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전기전자의 경우 영업이익 하락과 함께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률 또한 전년대비 1.2%p 하락한 4.4%를 시현함

자동차의 경우는 영업이익 흐름과 유사하게 2016년은 3.0%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각각 1.1%, 0.5%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기타운송장비 부문의 당기순이익률은 2018년 △70.2%로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으며, 의복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표 V-23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5,336	7,374	5,382
자동차	3,194	1,153	422
1차금속	17	△305	△243
화학	739	1,142	793
기타기계및장비	245	62	119
전기장비	489	424	313
기타운송장비	△790	16	△1,468
고무/플라스틱	358	152	34
식료품	173	68	△54
의복	△14	△28	△49
기타	342	880	331
전체	10,087	10,937	5,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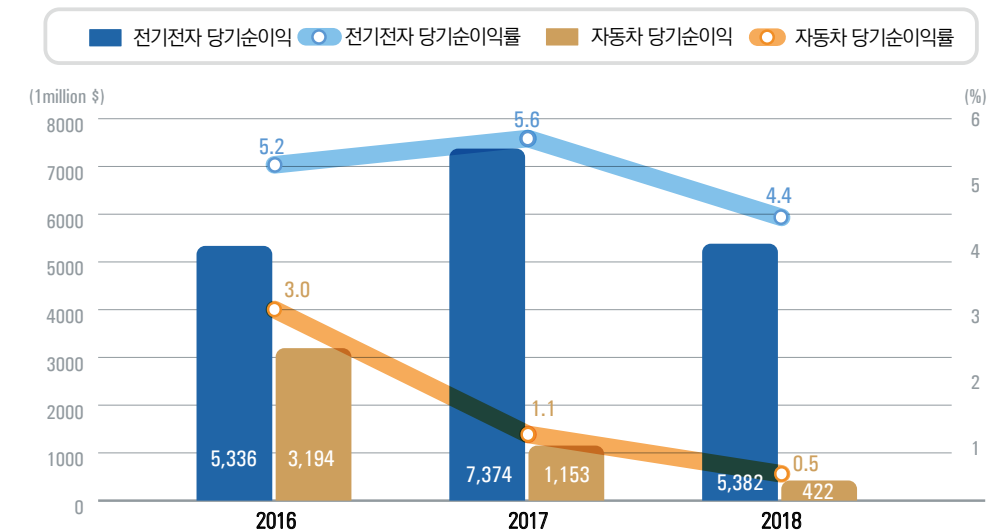
표 V-24 제조업 세부업종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5.2	5.6	4.4
자동차	3.0	1.1	0.5
1차금속	0.1	△1.3	△0.9
화학	4.7	6.4	4.0
기타기계및장비	3.0	0.8	1.5
전기장비	2.1	1.7	1.4
기타운송장비	△19.6	0.5	△70.2
고무/플라스틱	5.3	2.8	0.8
식료품	3.2	1.3	△1.4
의복	△0.3	△0.6	△1.3
기타	1.2	2.9	1.0
전체	3.1	3.1	1.7

그림 V-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조업 현지법인의 수익성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다. 투자수익

투자자순이익은 2016년 82.8억 달러에서 2018년 50.9억 달러로 감소함

■ 전기전자와 화학의 당기순이익 차이는 6.8배이나 투자자순이익 규모 차이는 9.9배로, 이는 투자자순이익이 당기순이익 및 한국투자자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표 V-25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자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4,572	6,643	5,023
자동차	2,413	1,365	503
1차금속	△58	△164	△106
화학	457	714	507
기타기계및장비	243	68	114
전기장비	556	492	368
기타운송장비	△735	1	△1,406
고무/플라스틱	333	157	33
식료품	179	66	△16
의복	△18	△24	△47
기타	342	586	122
전체	8,284	9,905	5,094

로열티 지급액은 2016년 28.7억 달러에서 2018년 31.9억 달러로 증가

■ 2018년 기준 자동차(45.2%)와 전기전자(38.1%)의 로열티 금액이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자동차 제조업은 전반적인 실적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여 로열티 수익은 현지법인의 개별 수익성과 연관성이 적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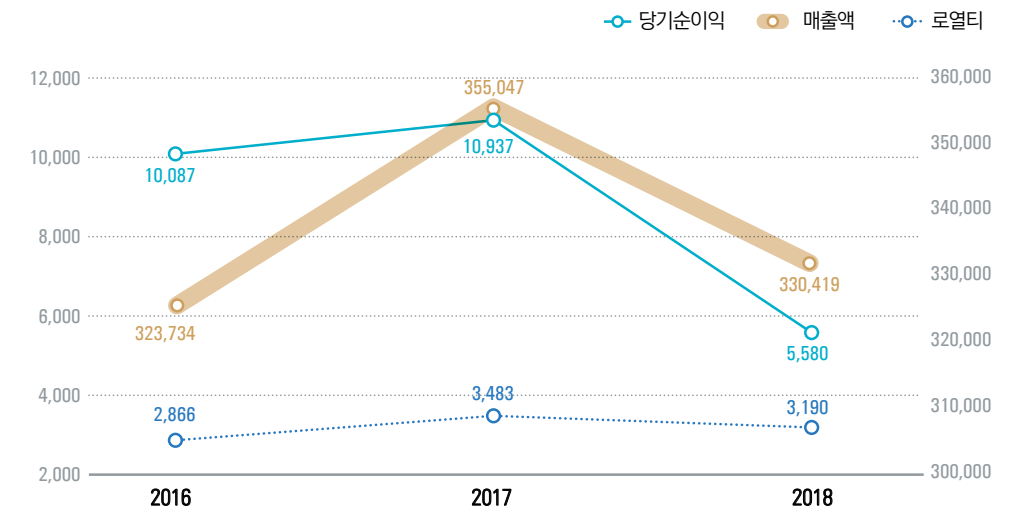
표 V-26 제조업 세부업종별 로열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802	1,047	1,216
자동차	1,580	1,899	1,443
1차금속	17	10	8
화학	24	25	53
기타기계및장비	16	16	44
전기장비	82	164	252
기타운송장비	20	30	22
고무/플라스틱	119	95	56
식료품	61	63	16
의복	2	0	1
기타	144	134	79
전체	2,866	3,483	3,190

그림 V-2 제조업 로열티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좌측은 당기순이익 및 로열티, 우측은 매출액

한국투자자 앞 대부이자 지급액은 2016년 114백만 달러에서 2017년 68백만 달러로 감소,
'18년에는 다시 48백만 달러로 감소

■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투자잔액 규모 대비 대부이자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

표 V-27 제조업 세부업종별 대부이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23	14	16
자동차	5	15	5
1차금속	5	4	3
화학	0	1	2
기타기계및장비	3	6	2
전기장비	6	6	1
기타운송장비	2	1	1
고무/플라스틱	5	4	2
식료품	2	2	1
의복	4	5	5
기타	58	10	11
전체	114	68	48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이자를 합한 투자수익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2016년 5.9%에서 2018년 10.9%로 감소함

■ 2018년 제조업 당기순이익률은 1.7%로 전년도의 3.1%에 비해 1.4%p 하락하였으나, 투자
수익률의 경우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투자자순이익 감소에 따라 2017년(17.2%)
대비 6.3%p 감소한 1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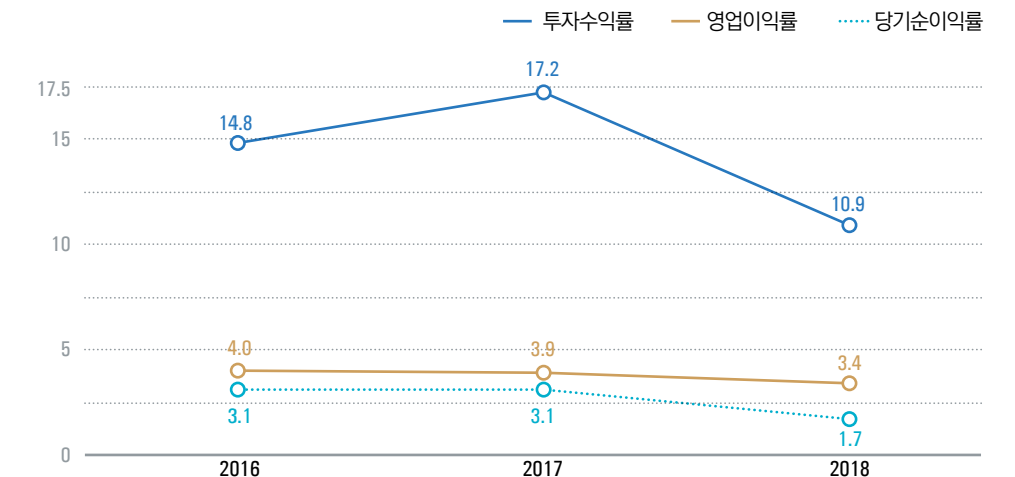
표 V-28 제조업 세부업종별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31.6	42.1	32.5
자동차	30.5	21.9	12.4
1차금속	△0.5	△2.0	△1.1
화학	6.8	11.3	7.6
기타기계및장비	4.2	1.7	3.8
전기장비	16.0	16.5	16.5
기타운송장비	△19.0	0.9	△59.9
고무/플라스틱	13.7	9.5	5.3
식료품	9.6	4.9	0.1
의복	△0.6	△0.9	△2.3
기타	5.9	7.0	2.1
전체	14.8	17.2	10.9

그림 V-3 제조업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현지법인의 한국 투자자 앞 배당금 지급액은 2016년 28.4억 달러에서 2018년 26.1억 달러로 소폭 하락

■ 전기전자는 전년대비 31.0% 감소한 9.7억 달러를 기록하며 비중이 전년 50.0%에서 37.2%로 감소하였으나, 화학의 경우 전년대비 271.1% 증가 3.2억 달러를 기록, 비중은 4.1%에서 12.1%로 상승함.

■ 한편, 자동차의 경우 7.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면서 26.9%의 비중을 차지함.

표 V-29 제조업 세부업종별 배당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1,023	1,407	970
자동차	1,078	618	702
1차금속	78	107	72
화학	173	116	315
기타기계및장비	6	35	45
전기장비	54	52	86
기타운송장비	-	5	1
고무/플라스틱	50	137	198
식료품	10	8	8
의복	3	12	1
기타	367	315	210
전체	2,842	2,811	2,610

라. 수출입 유발효과

현지법인 앞 수출은 2016년 842억 달러에서 2018년 1,054억 달러로 증가

■ 2018년 전기전자 현지법인 앞 수출액은 586억 달러로 2016년 411억 달러 대비 42.7% 증가하였으며, 전체 제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8%에서 2018년 55.6%로 상승함.

■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8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의 200억 달러 대비 8.9%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18년 17.5%로 하락하였음. 현지에서의 매출입 비중이 높은 이유로 인해 자동차 업종 현지법인의 수출비중은 매출액 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1차금속의 경우 2016년 41억 달러에서 2018년 71억 달러로 최근 3년간 현지법인 앞 수출액 규모가 73.0% 확대됨.

표 V-30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41,063	59,581	58,602
자동차	20,047	21,197	18,474
1차금속	4,088	5,380	7,072
화학	2,654	3,429	3,544
기타기계및장비	1,155	1,666	1,802
전기장비	8,191	7,919	8,478
기타운송장비	863	1,212	705
고무/플라스틱	1,500	1,611	1,070
식료품	192	226	206
의복	401	318	194
기타	4,009	4,552	5,247
전체	84,163	107,091	105,395

표 V-31 제조업 세부업종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54,864	68,466	61,694
자동차	1,748	1,864	1,959
1차금속	807	1,630	1,478
화학	555	736	764
기타기계및장비	1,507	1,854	2,031
전기장비	6,312	7,201	5,994
기타운송장비	919	640	747
고무/플라스틱	324	421	413
식료품	181	220	111
의복	2,460	2,812	2,716
기타	7,614	8,270	9,249
전체	77,291	94,113	87,158

표 V-32 제조업 세부업종별 순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전기전자	△13,802	△8,884	△3,092
자동차	18,299	19,333	16,515
1차금속	3,281	3,749	5,594
화학	2,099	2,693	2,780
기타기계및장비	△352	△188	△229
전기장비	1,879	718	2,484
기타운송장비	△56	572	△42
고무/플라스틱	1,177	1,191	657
식료품	11	7	95
의복	△2,059	△2,494	△2,522
기타	△3,606	△3,718	△4,003
전체	6,872	12,979	18,237

제조업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2016년 9.0%에서 2018년에는 23.8%로 상승

전기전자의 경우 2018년 △16.1%를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모두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으나, 가장 개선된 수치를 시현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104.8%를 시현하며 제조업 세부 업종 중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차 금속, 화학, 전기장비 및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3년 모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기타 기계 및 장비·의복의 경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으며, 의복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제조업 세부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139.1%)을 기록함.

표 V-33 제조업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추이

(단위: %)

	2016	2017	2018
전기전자	△80.7	△48.5	△16.1
자동차	139.5	129.0	104.8
1차금속	42.3	50.0	66.7
화학	29.8	41.3	37.8
기타기계및장비	△5.6	△3.5	△5.5
전기장비	46.7	17.9	66.2
기타운송장비	△1.5	15.2	△1.8
고무/플라스틱	35.2	44.5	38.2
식료품	0.4	0.3	4.7
의복	△107.4	△121.6	△139.1
기타	△39.0	△35.6	△39.2
전체	9.0	16.6	23.8

VI. 시사점

1. 자동차를 중심으로 중국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악화

2018년 분석대상 5,072개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총 6,2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1.2억 달러로 2017년 1.4억 달러 대비 10.1% 감소

■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52.5%, 38.3%로 전체 매출액의 90.8%를 차지하였으며, 매출액 상위 2개 국가는 중국(1,420억 달러, 22.6%)과 미국(1,082억 달러, 17.2%)으로 두 국가의 매출액이 전체의 39.8%를 차지함.

전체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3.1%, 1.1%로 2017년 대비 각각 0.1%p, △0.7%p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당기순이익률이 하락하면서 매출액 감소와 함께 불황형 흑자 시현

■ 중국, 필리핀, 인도 등의 수익성 하락으로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익성은 39.2% 하락하였으며, 유럽 26.0%, 북미 40.5% 등 주요 지역의 수익성이 대부분 감소하였음.

■ 원자재가격 회복 등으로 광업 현지법인의 당기순손실폭이 2015년 △108억 달러, 2017년 △7억 달러에서 2018년 당기순이익 0.8억 달러로 흑자전환 하였음.

현지법인의 성장성은 2018년 매출감소율이 △9.1%를 시현하면서 2017년의 상승반전에서 1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하였음

■ 투자잔액 대비 총매출액은 2012년 5.5배에서 2016년 3.4배, 2018년 3.4배로 나타나 하락세는 완화되었으나,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중국과 미국의 투자잔액 대비 총매출액은 2013년 각각 7.2배, 4.5배에서 2018년 3.7배, 2.1배로 하락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2013년 2.8배, 2018년 5.3배로 증가하고 있어 주요 성장지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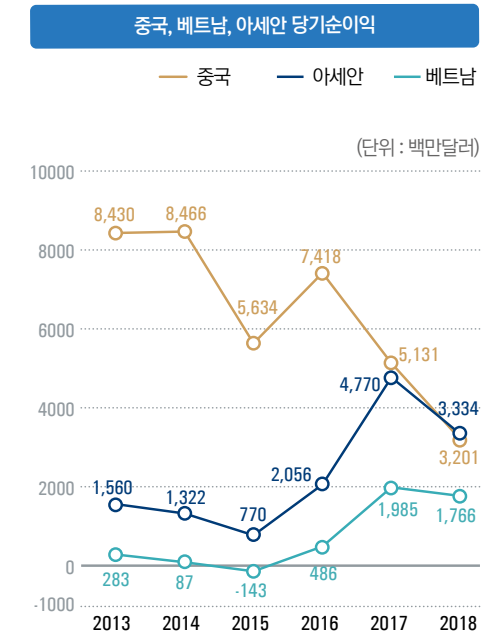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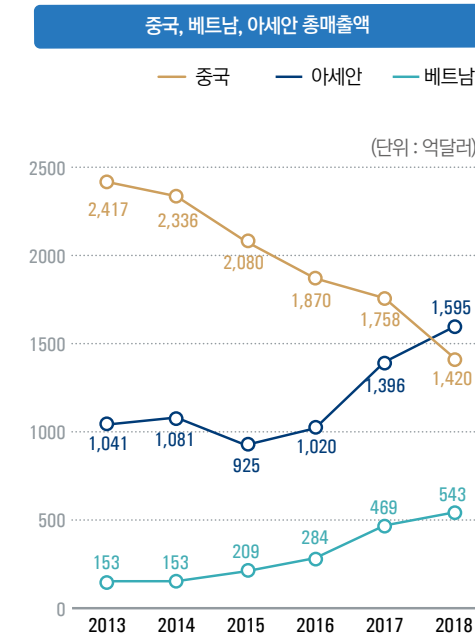
2. 중국 투자비중 감소, 미국 및 ASEAN 투자 확대

최근 지속적인 임금상승 및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 축소 등 제조업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중국을 대신하는 투자처로 베트남과 ASEAN이 부상

■ 중국 투자비중은 2013년 25.1%에서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20.3%로 4.8%p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동기간 19.1%에서 27.6%로 8.5%p, 베트남은 4.1%에서 5.5%로 1.4%p 상승하였음.

■ 중국 현지법인 총매출액은 2013년 2,417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42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총매출액은 동기간 153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ASEAN 총매출액은 동기간 1,041억 달러에서 1,595억 달러로 확대되어 ASEAN 총매출액은 중국 대비 1.1배 수준까지 성장.

■ 중국 투자잔액은 2013년 335억 달러에서 2018년 380억 달러로 13.5% 증가하였으나, 미국 투자잔액은 2013년 255억 달러에서 2018년 516억 달러로 2배, ASEAN 투자잔액은 2013년 187억 달러에서 2018년 245억 달러로 30.9% 증가, 하여, 투자 중심지역이 미국과 ASEAN으로 이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3.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전략 재편 필요

1. 해외생산거점 및 판매망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현지법인 수익재투자로 해외자산 확보
3.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수출로 상품수지 공헌 4. 대부이자, 로열티 등의 국내 송금,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원소득 확보 등

■ 세계 교역규모 성장세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영업전략을 강화하여 현지 매출입 비중을 확대하고, 현지법인 경영전략을 성장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재편할 필요

■ 금번 조사에서 2018년 한국 모기업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2,342억 달러를 수출하였음. 이는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6,049억달러의 38.7%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수지에 공헌하고 있음.

■ 또한, 본건 해외현지법인 5,072개사는 2018년 본원수지 공헌액 총 162.5억 달러(투자자순이익 68.9억 달러, 배당금 39.2억 달러, 로열티 34.8억 달러, 대부이자 5.2억 달러, 한국인근로자 임금 14.5억 달러)를 시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형태로 진입하면서 국내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인구 정체 등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경상수지에의 공헌이 필요

■ 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형성 및 현지화 전략의 차원에서, 현지법인의 과도한 모기업 의존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사업비중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 3 부

부 록

176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년말 현재)
186	II. 2018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04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30	IV. 2018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부록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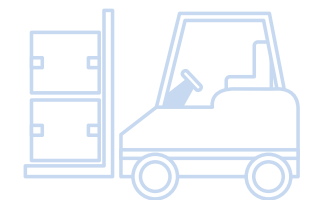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년말 현재)	176
1. 연도별	176
2. 업종별	177
3. 지역별	180
4. 국가별	182
5. 투자자 기업규모별	184
6. 투자목적별	185
II. 2018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86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186
가. 지역별	186
나. 업종별	18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88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189
가. 지역별	189
나. 업종별	19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1
3. 매출 및 매입비중 현황	192
가. 지역별	192
나. 업종별	19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4
4. 주요 재무비율	195
가. 지역별	195
나. 업종별	19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197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198
가. 지역별	198
나. 업종별	2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0
6. 수출입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201
가. 지역별	201
나. 업종별	203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3
III.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204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04
가. 지역별	204
나. 업종별	206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08
2. 주요경영성과	209
(1) 매출액	209
가. 지역별	209
나. 업종별	21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1
(2)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211
가. 지역별	211
나. 업종별	21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3
(3)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213
가. 지역별	213
나. 업종별	21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5
3. 매출현황	215
가. 지역별	215
나. 업종별	216
다. 투자자기업규모별	217



4. 매입현황	217
가. 지역별	217
나. 업종별	21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19
5.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219
(1) 수출액 및 수입액	219
가. 지역별	219
나. 업종별	22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1
(2)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221
가. 지역별	221
나. 업종별	22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3
6. 주요재무비율	223
(1)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223
가. 지역별	223
나. 업종별	224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5
(2)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225
가. 지역별	225
나. 업종별	226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7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227
가. 지역별	227
나. 업종별	22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229

IV. 2018 회계연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230
1. 개요	230
가. 분석 배경	230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230
2. 경영성과	232
가. 재무현황	232
(1) 업종별 현황	232
(2) 지역별 현황	232
나. 손익현황	233
(1) 업종별 현황	233
(2) 지역별 현황	234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년말 현재)

1. 연도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연도	신규법인수	신규법인수증감율	투자금액	투자금액증감율
1968~1980	352	-	145	-
1981	49	-	64	-
1982	50	2.0	112	75.1
1983	57	14.0	168	49.6
1984	45	△21.1	50	△70.4
1985	39	△13.3	112	126.1
1986	51	30.8	316	181.8
1987	92	80.4	410	29.7
1988	172	87.0	231	△43.5
1989	271	57.6	571	146.9
1990	345	27.3	1,074	87.9
1991	449	30.1	1,318	22.8
1992	503	12.0	1,356	2.8
1993	694	38.0	1,450	6.9
1994	1,491	114.8	2,354	62.4
1995	1,349	△9.5	3,234	37.4
1996	1,484	10.0	4,566	41.2
1997	1,366	△8.0	3,914	△14.3
1998	614	△55.1	4,817	23.1
1999	1,106	80.1	3,405	△29.3
2000	2,121	91.8	5,362	57.5
2001	2,187	3.1	5,402	0.7
2002	2,530	15.7	4,067	△24.7
2003	2,828	11.8	4,816	18.4
2004	3,796	34.2	6,632	37.7
2005	4,449	17.2	7,322	10.4
2006	5,209	17.1	11,909	62.7
2007	5,689	9.2	22,741	91.0
2008	4,037	△29.0	24,133	6.1
2009	2,470	△38.8	20,786	△13.9
2010	2,896	17.2	25,360	22.0
2011	2,754	△4.9	29,326	15.6
2012	2,550	△7.4	29,353	0.1
2013	2,834	11.1	30,797	4.9
2014	2,812	△0.8	28,253	△8.3
2015	2,995	6.5	29,854	5.7
2016	3,116	4.0	39,271	31.5
2017	3,221	3.4	44,346	12.9
2018	3,358	4.3	49,608	11.9
합계	72,431	-	449,004	-

2.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제조업		광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35	32	4	3	-	-	210	32
1981	7	5	0	7	1	29	25	8
1982	5	6	4	62	1	15	21	13
1983	16	27	1	43	2	60	16	13
1984	10	13	1	14	1	0	15	10
1985	12	27	2	70	1	0	16	6
1986	20	77	0	83	2	134	21	12
1987	30	156	4	219	-	-	38	19
1988	70	81	2	65	1	1	65	55
1989	147	278	1	76	0	0	78	59
1990	200	568	6	152	4	104	75	139
1991	280	650	3	123	7	211	89	172
1992	346	672	7	150	6	111	82	308
1993	519	557	8	146	6	187	94	446
1994	1,093	1,489	17	115	4	51	166	546
1995	953	2,040	5	77	6	83	162	326
1996	1,031	2,935	17	253	5	42	171	591
1997	899	1,988	14	235	6	39	159	539
1998	371	2,332	7	132	3	22	107	1,789
1999	689	1,610	10	225	2	25	110	1,056
2000	1,077	1,637	12	137	16	1,457	273	886
2001	1,272	4,038	7	82	9	60	307	806
2002	1,606	1,890	10	213	15	209	332	1,169
2003	1,775	2,655	16	332	8	487	371	691
2004	2,197	3,908	29	320	15	327	489	873
2005	2,119	4,245	23	388	22	315	839	801
2006	2,267	5,886	66	1,122	30	692	946	1,239
2007	2,256	11,048	73	1,604	63	1,660	1,016	3,039
2008	1,428	8,656	110	3,828	81	1,756	782	4,332
2009	842	6,731	74	5,511	44	1,067	531	2,114
2010	1,123	7,700	52	7,367	65	3,141	679	1,544
2011	1,044	10,884	54	8,512	60	2,082	609	1,924
2012	911	9,568	44	7,923	57	2,726	605	1,679
2013	1,081	9,651	27	7,401	65	2,800	617	2,262
2014	1,089	7,761	22	5,901	76	3,961	590	1,628
2015	1,092	7,893	21	3,509	100	6,659	686	2,278
2016	1,086	8,596	16	2,892	150	8,696	739	5,824
2017	1,030	9,998	15	1,379	171	12,801	739	8,281
2018	1,089	16,264	7	2,104	245	16,226	713	2,414
합계	33,117	154,549	791	62,773	1,350	68,235	13,583	49,919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2	11	-	-	34	26	12	2
1981	-	-	-	-	6	4	2	0
1982	-	-	-	-	6	6	2	0
1983	-	-	-	-	9	3	3	0
1984	-	-	-	-	7	4	2	0
1985	-	-	-	-	2	2	-	-
1986	-	-	-	-	1	2	-	-
1987	1	0	1	0	4	3	4	1
1988	1	1	1	5	8	5	6	1
1989	6	9	1	3	3	13	5	2
1990	5	7	0	18	7	5	6	1
1991	5	16	3	4	4	13	6	9
1992	0	4	3	10	4	1	3	10
1993	1	2	1	2	16	19	6	5
1994	9	12	9	12	31	31	26	13
1995	17	94	25	299	42	87	16	38
1996	11	50	23	201	33	92	21	27
1997	15	206	39	428	29	84	25	31
1998	6	125	18	145	14	103	16	9
1999	4	50	20	46	22	63	68	50
2000	5	100	46	196	26	120	20	37
2001	10	38	28	76	17	43	14	6
2002	17	76	31	105	22	64	21	13
2003	28	85	41	115	34	53	12	15
2004	30	189	37	151	48	83	22	14
2005	65	147	100	203	145	206	53	111
2006	139	575	202	402	254	483	83	279
2007	334	1,602	219	557	267	690	115	510
2008	268	1,814	174	773	199	891	101	545
2009	73	2,441	127	367	158	455	75	668
2010	68	2,144	124	510	156	347	77	506
2011	49	1,851	145	497	161	355	66	1,084
2012	45	2,428	145	666	142	596	79	581
2013	78	4,680	141	487	143	638	75	512
2014	111	3,603	194	915	122	1,182	84	597
2015	85	4,330	224	669	152	1,749	78	266
2016	111	6,188	216	1,332	140	1,602	97	1,153
2017	154	3,767	298	2,638	145	816	96	1,387
2018	201	5,078	274	1,549	140	1,469	80	787
합계	1,954	41,723	2,910	13,382	2,753	12,405	1,477	9,273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전기가스업		기타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	-	55	40	352	145
1981	-	-	8	11	49	64
1982	-	-	11	10	50	112
1983	-	-	10	23	57	168
1984	-	-	9	8	45	50
1985	-	-	6	8	39	112
1986	-	-	7	9	51	316
1987	-	-	10	11	92	410
1988	-	-	18	19	172	231
1989	-	-	30	132	271	571
1990	-	-	42	80	345	1,074
1991	-	-	52	121	449	1,318
1992	-	-	52	90	503	1,356
1993	-	-	43	86	694	1,450
1994	-	-	136	84	1,491	2,354
1995	1	20	122	169	1,349	3,234
1996	1	1	171	374	1,484	4,566
1997	2	12	178	352	1,366	3,914
1998	0	20	72	141	614	4,817
1999	0	79	181	200	1,106	3,405
2000	3	92	643	701	2,121	5,362
2001	0	2	523	251	2,187	5,402
2002	1	11	475	317	2,530	4,067
2003	0	0	543	384	2,828	4,816
2004	1	4	928	763	3,796	6,632
2005	6	158	1,077	750	4,449	7,322
2006	6	371	1,216	861	5,209	11,909
2007	22	745	1,324	1,287	5,689	22,741
2008	11	216	883	1,322	4,037	24,133
2009	26	539	520	894	2,470	20,786
2010	23	752	529	1,350	2,896	25,360
2011	21	609	545	1,527	2,754	29,326
2012	39	943	483	2,243	2,550	29,353
2013	22	586	585	1,778	2,834	30,797
2014	20	889	504	1,815	2,812	28,253
2015	27	689	530	1,813	2,995	29,854
2016	30	926	531	2,061	3,116	39,271
2017	34	1,207	539	2,072	3,221	44,346
2018	38	975	571	2,742	3,358	49,608
합계	334	9,848	14,162	26,899	72,431	449,004

3.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단위: 개, 백만 달러)

연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87	48	118	33	51	5	20	5
1981	17	5	14	33	1	2	3	1
1982	12	22	16	42	5	2	5	1
1983	18	28	24	109	2	13	5	0
1984	7	10	24	19	1	1	3	1
1985	15	18	12	27	3	39	3	3
1986	13	94	26	81	3	6	3	3
1987	18	132	41	189	11	7	14	4
1988	66	60	57	96	16	15	15	14
1989	126	128	73	283	16	19	29	56
1990	188	371	87	455	22	82	26	67
1991	270	550	82	455	40	172	36	42
1992	363	565	61	411	36	215	28	37
1993	556	663	61	416	32	175	28	43
1994	1,217	1,187	134	560	56	376	37	55
1995	1,054	1,772	143	584	75	641	31	124
1996	1,091	1,955	199	1,605	71	601	41	283
1997	943	1,913	230	909	76	483	35	280
1998	397	2,032	136	994	39	1,264	15	253
1999	677	1,300	326	1,445	42	305	24	179
2000	1,207	1,699	731	1,564	67	311	50	1,506
2001	1,460	1,513	537	1,586	69	2,134	23	104
2002	1,858	1,952	474	612	70	1,082	32	271
2003	2,098	2,696	560	1,490	71	264	32	218
2004	2,717	3,812	869	1,616	99	733	36	309
2005	3,032	4,374	1,107	1,364	141	648	51	515
2006	3,485	6,691	1,341	2,297	162	1,147	69	862
2007	3,804	12,780	1,332	3,665	247	4,027	76	995
2008	2,771	12,620	810	5,113	202	3,213	76	1,801
2009	1,602	8,012	531	5,775	123	4,352	64	956
2010	1,941	10,396	553	4,818	149	6,799	90	1,570
2011	1,838	11,885	476	8,307	155	3,231	111	2,976
2012	1,724	12,039	488	6,905	124	4,047	90	2,755
2013	1,936	12,321	516	7,514	152	3,909	86	2,335
2014	1,912	10,090	518	7,401	164	3,688	106	3,122
2015	2,042	11,518	560	8,349	170	3,528	113	2,765
2016	2,177	11,552	556	16,955	190	4,299	81	3,481
2017	2,223	14,174	563	17,903	248	7,427	67	2,415
2018	2,300	19,778	576	14,092	299	11,862	79	2,146
합계	49,262	182,757	14,962	126,070	3,500	71,125	1,733	32,552

연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전체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1968~1980	26	6	30	23	20	25	352	145
1981	4	18	6	3	4	1	49	64
1982	4	38	5	7	3	1	50	112
1983	1	15	5	3	2	0	57	168
1984	3	11	4	7	3	1	45	50
1985	4	15	1	10	1	0	39	112
1986	4	53	2	80	-	-	51	316
1987	5	6	1	71	2	1	92	410
1988	15	3	1	41	2	1	172	231
1989	21	45	1	32	5	8	271	571
1990	20	32	0	40	2	27	345	1,074
1991	16	23	0	59	5	18	449	1,318
1992	9	24	2	75	4	29	503	1,356
1993	6	35	4	86	7	32	694	1,450
1994	35	25	4	38	8	114	1,491	2,354
1995	38	39	1	32	7	42	1,349	3,234
1996	69	73	5	26	8	22	1,484	4,566
1997	61	142	3	72	18	115	1,366	3,914
1998	17	137	1	28	9	110	614	4,817
1999	23	69	4	80	10	28	1,106	3,405
2000	55	90	4	34	7	157	2,121	5,362
2001	87	21	4	27	7	18	2,187	5,402
2002	75	78	11	49	10	22	2,530	4,067
2003	58	92	5	27	4	30	2,828	4,816
2004	53	76	9	37	13	49	3,796	6,632
2005	82	155	17	132	19	132	4,449	7,322
2006	95	205	36	497	21	210	5,209	11,909
2007	108	521	90	512	32	242	5,689	22,741
2008	98	732	50	393	30	259	4,037	24,133
2009	59	427	58	634	33	631	2,470	20,786
2010	74	747	64	643	25	387	2,896	25,360
2011	77	1,870	69	644	28	412	2,754	29,326
2012	60	2,482	35	656	29	468	2,550	29,353
2013	80	3,538	34	836	30	343	2,834	30,797
2014	50	1,926	30	1,609	32	417	2,812	28,253
2015	38	1,094	37	2,404	35	196	2,995	29,854
2016	61	1,505	27	1,309	24	169	3,116	39,271
2017	60	1,079	39	819	21	530	3,221	44,346
2018	65	605	21	879	18	246	3,358	49,608
합계	1,716	18,054	720	12,953	538	5,493	72,431	449,004

각 지역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제조업	53.0	18.6	32.5	26.8	4.6	6.5	15.4
광업	6.3	13.8	6.5	32.9	55.8	37.8	64.4
금융보험업	12.0	22.1	16.6	15.3	8.0	0.6	2.3
도소매업	9.5	17.7	11.2	4.0	2.1	1.4	5.4
부동산업	6.3	13.1	15.6	1.1	10.0	3.1	0.7
정보통신업	2.8	4.6	2.9	0.9	0.0	0.1	2.0
건설업	2.1	1.0	1.9	3.2	1.1	36.4	1.4
운수창고업	1.8	1.1	2.4	4.4	7.4	0.7	0.2
전기가공업	1.7	1.5	3.0	2.3	1.8	12.9	1.6
기타	4.5	6.6	7.4	9.0	9.2	0.5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국가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미국	14,133	104,662	19.5	23.3	7.4
중국	26,496	64,093	36.6	14.3	2.4
케이만군도	409	27,433	0.6	6.1	67.1
홍콩	2,280	26,385	3.1	5.9	11.6
베트남	5,850	20,425	8.1	4.5	3.5
영국	431	15,221	0.6	3.4	35.3
오스트레일리아	719	14,593	1.0	3.2	20.3
네덜란드	219	12,012	0.3	2.7	54.8
캐나다	697	11,810	1.0	2.6	16.9
싱가포르	970	11,475	1.3	2.6	11.8
전체	72,431	449,004	100	100	6.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미국	5,877	21	6,880	23	13,599	35	15,136	34	10,793	22
중국	3,212	11	2,984	10	3,430	9	3,198	7	4,764	10
케이만군도	2,283	8	3,145	11	4,459	11	5,029	11	6,199	12
홍콩	629	2	1,928	6	1,588	4	3,354	8	3,482	7
베트남	1,659	6	1,593	5	2,373	6	1,971	4	3,161	6
영국	318	1	291	1	935	2	1,376	3	2,513	5
오스트레일리아	1,672	6	897	3	1,305	3	656	1	457	1
네덜란드	757	3	387	1	350	1	365	1	754	2
캐나다	1,137	4	570	2	1,307	3	368	1	518	1
싱가포르	970	3	1,445	5	1,171	3	1,043	2	1,559	3
합계	28,253	100	29,854	100	39,271	100	44,346	100	49,608	100

연도별 상위 5대 투자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케이만군도	중국
3	케이만군도	중국	중국	홍콩	케이만군도
4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베트남	중국	홍콩
5	베트남	베트남	홍콩	베트남	베트남

5. 투자자 기업규모별

투자자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대기업	10,305	355,322	14.2	79.1	34.5
중소기업	34,006	72,726	46.9	16.2	2.1
기타 ¹⁾	28,120	20,957	38.8	4.7	0.7
전체	72,431	449,004	100.0	100.0	6.2

투자자 규모 및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대기업	72.0	80.9	87.2	81.9	83.2	95.6	87.4
중소기업	23.6	13.6	11.1	10.7	8.7	3.9	10.2
기타	4.4	5.6	1.7	7.4	8.0	0.5	2.3

투자자 규모 및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제조업	33.2	44.0	35.0
광업	16.5	1.7	14.0
금융보험업	15.9	13.2	15.4
도소매업	12.0	7.4	11.2
부동산업	8.6	13.1	9.3
정보통신업	2.8	2.9	2.8
건설업	2.5	5.3	3.0
운수창고업	2.5	1.3	2.3
전기가스업	2.2	1.5	2.1
기타	4.0	9.5	4.9
전체	100.0	100.0	100.0

1) 기타는 개인, 개인기업, 집합투자자,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

6. 투자목적별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구 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법인수	투자금액	
현지시장진출	27,925	182,615	38.6	40.7	6.5
자원개발	3,368	72,903	4.6	16.2	21.6
제3국진출	1,703	71,352	2.4	15.9	41.9
수출촉진	15,755	58,062	21.8	12.9	3.7
선진기술도입	1,939	28,088	2.7	6.3	14.5
저임활용	10,813	19,522	14.9	4.3	1.8
보호무역타개	595	2,135	0.8	0.5	3.6
원자재확보	945	628	1.3	0.1	0.7
기타	9,388	13,699	13.0	3.1	1.5
합계	72,431	449,004	100.0	100.0	6.2

각 지역의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비중(2018년말 누적 기준)

(단위: %)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현지시장진출	48.6	43.7	35.4	22.1	20.5	60.6	15.2
자원개발	8.1	18.4	15.0	16.3	64.5	30.0	65.5
제3국진출	10.5	6.9	21.3	50.9	8.0	3.3	0.7
수출촉진	15.0	11.1	20.6	4.9	2.0	5.3	9.2
선진기술도입	2.6	17.0	4.3	0.9	0.3	0.4	0.0
저임활용	10.1	0.3	1.1	1.0	2.3	0.0	2.1
보호무역타개	4.0	2.3	2.0	3.5	2.0	0.4	7.2
원자재확보	0.9	0.3	0.2	0.2	0.1	0.1	0.1
기타	0.2	0.1	0.0	0.2	0.3	0.0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I. 2018 회계연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3,312	51.2	73,596	37.9
중국	1,475	22.8	38,047	19.6
ASEAN	1,325	20.5	24,542	12.6
베트남	716	11.1	10,326	5.3
인도네시아	232	3.6	4,617	2.4
싱가포르	80	1.2	2,761	1.4
말레이시아	53	0.8	2,101	1.1
필리핀	67	1.0	2,393	1.2
태국	72	1.1	1,250	0.6
캄보디아	69	1.1	617	0.3
그외	36	0.6	476	0.2
홍콩	108	1.7	1,979	1.0
일본	175	2.7	3,891	2.0
카자흐스탄	18	0.3	798	0.4
인도	101	1.6	2,414	1.2
그외	110	1.7	1,924	1.0
북미	858	13.3	59,179	30.5
미국	800	12.4	51,614	26.6
캐나다	58	0.9	7,565	3.9
유럽	440	6.8	26,301	13.5
EU	328	5.1	21,080	10.8
영국	51	0.8	5,139	2.6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독일	55	0.9	3,257	1.7
아일랜드	3	0.0	1,595	0.8
벨기에	10	0.2	1,974	1.0
체코	24	0.4	1,476	0.8
네덜란드	14	0.2	887	0.5
슬로바키아	30	0.5	879	0.5
폴란드	35	0.5	1,221	0.6
그외	106	1.6	4,651	2.4
러시아	53	0.8	2,028	1.0
노르웨이	41	0.6	2,163	1.1
그 외	18	0.3	1,030	0.5
중남미	258	4.0	11,370	5.9
브라질	58	0.9	4,424	2.3
멕시코	85	1.3	2,976	1.5
파나마	57	0.9	1,403	0.7
그 외	58	0.9	2,567	1.3
대양주	100	1.5	8,175	4.2
오스트레일리아	50	0.8	7,128	3.7
그 외	50	0.8	1,046	0.5
중동	64	1.0	6,708	3.5
사우디아라비아	23	0.4	3,653	1.9
아랍에미리트	21	0.3	1,545	0.8
그외	20	0.3	1,509	0.8
아프리카	40	0.6	1,735	0.9
전체	5,072	78.5	187,063	96.3
개도국	3,645	56.4	95,153	49.0
선진국	1,427	22.1	91,910	47.3
BRICs	1,694	26.2	47,128	24.2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2,931	57.8	76,704	41.0
전기전자	480	9.5	19,230	10.3
자동차	573	11.3	15,752	8.4
1차 금속	158	3.1	8,386	4.5
화학	258	5.1	7,348	3.9
기타기계	172	3.4	4,165	2.2
전기장비	151	3.0	3,754	2.0
운송장비	31	0.6	2,309	1.2
고무/플라스틱	139	2.7	1,722	0.9
식료품	93	1.8	2,003	1.1
의복	206	4.1	1,813	1.0
섬유	99	2.0	1,700	0.9
금속제품	144	2.8	1,453	0.8
기타제품	63	1.2	1,233	0.7
신발	95	1.9	1,045	0.6
기타	269	5.3	4,789	2.6
광업	125	2.5	30,228	16.2
도소매업	576	11.4	30,771	16.4
부동산업	473	9.3	12,015	6.4
정보통신업	203	4.0	5,874	3.1
건설업	122	2.4	6,477	3.5
전기가스업	52	1.0	2,926	1.6
전문과학기술업	136	2.7	13,178	7.0
운수창고업	99	2.0	2,717	1.5
기타	355	7.0	6,173	3.3
전체	5,072	100.0	187,063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현지법인수	법인수비중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기업	2,506	49.4	151,944	86.0
중소기업	2,139	42.2	30,252	11.3
기타	427	8.4	4,867	2.6
전체	5,072	100.0	187,063	100.0

2. 주요 경영성과 비율

가. 지역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아시아	3.2	1.9
중국	3.2	2.3
ASEAN	3.4	2.1
베트남	4.2	3.3
인도네시아	14.6	8.1
싱가포르	0.1	1.6
말레이시아	3.0	3.1
필리핀	△3.6	△53.0
태국	3.0	2.4
캄보디아	△5.6	△15.1
그 외	25.4	3.4
홍콩	0.8	0.7
일본	0.9	0.3
카자흐스탄	11.1	△23.3
인도	5.2	0.3
그 외	2.4	1.6
북미	1.5	△1.5
미국	1.5	△1.3
캐나다	2.0	△3.5
유럽	3.0	1.4
EU	2.6	1.4
영국	4.6	2.3
독일	0.7	0.5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아일랜드	4.2	△0.6
벨기에	10.0	3.8
체코	4.0	3.1
네덜란드	3.0	0.5
슬로바키아	4.7	3.4
폴란드	1.4	0.2
그 외	1.6	0.4
러시아	6.2	4.4
터키	4.0	△3.4
그 외	△2.3	△1.8
중남미	5.4	△0.5
브라질	14.0	4.9
멕시코	△0.8	△3.9
파나마	4.3	△0.1
그 외	△3.5	△9.1
대양주	5.5	1.5
오스트레일리아	5.4	1.5
그 외	6.8	1.6
중동	10.9	0.7
사우디아라비아	16.1	14.5
아랍에미리트	11.1	0.1
그 외	4.3	△9.7
아프리카	5.1	2.7
전체	3.1	1.1
개도국	3.7	1.7
선진국	2.0	△0.1
BRICs	4.4	2.5

나. 업종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제조업	3.4	1.7
전기전자	4.4	4.4
자동차	1.8	0.5
1차 금속	3.5	△0.9
화학	5.3	4.0
기타기계	3.5	1.5
전기장비	2.7	1.4
운송장비	△8.6	△70.2
고무/플라스틱	3.0	0.8
식품	4.0	△1.4
의복	0.4	△1.3
섬유	1.7	△1.0
금속제품	3.9	0.7
기타제품	7.8	5.8
신발	1.7	0.2
기타	4.0	0.2
광업	27.1	0.4
도소매업	1.1	1.0
부동산업	19.4	△34.6
정보통신업	△5.2	△7.5
건설업	11.5	7.7
전기가스업	17.0	△9.2
전문과학기술업	△10.3	△13.0
운수창고업	6.2	2.2
기타	1.1	△1.5
전체	3.1	1.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대기업	3.3	1.3
중소기업	0.4	△2.7
기타	6.4	3.1
전체	3.1	1.1

3. 매출 및 매입비중 현황

가. 지역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시아	52.2	32.2	15.5	41.5	42.6	15.9
중국	56.7	36.6	6.7	57.0	33.4	9.6
ASEAN	45.9	35.8	18.3	30.7	46.6	22.7
베트남	44.1	44.2	11.7	31.7	57.8	10.6
인도네시아	65.4	20.7	13.8	58.6	16.1	25.3
싱가포르	40.3	38.0	21.7	25.7	45.2	29.1
말레이시아	61.2	10.0	28.7	14.0	42.2	43.8
필리핀	48.0	20.9	31.1	35.9	50.1	13.9
태국	51.5	19.2	29.3	35.4	47.5	17.1
캄보디아	32.8	65.3	1.8	72.7	25.3	2.0
그 외	20.3	10.9	68.8	51.7	2.0	46.3
홍콩	52.0	9.3	38.8	31.4	51.1	17.5
일본	58.6	13.8	27.6	30.3	64.5	5.2
카자흐스탄	76.6	4.9	18.5	100.0	0.0	0.0
인도	90.5	3.7	5.8	79.9	18.9	1.2
그 외	45.2	4.1	50.7	15.5	71.5	13.0
북미	81.4	2.9	15.7	27.8	67.1	5.2
미국	80.6	2.8	16.6	29.2	66.3	4.5
캐나다	94.2	4.0	1.8	4.8	79.6	15.5
유럽	68.7	3.1	28.2	34.1	34.1	31.9
EU	66.9	3.6	29.5	33.9	32.7	33.4
영국	84.9	3.0	12.2	26.2	12.7	61.2
독일	52.1	0.8	47.1	16.3	57.7	26.0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아일랜드	76.5	8.5	15.0	81.0	13.4	5.6
벨기에	97.8	1.7	0.5	3.9	79.9	16.2
체코	86.9	0.2	13.0	71.7	21.7	6.7
네덜란드	99.0	0.0	1.0	12.0	23.8	64.1
슬로바키아	49.9	0.1	50.0	55.0	29.6	15.3
폴란드	49.4	31.7	18.8	27.4	18.3	54.3
그 외	74.5	2.1	23.4	27.4	20.4	52.2
러시아	92.5	0.2	7.2	29.1	52.9	18.0
터키	57.2	0.4	42.4	48.8	18.5	32.7
그 외	27.9	3.0	69.2	29.7	34.8	35.5
중남미	77.4	2.5	20.1	40.4	40.1	19.4
브라질	85.9	2.7	11.4	29.9	27.8	42.3
멕시코	76.3	0.4	23.3	47.1	40.3	12.6
파나마	66.6	2.1	31.3	0.1	83.2	16.8
그 외	53.2	10.3	36.5	52.2	38.9	8.8
대양주	92.0	4.9	3.1	28.2	70.6	1.2
오스트레일리아	96.2	0.8	3.0	25.5	73.9	0.6
그 외	34.4	62.0	3.6	74.4	14.6	11.0
중동	66.4	14.3	19.3	11.0	35.7	53.3
사우디아라비아	76.8	0.4	22.8	92.3	5.4	2.3
아랍에미리트	72.0	18.9	9.0	2.7	35.3	62.1
그 외	20.3	0.0	79.7	1.0	94.2	4.8
아프리카	55.0	4.7	40.3	26.3	71.6	2.0
전체	62.5	19.5	18.0	36.9	45.8	17.2
개도국	55.6	28.4	16.0	40.8	41.7	17.5
선진국	74.7	3.7	21.6	30.4	52.9	16.8
BRICs	63.2	29.6	7.2	54.8	34.2	11.0

나. 업종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제조업	56.3	26.4	17.3	45.2	40.4	14.4
전기전자	35.2	50.2	14.6	24.4	58.8	16.8
자동차	78.0	2.4	19.6	66.2	26.2	7.5
1차 금속	81.3	5.4	13.3	50.3	38.0	11.7
화학	75.3	3.9	20.8	55.6	22.6	21.8
기타기계	66.8	26.2	7.1	60.4	34.1	5.5
전기장비	47.8	26.6	25.6	31.1	45.9	23.0
운송장비	15.9	35.8	48.4	38.5	45.2	16.3
고무/플라스틱	68.4	9.6	22.0	50.1	36.8	13.1
식료품	82.8	2.8	14.4	76.0	8.4	15.6
의복	15.4	69.3	15.2	76.4	7.9	15.7
섬유	59.0	20.9	20.2	59.6	11.9	28.5
금속제품	76.7	15.4	7.9	68.2	23.5	8.2
기타제품	37.5	35.1	27.3	41.4	15.4	43.2
신발	16.1	69.9	13.9	51.6	29.3	19.1
기타	59.8	14.7	25.5	65.0	24.7	10.3
광업	76.4	13.3	10.3	88.1	11.6	0.3
도소매업	67.4	12.3	20.3	23.5	54.3	22.2
부동산업	96.3	0.1	3.6	98.6	0.5	0.9
전체	62.5	19.5	18.0	36.9	45.8	17.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매출비중			매입비중		
	현지매출	한국수출	제3국수출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대기업	61.9	19.7	18.4	35.6	46.8	17.6
중소기업	70.2	17.5	12.3	60.1	29.8	10.1
기타	77.8	4.6	17.7	67.0	12.9	20.1
전체	62.5	19.5	18.0	36.9	45.8	17.2

4. 주요 재무비율

가. 지역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아시아	114.8	21.0	134.4	5.0	0.6
중국	98.1	14.9	138.4	5.3	0.6
ASEAN	130.1	27.2	126.4	5.5	0.6
베트남	206.5	37.9	106.0	5.2	0.8
인도네시아	107.7	27.4	119.4	9.1	1.6
싱가포르	83.7	7.1	157.8	0.6	0.1
말레이시아	39.2	8.3	224.7	12.1	0.2
필리핀	1,833.2	47.4	48.9	△2.1	1.7
태국	56.6	11.8	261.2	10.2	0.3
캄보디아	739.3	55.8	106.7	△0.5	10.2
그외	129.9	41.7	112.9	1.5	16.9
홍콩	187.6	30.7	122.1	1.9	0.4
일본	143.5	35.5	152.0	2.3	0.4
카자흐스탄	△154.8	249.1	259.7	0.9	12.6
인도	150.6	26.6	130.9	2.8	1.9
그외	116.9	11.1	138.4	14.2	0.2
북미	122.8	21.4	118.6	1.4	1.1
미국	121.7	20.4	117.5	1.5	1.0
캐나다	135.5	31.6	141.7	1.1	1.7
유럽	142.4	17.8	141.0	5.5	0.5
EU	129.4	12.7	141.1	5.7	0.4
영국	155.8	11.9	140.6	3.6	1.3
독일	229.1	13.4	117.2	2.3	0.3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아일랜드	41.2	17.4	122.1	3.7	1.1
벨기에	45.9	18.7	131.4	11.9	0.8
체코	128.8	20.5	190.1	30.6	0.1
네덜란드	111.8	3.1	148.9	17.3	0.2
슬로바키아	96.4	7.5	189.1	102.4	0.0
폴란드	131.7	13.9	113.5	6.3	0.2
그 외	137.9	10.7	144.8	2.2	0.7
러시아	177.5	23.9	173.5	12.2	0.5
터키	313.7	50.4	100.4	2.1	1.9
그 외	61.1	23.4	228.0	△1.2	1.8
중남미	213.0	38.1	117.4	2.4	2.2
브라질	114.7	29.0	190.0	7.0	2.0
멕시코	1,417.0	50.9	76.8	△0.4	2.0
파나마	1,015.8	61.6	63.3	1.0	4.2
그 외	108.5	29.4	115.2	△1.2	3.0
대양주	159.6	44.5	140.2	2.4	2.2
오스트레일리아	142.2	39.9	146.8	2.6	2.1
그 외	275.5	64.3	113.8	1.6	4.3
중동	161.6	36.2	94.2	5.1	2.1
사우디아라비아	△798.7	73.8	92.3	1.9	8.7
아랍에미리트	189.1	23.3	110.3	31.9	0.3
그외	60.4	26.7	74.1	0.7	6.5
아프리카	708.6	42.5	113.0	2.7	1.9
전체	128.0	22.8	130.5	3.8	0.8
개도국	128.8	24.2	130.7	4.4	0.8
선진국	126.5	20.4	130.1	2.5	0.8
BRICs	103.6	17.0	142.6	5.6	0.8

나. 업종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제조업	113.3	22.9	136.3	4.6	0.7
전기전자	79.1	15.3	178.0	15.9	0.3
자동차	166.7	23.8	121.3	2.8	0.6
1차 금속	237.7	45.4	101.9	1.8	2.0
화학	69.3	23.4	148.6	6.3	0.8
기타기계	74.5	13.9	138.5	5.0	0.7
전기장비	115.2	17.3	137.7	3.0	0.9
운송장비	403.9	31.2	71.8	△3.6	2.4
고무/플라스틱	159.9	38.1	95.2	3.1	1.0
식료품	153.4	39.6	113.9	1.8	2.2
의복	137.8	21.0	112.4	0.6	0.7
섬유	138.8	33.7	105.6	0.9	1.9
금속제품	236.3	28.2	110.9	2.6	1.5
기타제품	94.6	25.9	167.3	7.1	1.1
신발	163.6	32.1	92.2	2.4	0.7
기타	70.0	17.1	148.2	3.4	1.2
광업	127.1	38.9	127.1	4.8	5.7
도소매업	158.8	5.9	124.0	5.5	0.2
부동산업	113.3	41.7	108.8	0.6	32.3
정보통신업	105.7	23.3	184.9	△7.8	0.7
건설업	1,465.6	58.8	104.4	2.4	4.8
전기가스업	111.0	45.3	91.0	1.9	8.9
전문과학기술업	52.5	12.1	157.2	△10.9	0.9
운수창고업	128.3	20.0	106.7	2.5	2.4
기타	211.9	47.9	111.7	0.8	1.5
전체	128.0	22.8	130.5	3.8	0.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부담률
대기업	128.1	22.4	131.3	4.2	0.8
중소기업	137.2	25.2	119.6	0.3	1.4
기타	95.2	32.5	151.6	2.1	3.0
전체	128.0	22.8	130.5	3.8	0.8

5.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아시아	4,999	70	2,149	7,218	73,596	9.8
중국	2,461	6	1,112	3,579	38,047	9.4
ASEAN	2,108	52	893	3,053	24,542	12.4
베트남	1,637	20	631	2,287	10,326	22.2
인도네시아	465	10	148	623	4,617	13.5
싱가포르	1,095	0	0	1,095	2,761	39.7
말레이시아	140	1	18	158	2,101	7.5
필리핀	△1,313	0	40	△1,272	2,393	△53.2
태국	124	0	56	179	1,250	14.4
캄보디아	△31	3	1	△28	617	△4.5
그외	△9	19	0	10	476	2.1
홍콩	95	2	18	115	1,979	5.8
일본	52	7	45	104	3,891	2.7
카자흐스탄	△49	0	0	△49	798	△6.2
인도	143	0	77	221	2,414	9.1
그외	190	2	3	196	1,924	10.2
북미	230	39	337	146	59,179	0.2
미국	△62	24	336	297	51,614	0.6
캐나다	△168	15	2	△151	7,565	△2.0
유럽	1,960	119	531	2,610	26,301	9.9
EU	1,417	111	376	1,905	21,080	9.0
영국	269	4	2	275	5,139	5.3
독일	123	16	1	141	3,257	4.3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아일랜드	△7	3	0	△4	1,595	△0.2
벨기에	56	0	0	57	1,974	2.9
체코	351	0	80	431	1,476	29.2
네덜란드	31	0	0	31	887	3.5
슬로바키아	401	0	259	660	879	75.1
폴란드	△22	0	8	△13	1,221	△1.1
그 외	214	87	26	327	4,651	7.0
러시아	463	1	120	584	2,028	28.8
터키	84	2	29	115	2,163	5.3
그 외	△4	4	6	7	1,030	0.6
중남미	△187	96	444	354	11,370	3.1
브라질	476	32	101	608	4,424	13.7
멕시코	△556	3	337	△217	2,976	△7.3
파나마	△6	62	6	62	1,403	4.4
그 외	△100	0	1	△99	2,567	△3.9
대양주	119	147	2	268	8,175	3.3
오스트레일리아	105	116	0	222	7,128	3.1
그 외	14	30	2	47	1,046	4.5
중동	164	37	0	201	6,708	3.0
사우디아라비아	78	37	0	114	3,653	3.1
아랍에미리트	△8	0	0	△8	1,545	△0.5
그외	94	0	0	94	1,509	6.2
아프리카	67	12	12	90	1,735	5.2
전체	6,892	519	3,476	10,887	187,063	5.8
개도국	5,552	246	2,717	8,515	95,153	8.9
선진국	1,339	273	759	2,372	91,910	2.6
BRICs	3,585	41	1,411	5,037	47,128	10.7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제조업	5,094	48	3,190	8,332	76,704	10.9
전기전자	5,023	16	1,216	6,255	19,230	32.5
자동차	503	5	1,443	1,952	15,752	12.4
1차 금속	△106	3	8	△96	8,386	△1.1
화학	507	2	53	561	7,348	7.6
기타기계	114	2	44	160	4,165	3.8
전기장비	368	1	252	621	3,754	16.5
운송장비	△1,406	1	22	△1,384	2,309	△59.9
고무/플라스틱	33	2	56	91	1,722	5.3
식료품	△16	1	16	2	2,003	0.1
의복	△47	5	1	△41	1,813	△2.3
섬유	△41	3	47	9	1,700	0.5
금속제품	67	3	21	91	1,453	6.3
기타제품	241	0	2	243	1,233	19.7
신발	13	2	0	15	1,045	1.4
기타	△159	3	9	△147	4,789	△3.1
광업	△212	133	0	△78	30,228	△0.3
도소매업	2,524	6	67	2,597	30,771	8.4
부동산업	△414	144	1	△269	12,015	△2.2
정보통신업	△314	0	66	△248	5,874	△4.2
건설업	190	49	105	344	6,477	5.3
전기가스업	183	18	3	205	2,926	7.0
전문과학기술업	△118	1	2	△115	13,178	△0.9
운수창고업	74	22	18	113	2,717	4.2
기타	△116	98	24	6	6,173	0.1
전체	6,892	519	3,476	10,887	187,063	5.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자 순이익(A)	대부이자 지급액(B)	로열티 지급액(C)	투자수익 (D=A+B+C)	투자잔액 (E)	투자수익률 (D/E)
대기업	7,625	276	3,261	11,163	151,944	7.3
중소기업	△647	143	207	△297	30,252	△1.0
기타	△86	99	9	21	4,867	0.4
전체	6,892	519	3,476	10,887	187,063	5.8

6. 수출입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아시아	73,596	122,804	113,054	166.9	153.6	13.2
중국	38,047	37,224	51,986	97.8	136.6	△38.8
ASEAN	24,542	63,371	57,148	258.2	232.9	25.4
베트남	10,326	24,548	23,997	237.7	232.4	5.3
인도네시아	4,617	1,915	3,833	41.5	83.0	△41.6
싱가포르	2,761	31,098	26,542	1,126.1	961.2	165.0
말레이시아	2,101	1,983	630	94.3	30.0	64.3
필리핀	2,393	1,082	541	45.2	22.6	22.6
태국	1,250	2,712	1,419	216.9	113.4	103.5
캄보디아	617	33	133	5.4	21.6	△16.2
그외	476	1	51	0.2	10.8	△10.6
홍콩	1,979	6,314	1,291	319.0	65.2	253.8
일본	3,891	6,573	1,731	168.9	44.5	124.4
카자흐스탄	798	0	10	0.0	1.3	△1.3
인도	2,414	1,304	376	54.0	15.6	38.4
그외	1,924	8,018	512	416.8	26.6	390.2
북미	59,179	62,952	3,283	106.4	5.5	100.8
미국	51,614	58,592	3,005	113.5	5.8	107.7
캐나다	7,565	4,360	278	57.6	3.7	54.0
유럽	26,301	31,204	3,372	118.6	12.8	105.8
EU	21,080	25,527	3,315	121.1	15.7	105.4
영국	5,139	745	258	14.5	5.0	9.5
독일	3,257	13,008	196	399.4	6.0	393.3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아일랜드	1,595	109	90	6.8	5.7	1.2
벨기에	1,974	699	25	35.4	1.3	34.1
체코	1,476	2,166	21	146.8	1.4	145.4
네덜란드	887	605	0	68.2	0.0	68.2
슬로바키아	879	3,583	12	407.6	1.3	406.3
폴란드	1,221	1,100	2,264	90.1	185.3	△95.3
그 외	4,651	3,512	449	75.5	9.6	65.9
러시아	2,028	4,784	22	235.9	1.1	234.8
터키	2,163	803	24	37.1	1.1	36.0
그 외	1,030	90	11	8.8	1.1	7.7
중남미	11,370	9,001	843	79.2	7.4	71.7
브라질	4,424	1,467	388	33.2	8.8	24.4
멕시코	2,976	5,169	61	173.7	2.0	171.7
파나마	1,403	1,290	40	91.9	2.8	89.1
그 외	2,567	1,075	355	41.9	13.8	28.0
대양주	8,175	4,317	376	52.8	4.6	48.2
오스트레일리아	7,128	4,266	54	59.8	0.8	59.1
그 외	1,046	50	322	4.8	30.8	△26.0
중동	6,708	2,567	1,553	38.3	23.1	15.1
사우디아라비아	3,653	37	6	1.0	0.2	0.8
아랍에미리트	1,545	2,160	1,547	139.7	100.1	39.6
그외	1,509	371	0	24.6	0.0	24.6
아프리카	1,735	1,403	117	80.9	6.8	74.1
전체	187,063	234,248	122,599	125.2	65.5	59.7
개도국	95,153	134,927	114,193	141.8	120.0	21.8
선진국	91,910	99,321	8,406	108.1	9.1	98.9
BRICs	47,128	45,767	52,772	97.1	112.0	△14.9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제조업	76,704	105,395	87,158	137.4	113.6	23.8
전기전자	19,230	58,602	61,694	304.7	320.8	△16.1
자동차	15,752	18,474	1,959	117.3	12.4	104.8
1차 금속	8,386	7,072	1,478	84.3	17.6	66.7
화학	7,348	3,544	764	48.2	10.4	37.8
기타기계	4,165	1,802	2,031	43.3	48.8	△5.5
전기장비	3,754	8,478	5,994	225.8	159.6	66.2
운송장비	2,309	705	747	30.5	32.4	△1.8
고무/플라스틱	1,722	1,070	413	62.2	24.0	38.2
식료품	2,003	206	111	10.3	5.5	4.7
의복	1,813	194	2,716	10.7	149.8	△139.1
섬유	1,700	287	763	16.9	44.9	△28.0
금속제품	1,453	1,652	1,690	113.6	116.3	△2.6
기타제품	1,233	468	1,603	38.0	130.0	△92.0
신발	1,045	1,139	3,793	109.0	362.9	△253.9
기타	4,789	1,701	1,401	35.5	29.2	6.3
광업	30,228	632	2,386	2.1	7.9	△5.8
도소매업	30,771	118,579	29,591	385.4	96.2	289.2
부동산업	12,015	1	2	0.0	0.0	0.0
전체	187,063	234,248	122,599	125.2	65.5	59.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A)	수출(B)	수입(C)	수출 유발효과 (D=B/A)	수입 유발효과 (E=C/A)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대기업	151,944	226,340	115,772	149.0	76.2	72.8
중소기업	30,252	7,618	6,636	25.2	21.9	3.2
기타	4,867	290	191	6.0	3.9	2.0
전체	187,063	234,248	122,599	125.2	65.5	59.7

Ⅲ. 최근 5년간 분석대상 현지법인 통계

1.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가. 지역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4			2015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2,929	67,144	45.2	3,085	72,631	43.7%
중국	1,524	33,774	22.7	1,564	37,743	22.7
ASEAN	958	20,631	13.9	1,056	21,660	13.0
그외	447	12,739	8.6	465	13,227	8.0
북미	597	34,674	23.3	676	39,895	24.0
미국	550	28,247	19.0	627	33,004	19.8
캐나다	47	6,427	4.3	49	6,891	4.1
유럽	372	22,907	15.4	402	24,125	14.5
EU	267	15,870	10.7	292	16,473	9.9
그외	105	7,038	4.7	110	7,652	4.6
중남미	199	10,188	6.9	259	11,716	7.0
기타	189	13,588	9.1	215	18,005	10.8
전체	4,286	148,501	100.0	4,637	166,372	100.0
개도국	3,223	86,689	58.4	3,464	97,317	58.5
선진국	1,063	61,812	41.6	1,173	69,055	41.5
BRICs	1,718	42,225	28.4	1,775	45,981	27.6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3,190	77,684	42.5	3,333	78,663	40.9	3,312	73,596	39.3
중국	1,564	39,506	21.6	1,564	39,532	20.6	1,475	38,047	20.3
ASEAN	1,163	24,783	13.6	1,289	26,191	13.6	1,325	24,542	13.1
그외	463	13,396	7.3	480	12,940	6.7	512	11,006	5.9
북미	696	47,124	25.8	745	51,623	26.9	858	59,179	31.6
미국	648	39,720	21.8	694	44,314	23.1	800	51,614	27.6
캐나다	48	7,404	4.1	51	7,309	3.8	58	7,565	4.0
유럽	403	24,518	13.4	439	28,919	15.0	440	26,301	14.1
EU	293	17,358	9.5	329	21,184	11.0	328	21,080	11.3
그외	110	7,161	3.9	110	7,735	4.0	112	5,221	2.8
중남미	283	13,122	7.2	257	13,263	6.9	258	11,370	6.1
기타	215	20,170	11.0	209	19,720	10.3	204	16,617	8.9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5,072	187,063	100.0
개도국	3,595	104,296	57.1	3,687	105,300	54.8	3,645	95,153	50.9
선진국	1,192	78,323	42.9	1,296	86,888	45.2	1,427	91,910	49.1
BRICs	1,779	47,822	26.2	1,764	48,452	25.2	1,694	47,128	25.2

나. 업종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4			2015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2,555	65,864	44.4	2,741	71,022	42.7
전기전자	462	15,861	10.7	465	16,842	10.1
자동차	456	10,732	7.2	537	12,352	7.4
1차금속	159	6,883	4.6	160	7,018	4.2
화학	205	5,083	3.4	227	5,865	3.5
기타기계	157	5,760	3.9	165	6,269	3.8
전기장비	142	3,534	2.4	140	3,383	2.0
운송장비	33	3,483	2.3	30	3,396	2.0
고무/플라스틱	114	2,263	1.5	132	3,323	2.0
식료품	97	2,208	1.5	108	2,282	1.4
의복	189	1,848	1.2	196	2,068	1.2
섬유	83	1,465	1.0	89	1,511	0.9
금속제품	139	1,424	1.0	141	1,333	0.8
기타제품	62	1,079	0.7	67	806	0.5
신발	76	768	0.5	78	815	0.5
기타	181	3,473	2.3	206	3,759	2.3
광업	177	33,603	22.6	170	36,743	22.1
도소매업	516	21,192	14.3	556	23,802	14.3
부동산업	152	4,426	3.0	187	7,637	4.6
정보통신업	145	2,417	1.6	168	2,974	1.8
건설업	118	3,319	2.2	117	4,183	2.5
전기가스업	63	4,207	2.8	66	4,333	2.6
전문과학기술업	93	3,583	2.4	105	2,265	1.4
운수창고업	111	2,303	1.6	108	2,609	1.6
기타	356	7,588	5.1	419	10,803	6.5
전체	4,286	148,501	100.0	4,637	166,372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제조업	2,833	76,101	41.7	3,015	78,254	40.7	2,931	76,704	41.0
전기전자	466	17,097	9.4	501	18,314	9.5	480	19,230	10.3
자동차	556	13,118	7.2	601	14,986	7.8	573	15,752	8.4
1차금속	164	7,761	4.2	163	7,502	3.9	158	8,386	4.5
화학	241	7,037	3.9	259	6,520	3.4	258	7,348	3.9
기타기계	161	6,277	3.4	179	5,326	2.8	172	4,165	2.2
전기장비	152	4,022	2.2	150	4,016	2.1	151	3,754	2.0
운송장비	31	3,761	2.1	32	3,754	2.0	31	2,309	1.2
고무/플라스틱	137	3,346	1.8	144	2,677	1.4	139	1,722	0.9
식료품	117	2,515	1.4	105	2,665	1.4	93	2,003	1.1
의복	192	1,917	1.0	214	2,050	1.1	206	1,813	1.0
섬유	92	1,427	0.8	97	1,731	0.9	99	1,700	0.9
금속제품	143	1,567	0.9	154	1,519	0.8	144	1,453	0.8
기타제품	68	1,369	0.7	72	1,365	0.7	63	1,233	0.7
신발	84	957	0.5	92	1,096	0.6	95	1,045	0.6
기타	229	3,928	2.2	252	4,732	2.5	269	4,789	2.6
광업	165	39,759	21.8	147	37,413	19.5	125	30,228	16.2
도소매업	586	28,611	15.7	556	34,361	17.9	576	30,771	16.4
부동산업	219	10,779	5.9	259	11,679	6.1	473	12,015	6.4
정보통신업	175	3,385	1.9	207	6,069	3.2	203	5,874	3.1
건설업	123	5,386	2.9	113	5,307	2.8	122	6,477	3.5
전기가스업	72	4,469	2.4	86	4,839	2.5	52	2,926	1.6
전문과학기술업	116	2,703	1.5	128	4,290	2.2	136	13,178	7.0
운수창고업	107	2,631	1.4	113	2,759	1.4	99	2,717	1.5
기타	391	8,795	4.8	359	7,217	3.8	355	6,173	3.3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5,072	187,063	10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4			2015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기업	2,373	129,490	87.2	2,501	143,677	86.4
중소기업	1,643	13,393	9.0	1,784	15,007	9.0
기타	270	5,618	3.8	352	7,688	4.6
전체	4,286	148,501	100.0	4,637	166,372	100.0

(단위: 개,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대기업	2,590	158,604	86.8	2,631	166,194	86.5	2,506	151,944	81.2
중소기업	1,878	18,218	10.0	2,033	20,499	10.7	2,139	30,252	16.2
기타	319	5,796	3.2	319	5,495	2.9	427	4,867	2.6
전체	4,787	182,619	100.0	4,983	192,189	100.0	5,072	187,063	100.0

2. 주요경영성과

(1) 매출액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401,380	355,931	335,389	374,652	350,753
중국	233,602	208,000	187,032	175,845	142,015
ASEAN	108,117	92,492	102,004	139,605	159,531
그외	59,661	55,438	46,353	59,201	49,207
북미	132,638	151,957	146,984	150,666	115,139
미국	126,039	145,657	140,860	143,858	108,244
캐나다	6,599	6,300	6,124	6,808	6,894
유럽	112,063	104,326	98,230	112,482	107,808
EU	91,044	89,740	82,666	93,580	91,205
그외	21,019	14,586	15,563	18,902	16,603
중남미	25,665	21,626	22,314	33,359	34,256
기타	26,940	24,627	21,877	21,025	20,945
전체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개도국	452,910	397,162	377,283	427,627	402,760
선진국	245,776	261,306	247,512	264,556	226,139
BRICs	275,192	239,275	213,041	219,182	178,109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66,372	335,437	323,734	355,047	330,419
전기전자	130,804	115,502	103,065	130,823	122,951
자동차	109,482	106,590	107,084	101,804	81,946
1차금속	21,345	18,468	18,002	23,514	27,250
화학	19,444	15,240	15,829	17,955	19,629
기타기계	9,909	8,738	8,145	7,492	7,760
전기장비	26,554	23,247	22,847	24,332	22,529
운송장비	3,602	3,912	4,033	3,479	2,090
고무/플라스틱	5,895	6,683	6,701	5,497	4,318
식료품	6,496	6,042	5,391	5,406	3,893
의복	4,497	4,778	4,112	4,636	3,919
섬유	3,634	3,182	3,141	3,729	3,659
금속제품	10,854	9,573	9,870	9,473	10,952
기타제품	3,568	2,509	4,178	3,629	4,564
신발	3,809	4,207	4,765	5,095	5,423
기타	6,478	6,766	6,569	8,182	9,535
광업	17,777	13,335	10,019	14,744	17,918
도소매업	267,776	268,187	258,048	282,538	240,637
부동산업	754	1,062	1,083	1,886	1,296
정보통신업	4,434	4,697	4,985	7,302	8,439
건설업	6,839	6,783	4,953	3,275	4,358
전기가스업	10,154	5,148	1,565	9,370	1,993
전문과학기술업	3,022	2,996	2,789	3,252	3,474
운수창고업	5,446	6,355	6,861	4,614	7,099
기타	16,112	14,468	10,755	10,155	13,269
전체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661,666	618,863	583,858	649,248	586,817
중소기업	33,105	33,635	36,854	39,617	37,877
기타	3,915	5,969	4,082	3,318	4,206
전체	698,686	658,467	624,794	692,183	628,900

(2)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4,401	13,563	12,603	14,092	11,072	3.6	3.8	3.8	3.8	3.2
중국	11,471	9,973	8,727	6,909	4,551	4.9	4.8	4.7	3.9	3.2
ASEAN	2,136	2,290	2,784	5,365	5,449	2.0	2.5	2.7	3.8	3.4
그외	794	1,300	1,092	1,819	1,072	1.3	2.3	2.4	3.1	2.2
북미	4,634	1,611	1,045	391	1,734	3.5	1.1	0.7	0.3	1.5
미국	4,409	1,792	1,078	107	1,599	3.5	1.2	0.8	0.1	1.5
캐나다	226	△181	△32	284	135	3.4	△2.9	△0.5	4.2	2.0
유럽	1,984	1,694	2,427	3,285	3,204	1.8	1.6	2.5	2.9	3.0
EU	1,335	1,572	2,067	2,506	2,339	1.5	1.8	2.5	2.7	2.6
그외	650	123	360	779	864	3.1	0.8	2.3	4.1	5.2
중남미	640	△1,102	△452	2,118	1,838	2.5	△5.1	△2.0	6.3	5.4
기타	1,772	△189	△18	1,197	1,722	6.6	△0.8	△0.1	5.7	8.2
전체	23,432	15,578	15,605	21,082	19,569	3.4	2.4	2.5	3.0	3.1
개도국	16,652	12,229	12,228	17,683	15,038	3.7	3.1	3.2	4.1	3.7
선진국	6,780	3,349	3,377	3,399	4,531	2.8	1.3	1.4	1.3	2.0
BRICs	13,089	10,965	10,018	10,748	7,767	4.8	4.6	4.7	4.9	4.4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5,524	12,628	12,833	13,863	11,216	4.2	3.8	4.0	3.9	3.4
전기전자	5,433	4,632	4,541	7,370	5,452	4.2	4.0	4.4	5.6	4.4
자동차	7,607	4,677	4,376	1,779	1,436	6.9	4.4	4.1	1.7	1.8
1차금속	266	△125	183	399	960	1.2	△0.7	1.0	1.7	3.5
화학	△785	954	1,060	1,462	1,042	△4.0	6.3	6.7	8.1	5.3
기타기계	407	319	504	238	268	4.1	3.7	6.2	3.2	3.5
전기장비	793	545	764	674	613	3.0	2.3	3.3	2.8	2.7
운송장비	△299	△32	△435	△28	△180	△8.3	△0.8	△10.8	△0.8	△8.6
고무/플라스틱	470	433	560	204	132	8.0	6.5	8.4	3.7	3.0
식료품	301	325	351	240	157	4.6	5.4	6.5	4.4	4.0
의복	109	172	20	33	16	2.4	3.6	0.5	0.7	0.4
섬유	176	156	119	163	64	4.8	4.9	3.8	4.4	1.7
금속제품	285	210	165	474	426	2.6	2.2	1.7	5.0	3.9
기타제품	256	154	277	300	357	7.2	6.1	6.6	8.3	7.8
신발	95	116	120	160	94	2.5	2.8	2.5	3.1	1.7
기타	410	90	230	393	377	6.3	1.3	3.5	4.8	4.0
광업	1,003	△1,307	△272	3,540	4,847	5.6	△9.8	△2.7	24.0	27.1
도소매업	2,787	2,881	2,060	1,033	2,617	1.0	1.1	0.8	0.4	1.1
부동산업	177	322	337	494	252	23.5	30.3	31.1	26.2	19.4
정보통신업	160	△116	△165	△23	△437	3.6	△2.5	△3.3	△0.3	△5.2
건설업	△1,184	△482	△104	130	503	△17.3	△7.1	△2.1	4.0	11.5
전기가스업	3,999	881	353	1,566	338	39.4	17.1	22.5	16.7	17.0
전문과학기술업	81	△10	△108	△183	△356	2.7	△0.3	△3.9	△5.6	△10.3
운수창고업	296	570	482	494	438	5.4	9.0	7.0	10.7	6.2
기타	589	211	189	168	152	3.7	1.5	1.8	1.7	1.1
전체	23,432	15,578	15,605	21,082	19,569	3.4	2.4	2.5	3.0	3.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22,509	14,982	14,598	20,305	19,160	3.4	2.4	2.5	3.1	3.3
중소기업	584	326	737	726	140	1.8	1.0	2.0	1.8	0.4
기타	339	270	271	51	270	8.7	4.5	6.6	1.5	6.4
전체	23,432	15,578	15,605	21,082	19,569	3.4	2.4	2.5	3.0	3.1

(3)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1,496	6,244	9,576	10,978	6,838	2.9	1.8	2.9	2.9	1.9
중국	8,466	5,634	7,418	5,131	3,201	3.6	2.7	4.0	2.9	2.3
ASEAN	1,322	770	2,056	4,770	3,334	1.2	0.8	2.0	3.4	2.1
그외	1,708	△160	101	1,077	303	2.9	△0.3	0.2	1.8	0.6
북미	1,646	△6,238	△201	△322	△1,676	1.2	△4.1	△0.1	△0.2	△1.5
미국	2,129	△4,495	19	△332	△1,436	1.7	△3.1	0.0	△0.2	△1.3
캐나다	△483	△1,742	△220	10	△240	△7.3	△27.7	△3.6	0.1	△3.5
유럽	△77	944	1,904	2,639	1,529	△0.1	0.9	1.9	2.3	1.4
EU	519	1,237	1,214	2,116	1,279	0.6	1.4	1.5	2.3	1.4
그외	△595	△293	689	523	250	△2.8	△2.0	4.4	2.8	1.5
중남미	△493	△1,654	△663	1,119	△185	△1.9	△7.6	△3.0	3.4	△0.5
기타	48	△3,681	△2,060	△1,639	256	0.2	△14.9	△9.4	△7.8	1.2
전체	12,620	△4,384	8,555	12,774	6,763	1.8	△0.7	1.4	1.8	1.1
개도국	8,435	5,709	9,040	7,534	4,423	3.1	2.4	4.2	3.4	2.5
선진국	10,826	1,028	7,977	12,180	7,047	2.4	0.3	2.1	2.8	1.7
BRICs	1,794	△5,412	577	595	△284	0.7	△2.1	0.2	0.2	△0.1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1,284	4,846	10,087	10,937	5,581	3.1	1.4	3.1	3.1	1.7
전기전자	4,661	3,017	5,336	7,374	5,382	3.6	2.6	5.2	5.6	4.4
자동차	5,260	3,066	3,194	1,153	422	4.8	2.9	3.0	1.1	0.5
1차금속	△263	△1,667	17	△305	△243	△1.2	△9.0	0.1	△1.3	△0.9
화학	1,109	521	739	1,142	793	5.7	3.4	4.7	6.4	4.0
기타기계	△156	△292	245	62	119	△1.6	△3.3	3.0	0.8	1.5
전기장비	417	118	489	424	313	1.6	0.5	2.1	1.7	1.4
운송장비	△713	△272	△790	16	△1,468	△19.8	△7.0	△19.6	0.5	△70.2
고무/플라스틱	296	193	358	152	34	5.0	2.9	5.3	2.8	0.8
식료품	62	63	173	68	△54	1.0	1.0	3.2	1.3	△1.4
의복	33	87	△14	△28	△49	0.7	1.8	△0.3	△0.6	△1.3
섬유	95	43	63	101	△37	2.6	1.3	2.0	2.7	△1.0
금속제품	149	20	△40	277	73	1.4	0.2	△0.4	2.9	0.7
기타제품	138	101	130	193	264	3.9	4.0	3.1	5.3	5.8
신발	48	33	88	94	12	1.3	0.8	1.8	1.8	0.2
기타	148	△182	101	215	20	2.3	△2.7	1.5	2.6	0.2
광업	△1,406	△10,758	△3,266	△695	79	△7.9	△80.7	△32.6	△4.7	0.4
도소매업	1,955	1,905	1,843	1,632	2,526	0.7	0.7	0.7	0.6	1.0
부동산업	△43	211	131	213	△448	△5.8	19.9	12.1	11.3	△34.6
정보통신업	△56	△437	△221	△298	△631	△1.3	△9.3	△4.4	△4.1	△7.5
건설업	△1,607	△903	△513	△106	333	△23.5	△13.3	△10.4	△3.2	7.7
전기가스업	2,545	632	270	1,081	△183	25.1	12.3	17.3	11.5	△9.2
전문과학기술업	△128	97	157	△178	△451	△4.2	3.2	5.6	△5.5	△13.0
운수창고업	△9	270	192	246	156	△0.2	4.2	2.8	5.3	2.2
기타	85	△247	△126	△58	△198	0.5	△1.7	△1.2	△0.6	△1.5
전체	12,620	△4,384	8,555	12,774	6,763	1.8	△0.7	1.4	1.8	1.1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12,661	△3,447	7,588	12,691	7,663	1.9	△0.6	1.3	2.0	1.3
중소기업	△124	△690	1,179	215	△1,029	△0.4	△2.1	3.2	0.5	△2.7
기타	83	△247	△212	△131	130	2.1	△4.1	△5.2	△4.0	3.1
전체	12,620	△4,384	8,555	12,774	6,763	1.8	△0.7	1.4	1.8	1.1

3. 매출현황

가. 지역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59.5	58.4	58.5	55.1	52.2	25.6	26.3	27.4	30.2	32.2	14.9	15.4	14.0	14.7	15.5
중국	64.9	61.6	63.7	59.4	56.7	29.2	32.2	31.1	35.5	36.6	5.9	6.2	5.1	5.1	6.7
ASEAN	51.8	50.4	48.7	46.0	45.9	25.9	23.2	29.1	33.5	35.8	22.2	26.4	22.3	20.5	18.3
그외	51.8	59.6	59.3	64.1	60.0	11.2	9.1	9.0	6.7	8.0	37.0	31.3	31.7	29.2	32.0
북미	84.2	87.5	88.5	85.0	81.4	2.3	1.8	1.5	1.7	2.9	13.5	10.7	10.0	13.3	15.7
미국	83.5	87.2	88.2	84.6	80.6	2.3	1.8	1.5	1.6	2.8	14.2	11.0	10.3	13.8	16.6
캐나다	96.2	94.1	93.1	94.1	94.2	2.2	1.9	2.2	3.9	4.0	1.6	4.0	4.7	2.0	1.8
유럽	63.5	59.4	59.1	61.3	68.7	2.3	2.7	2.5	2.9	3.1	34.2	38.0	38.4	35.8	28.2
EU	58.8	57.3	55.1	57.1	66.9	2.8	3.0	2.9	3.4	3.6	38.4	39.7	42.0	39.5	29.5
그외	83.7	72.1	80.4	82.4	78.6	0.2	0.3	0.3	0.3	0.3	16.1	27.6	19.3	17.3	21.0
중남미	90.2	90.6	84.2	79.4	77.4	1.6	1.6	2.7	3.6	2.5	8.2	7.9	13.1	17.0	20.1
기타	72.3	74.0	74.9	75.6	74.3	7.9	8.3	7.4	8.4	9.8	19.7	17.8	17.7	16.0	15.9
전체	66.4	66.9	67.2	64.4	62.5	15.9	15.4	15.8	17.6	19.5	17.7	17.7	17.0	18.0	18.0
개도국	63.0	61.1	61.3	58.4	55.6	22.9	23.8	24.6	26.7	28.4	14.1	15.0	14.1	14.9	16.0
선진국	72.8	75.7	76.1	74.2	74.7	3.0	2.5	2.5	2.8	3.7	24.2	21.8	21.4	22.9	21.6
BRICs	69.3	65.1	66.9	65.4	63.2	24.9	28.1	27.6	28.8	29.6	5.8	6.8	5.5	5.8	7.2

나. 업종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62.0	60.1	60.9	56.7	56.3	22.9	23.8	23.9	26.5	26.4	15.1	16.0	15.2	16.8	17.3
전기전자	38.6	34.5	35.0	34.5	35.2	46.5	50.1	53.2	52.3	50.2	14.8	15.5	11.8	13.2	14.6
자동차	83.2	82.6	81.6	76.2	78.0	1.7	1.6	1.6	1.8	2.4	15.0	15.8	16.7	22.0	19.6
1차금속	84.7	86.4	87.8	82.3	81.3	6.4	6.3	4.5	6.9	5.4	8.9	7.2	7.7	10.8	13.3
화학	79.9	79.6	78.3	79.1	75.3	3.0	4.3	3.5	4.1	3.9	17.1	16.2	18.2	16.8	20.8
기타기계	76.2	77.1	76.9	69.7	66.8	18.0	18.5	18.5	24.7	26.2	5.8	4.3	4.5	5.6	7.1
전기장비	58.7	56.9	58.8	55.7	47.8	23.5	24.1	27.6	29.6	26.6	17.9	19.0	13.6	14.7	25.6
운송장비	38.6	7.0	16.9	20.8	15.9	29.9	21.6	22.8	18.4	35.8	31.5	71.4	60.3	60.8	48.4
고무/플라스틱	59.9	65.6	64.8	67.5	68.4	8.3	6.3	4.8	7.7	9.6	31.7	28.1	30.3	24.8	22.0
식료품	81.3	78.5	82.0	74.2	82.8	3.7	3.9	3.4	4.1	2.8	15.0	17.6	14.6	21.8	14.4
의복	38.2	37.2	28.2	26.9	15.4	50.4	51.4	59.8	60.7	69.3	11.5	11.4	12.0	12.4	15.2
섬유	63.3	56.0	56.7	58.2	59.0	22.0	23.7	23.1	21.0	20.9	14.6	20.3	20.2	20.7	20.2
금속제품	70.4	69.6	63.4	69.8	76.7	18.7	18.6	16.6	19.6	15.4	10.9	11.8	20.1	10.6	7.9
기타제품	73.1	55.7	53.3	50.3	37.5	9.1	21.7	14.5	16.9	35.1	17.8	22.6	32.2	32.8	27.3
신발	19.2	17.6	17.3	17.1	16.1	69.2	72.1	74.0	72.3	69.9	11.6	10.2	8.8	10.6	13.9
기타	57.6	60.2	62.4	61.7	59.8	18.5	18.4	17.1	16.3	14.7	23.9	21.4	20.5	22.1	25.5
광업	81.4	67.8	70.5	74.3	76.4	5.9	15.6	17.9	13.0	13.3	12.7	16.7	11.6	12.7	10.3
도소매업	70.3	73.2	73.5	70.8	67.4	7.9	6.2	6.8	8.2	12.3	21.8	20.6	19.7	21.1	20.3
부동산업	98.6	92.1	94.5	96.8	96.3	0.0	0.0	0.0	0.0	0.1	1.4	7.8	5.5	3.2	3.6
전체	66.4	66.9	67.2	64.4	62.5	15.9	15.4	15.8	17.6	19.5	17.7	17.7	17.0	18.0	18.0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현지매출비중					한국수출비중					제3국수출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66.2	66.6	66.8	63.9	61.9	15.7	15.2	15.8	17.6	19.7	18.1	18.2	17.4	18.5	18.4
중소기업	69.9	70.3	72.6	72.8	70.2	21.0	20.1	16.0	17.9	17.5	9.1	9.6	11.3	9.3	12.3
기타	75.8	80.6	75.5	61.7	77.8	10.0	8.1	11.3	13.0	4.6	14.2	11.3	13.2	25.2	17.7
전체	66.4	66.9	67.2	64.4	62.5	15.9	15.4	15.8	17.6	19.5	17.7	17.7	17.0	18.0	18.0

4. 매입현황

가. 지역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49.6	45.9	48.4	44.1	41.5	34.4	37.4	36.3	41.1	42.6	16.0	16.7	15.3	14.8	15.9
중국	60.6	56.0	60.3	58.8	57.0	28.3	30.1	29.1	30.9	33.4	11.1	13.9	10.6	10.3	9.6
ASEAN	38.1	35.2	36.1	30.5	30.7	38.2	41.9	40.6	47.1	46.6	23.6	22.9	23.3	22.5	22.7
그외	28.4	30.4	30.5	35.2	34.9	51.2	54.1	54.2	55.4	54.6	20.4	15.5	15.4	9.4	10.4
북미	41.6	36.4	31.3	26.8	27.8	50.2	54.8	60.8	68.0	67.1	8.2	8.8	7.9	5.1	5.2
미국	42.9	37.7	32.5	27.7	29.2	49.6	54.5	60.2	67.6	66.3	7.4	7.9	7.3	4.7	4.5
캐나다	10.0	6.8	3.9	8.2	4.8	63.9	62.5	75.7	77.1	79.6	26.1	30.7	20.4	14.6	15.5
유럽	28.1	28.9	29.2	30.6	34.1	33.5	30.8	32.1	33.6	34.1	38.4	40.3	38.7	35.8	31.9
EU	25.9	27.9	26.9	28.4	33.9	33.8	31.5	31.6	33.2	32.7	40.3	40.6	41.5	38.4	33.4
그외	37.9	35.3	41.5	41.9	35.4	31.9	26.5	35.2	35.6	41.6	30.2	38.2	23.3	22.5	23.0
중남미	27.1	31.5	39.6	34.9	40.4	50.9	39.9	41.5	44.9	40.1	22.0	28.5	18.9	20.2	19.4
기타	22.8	22.1	31.3	20.1	19.9	36.3	38.8	46.7	56.4	54.3	40.9	39.0	22.0	23.5	25.9
전체	42.8	39.5	40.3	36.9	36.9	38.0	40.6	42.0	46.4	45.8	19.3	20.0	17.7	16.7	17.2
개도국	47.7	44.5	47.6	43.2	40.8	33.8	35.9	35.9	40.5	41.7	18.4	19.6	16.5	16.3	17.5
선진국	34.1	32.5	29.6	27.4	30.4	45.1	47.0	50.8	55.3	52.9	20.7	20.5	19.6	17.4	16.8
BRICs	57.8	54.3	58.1	57.2	54.8	29.9	30.9	30.5	31.7	34.2	12.3	14.7	11.4	11.1	11.0

나. 업종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51.1	47.1	51.1	46.6	45.2	32.4	34.3	33.5	38.5	40.4	16.5	18.6	15.4	14.9	14.4
전기전자	30.6	28.7	28.5	24.3	24.4	45.0	43.5	48.1	56.2	58.8	24.5	27.8	23.4	19.5	16.8
자동차	72.3	67.0	72.2	67.7	66.2	22.1	25.9	22.8	24.3	26.2	5.6	7.1	5.0	8.0	7.5
1차금속	53.7	50.8	51.4	53.5	50.3	33.3	34.8	34.8	34.3	38.0	13.0	14.4	13.8	12.2	11.7
화학	63.6	52.4	52.4	55.9	55.6	23.5	25.2	23.0	25.0	22.6	12.9	22.4	24.6	19.1	21.8
기타기계	66.9	73.0	74.2	61.7	60.4	25.9	22.6	20.8	32.8	34.1	7.2	4.4	5.0	5.5	5.5
전기장비	45.4	41.2	39.9	44.6	31.1	29.8	42.0	43.3	39.4	45.9	24.9	16.9	16.7	16.1	23.0
운송장비	47.8	14.8	58.0	34.6	38.5	45.7	39.4	27.4	48.1	45.2	6.5	45.8	14.6	17.3	16.3
고무/플라스틱	33.8	33.9	37.0	40.8	50.1	27.6	36.6	33.6	46.9	36.8	38.6	29.5	29.4	12.3	13.1
식료품	81.0	75.0	73.9	71.2	76.0	4.6	5.8	7.2	7.8	8.4	14.4	19.2	18.9	20.9	15.6
의복	39.5	49.9	49.2	60.6	76.4	23.8	15.7	15.2	10.4	7.9	36.7	34.3	35.5	29.1	15.7
섬유	56.4	59.6	62.0	59.9	59.6	19.3	14.9	11.4	12.6	11.9	24.3	25.5	26.7	27.5	28.5
금속제품	56.7	58.6	65.1	61.1	68.2	28.9	31.6	27.1	31.8	23.5	14.4	9.8	7.8	7.1	8.2
기타제품	70.1	52.7	52.9	52.5	41.4	10.2	29.0	19.1	13.4	15.4	19.6	18.3	28.0	34.0	43.2
신발	40.8	52.9	54.2	53.5	51.6	38.7	31.7	30.1	32.0	29.3	20.5	15.3	15.7	14.5	19.1
기타	64.3	68.4	55.2	55.9	65.0	24.0	21.8	21.6	23.7	24.7	11.7	9.8	23.2	20.4	10.3
광업	92.0	90.7	91.1	90.1	88.1	6.8	8.3	8.7	9.5	11.6	1.2	1.0	0.2	0.3	0.3
도소매업	29.1	28.2	25.0	21.7	23.5	47.5	49.3	53.6	58.1	54.3	23.4	22.6	21.4	20.3	22.2
부동산업	100.0	96.7	98.2	99.1	98.6	0.0	0.5	0.0	0.0	0.5	0.0	2.7	1.8	0.9	0.9
전체	42.8	39.5	40.3	36.9	36.9	38.0	40.6	42.0	46.4	45.8	19.3	20.0	17.7	16.7	17.2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현지매입비중					한국수입비중					제3국수입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42.1	38.4	38.8	35.7	35.6	38.1	41.0	42.9	47.3	46.8	19.8	20.6	18.2	17.1	17.6
중소기업	57.5	59.6	64.9	61.4	60.1	35.3	32.7	25.6	30.0	29.8	7.2	7.6	9.5	8.6	10.1
기타	66.3	73.8	72.5	53.0	67.0	17.7	18.6	17.7	18.5	12.9	16.0	7.6	9.7	28.5	20.1
전체	42.8	39.5	40.3	36.9	36.9	38.0	40.6	42.0	46.4	45.8	19.3	20.0	17.7	16.7	17.2

5.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1) 수출액 및 수입액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10,016	101,433	96,939	124,109	122,804	102,687	93,458	92,024	113,141	113,054
중국	51,578	45,124	42,020	42,322	37,224	68,027	66,891	58,233	62,452	51,986
ASEAN	35,346	32,115	34,143	54,628	63,371	28,013	21,498	29,640	46,725	57,148
그외	23,092	24,194	20,776	27,159	22,210	6,647	5,068	4,151	3,964	3,921
북미	56,205	68,145	73,077	85,032	62,952	3,054	2,764	2,218	2,554	3,283
미국	53,318	64,987	69,315	80,899	58,592	2,908	2,642	2,085	2,291	3,005
캐나다	2,887	3,157	3,763	4,133	4,360	146	123	133	263	278
유럽	31,891	27,658	26,792	32,383	31,204	2,575	2,773	2,420	3,254	3,372
EU	26,251	24,423	22,299	26,654	25,527	2,530	2,735	2,374	3,195	3,315
그외	5,640	3,235	4,493	5,730	5,677	46	38	47	59	57
중남미	9,172	6,368	7,304	9,957	9,001	406	337	610	1,190	843
기타	6,804	6,762	7,922	8,520	8,286	2,139	2,035	1,611	1,757	2,046
전체	214,089	210,366	212,034	260,002	234,248	110,861	101,367	98,883	121,895	122,599
개도국	121,046	108,169	107,813	137,620	134,927	103,440	94,705	92,666	114,358	114,193
선진국	93,043	102,196	104,221	122,382	99,321	7,421	6,661	6,217	7,536	8,406
BRICs	64,079	54,011	49,720	52,373	45,767	68,454	67,329	58,698	63,157	52,772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93,817	87,366	84,163	107,091	105,395	83,783	79,894	77,291	94,113	87,158
전기전자	48,563	42,445	41,063	59,581	58,602	60,862	57,838	54,864	68,466	61,694
자동차	19,563	19,011	20,047	21,197	18,474	1,909	1,701	1,748	1,864	1,959
1차금속	5,065	4,520	4,088	5,380	7,072	1,360	1,170	807	1,630	1,478
화학	3,788	3,083	2,654	3,429	3,544	593	653	555	736	764
기타기계	1,959	1,474	1,155	1,666	1,802	1,788	1,618	1,507	1,854	2,031
전기장비	6,699	8,475	8,191	7,919	8,478	6,224	5,595	6,312	7,201	5,994
운송장비	1,433	1,130	863	1,212	705	1,078	846	919	640	747
고무/플라스틱	1,107	1,693	1,500	1,611	1,070	491	421	324	421	413
식료품	153	209	192	226	206	240	238	181	220	111
의복	579	441	401	318	194	2,266	2,457	2,460	2,812	2,716
섬유	412	313	190	241	287	791	753	726	784	763
금속제품	2,360	2,336	1,513	1,589	1,652	2,029	1,782	1,636	1,860	1,690
기타제품	221	496	488	310	468	324	544	606	613	1,603
신발	963	866	924	1,081	1,139	2,635	3,035	3,524	3,684	3,793
기타	951	874	893	1,331	1,701	1,195	1,243	1,122	1,330	1,401
광업	400	382	367	444	632	1,057	2,074	1,793	1,918	2,386
도소매업	114,802	116,313	122,398	146,559	118,579	21,118	16,624	17,589	23,087	29,591
부동산업	0	1	0	0	1	0	0	0	0	2
전체	214,089	210,366	212,034	260,002	234,248	110,861	101,367	98,883	121,895	122,599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205,792	202,440	205,112	251,718	226,340	103,554	94,124	92,523	114,365	115,772
중소기업	7,959	7,489	6,569	7,987	7,618	6,919	6,761	5,898	7,098	6,636
기타	337	437	352	296	290	389	482	462	432	191
전체	214,089	210,366	212,034	260,002	234,248	110,861	101,367	98,883	121,895	122,599

(2)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7,329	7,974	4,916	10,968	9,750	10.9	11.0	6.3	13.9	13.2
중국	△16,449	△21,768	△16,213	△20,130	△14,762	△48.7	△57.7	△41.0	△50.9	△38.8
ASEAN	7,333	10,617	4,503	7,903	6,223	35.5	49.0	18.2	30.2	25.4
그외	16,445	19,125	16,625	23,195	18,289	129.1	144.6	124.1	179.3	166.2
북미	53,152	65,381	70,859	82,478	59,669	153.3	163.9	150.4	159.8	100.8
미국	50,410	62,346	67,230	78,608	55,587	178.5	188.9	169.3	177.4	107.7
캐나다	2,741	3,035	3,630	3,870	4,082	42.7	44.0	49.0	53.0	54.0
유럽	29,316	24,885	24,372	29,130	27,832	128.0	103.2	99.4	100.7	105.8
EU	23,721	21,688	19,925	23,459	22,213	149.5	131.7	114.8	110.7	105.4
그외	5,595	3,197	4,446	5,671	5,620	79.5	41.8	62.1	73.3	107.6
중남미	8,766	6,031	6,694	8,767	8,158	86.0	51.5	51.0	66.1	71.7
기타	4,665	4,727	6,310	6,763	6,240	34.3	26.3	31.3	34.3	37.6
전체	103,228	108,999	113,151	138,107	111,649	69.5	65.5	62.0	71.9	59.7
개도국	17,606	13,464	15,147	23,261	20,735	20.3	13.8	14.5	22.1	21.8
선진국	85,622	95,535	98,004	114,845	90,915	138.5	138.3	125.1	132.2	98.9
BRICs	△4,376	△13,317	△8,978	△10,784	△7,004	△10.4	△29.0	△18.8	△22.3	△14.9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0,034	7,472	6,872	12,979	18,237	15.2	10.5	9.0	16.6	23.8
전기전자	△12,299	△15,393	△13,802	△8,884	△3,092	△77.5	△91.4	△80.7	△48.5	△16.1
자동차	17,654	17,310	18,299	19,333	16,515	164.5	140.1	139.5	129.0	104.8
1차금속	3,705	3,350	3,281	3,749	5,594	53.8	47.7	42.3	50.0	66.7
화학	3,195	2,430	2,099	2,693	2,780	62.9	41.4	29.8	41.3	37.8
기타기계	172	△144	△352	△188	△229	3.0	△2.3	△5.6	△3.5	△5.5
전기장비	475	2,880	1,879	718	2,484	13.5	85.2	46.7	17.9	66.2
운송장비	354	284	△56	572	△42	10.2	8.4	△1.5	15.2	△1.8
고무/플라스틱	616	1,272	1,177	1,191	657	27.2	38.3	35.2	44.5	38.2
식료품	△86	△28	11	7	95	△3.9	△1.2	0.4	0.3	4.7
의복	△1,687	△2,016	△2,059	△2,494	△2,522	△91.3	△97.5	△107.4	△121.6	△139.1
섬유	△379	△440	△536	△543	△477	△25.9	△29.2	△37.6	△31.4	△28.0
금속제품	331	553	△123	△270	△38	23.2	41.5	△7.8	△17.8	△2.6
기타제품	△103	△48	△118	△303	△1,134	△9.5	△6.0	△8.6	△22.2	△92.0
신발	△1,672	△2,169	△2,601	△2,603	△2,654	△217.8	△265.9	△271.7	△237.5	△253.9
기타	△244	△369	△229	1	300	△7.0	△9.8	△5.8	0.0	6.3
광업	△658	△1,693	△1,426	△1,474	△1,754	△2.0	△4.6	△3.6	△3.9	△5.8
도소매업	93,684	99,690	104,808	123,471	88,988	442.1	418.8	366.3	359.3	289.2
부동산업	0	0	0	0	△1	0.0	0.0	0.0	0.0	0.0
전체	103,228	108,999	113,151	138,107	111,649	69.5	65.5	62.0	71.9	59.7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수출					무역수지 개선효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102,238	108,316	112,589	137,353	110,569	79.0	75.4	71.0	82.6	72.8
중소기업	1,041	728	672	890	982	7.8	4.9	3.7	4.3	3.2
기타	△51	△45	△110	△136	98	△0.9	△0.6	△1.9	△2.5	2.0
전체	103,228	108,999	113,151	138,107	111,649	69.5	65.5	62.0	71.9	59.7

6. 주요재무비율

(1)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가. 지역별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36.1	133.1	131.6	124.7	114.8	23.9	25.9	25.0	22.0	21.0
중국	127.7	119.1	115.5	104.0	98.1	20.5	22.1	20.5	15.4	14.9
ASEAN	156.8	152.3	158.8	161.0	130.1	31.9	34.0	33.4	32.4	27.2
그외	136.3	179.1	153.2	148.4	162.9	23.2	27.7	24.9	24.6	30.3
북미	207.7	240.7	196.2	176.3	122.8	36.6	40.8	36.4	34.8	21.4
미국	222.6	247.7	202.7	179.9	121.7	37.5	40.9	36.8	35.1	20.4
캐나다	100.3	165.4	116.6	127.7	135.5	26.9	38.9	30.1	30.5	31.6
유럽	204.1	186.5	199.4	177.2	142.4	19.5	19.9	21.6	16.8	17.8
EU	179.9	163.0	156.3	138.8	129.4	17.4	16.2	17.6	14.4	12.7
그외	278.7	273.0	414.7	370.0	211.2	24.3	29.4	31.5	23.0	37.6
중남미	182.6	199.1	245.5	180.3	213.0	31.4	40.6	43.5	37.6	38.1
기타	194.2	185.2	277.7	308.4	178.7	43.4	45.5	50.7	52.4	40.0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28.1	30.9	30.4	27.0	22.8
개도국	150.8	146.0	153.9	141.0	128.8	26.3	29.1	28.6	25.1	24.2
선진국	190.8	211.0	188.7	172.5	126.5	31.5	34.1	33.3	30.3	20.4
BRICs	135.4	127.0	123.6	108.7	103.6	20.5	23.5	22.2	17.2	17.0

나. 업종별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39.0	135.8	134.4	122.7	113.3	24.7	24.2	23.7	22.5	22.9
전기전자	99.4	93.7	86.6	85.2	79.1	15.2	14.0	12.5	14.9	15.3
자동차	155.9	157.0	163.1	168.9	166.7	16.7	18.3	19.6	22.2	23.8
1차금속	173.9	231.6	209.0	237.4	237.7	41.8	48.2	46.0	47.5	45.4
화학	133.8	106.1	101.8	71.3	69.3	35.3	26.5	27.1	18.9	23.4
기타기계	200.7	181.6	152.1	92.1	74.5	35.6	32.0	29.1	16.4	13.9
전기장비	150.8	144.7	146.4	118.5	115.2	21.1	21.9	22.9	17.3	17.3
운송장비	672.5	775.7	-916.0	3168.2	403.9	50.7	44.5	62.5	36.8	31.2
고무/플라스틱	108.6	131.1	119.6	154.0	159.9	32.0	36.8	32.9	35.4	38.1
식료품	129.5	132.2	105.3	105.5	153.4	33.7	35.5	30.8	30.9	39.6
의복	153.8	153.2	154.6	168.9	137.8	26.9	27.4	24.0	27.1	21.0
섬유	141.7	135.0	112.3	113.5	138.8	38.1	40.4	31.8	33.2	33.7
금속제품	226.9	285.3	455.7	219.4	236.3	27.1	32.8	27.8	24.2	28.2
기타제품	160.0	85.7	109.1	87.1	94.6	33.8	14.7	20.9	22.1	25.9
신발	198.7	196.5	168.9	160.4	163.6	32.2	33.7	31.8	32.4	32.1
기타	98.8	94.4	85.0	69.3	70.0	30.3	28.4	23.6	17.9	17.1
광업	105.5	118.3	123.2	122.9	127.1	35.2	40.4	39.6	39.3	38.9
도소매업	279.2	270.9	252.2	222.5	158.8	26.2	33.3	32.4	23.4	5.9
부동산업	162.2	112.7	109.9	124.9	113.3	46.8	43.4	41.0	41.6	41.7
정보통신업	116.2	143.3	79.3	84.6	105.7	17.3	22.8	13.6	17.7	23.3
건설업	-479.9	-795.2	-715.6	-622.2	1465.6	62.6	65.3	68.1	72.9	58.8
전기가스업	140.2	120.9	99.9	143.6	111.0	44.1	41.0	42.5	44.2	45.3
전문과학기술업	159.9	184.3	228.3	162.2	52.5	5.8	5.3	4.1	4.4	12.1
운수창고업	359.8	258.2	156.9	123.0	128.3	27.1	28.2	33.0	28.5	20.0
기타	122.9	184.3	303.7	365.8	211.9	34.2	45.3	57.5	58.0	47.9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28.1	30.9	30.4	27.0	22.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60.9	60.1	59.7	64.6	78.1	28.0	30.8	30.3	27.0	22.4
중소기업	62.4	59.5	70.2	84.3	72.9	25.5	25.2	26.5	22.8	25.2
기타	71.4	68.2	49.1	55.9	105.1	39.2	45.0	48.6	49.3	32.5
전체	163.5	166.0	166.3	152.0	128.0	28.1	30.9	30.4	27.0	22.8

(2) 유동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가. 지역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22.5	120.8	122.9	125.8	134.4	6.3	6.0	5.5	6.6	5.0
중국	123.0	121.2	125.7	134.3	138.4	12.1	9.7	8.5	7.8	5.3
ASEAN	116.2	117.3	112.4	108.0	126.4	1.9	2.3	2.9	5.4	5.5
그외	131.0	125.0	131.2	132.7	136.1	3.6	5.1	3.7	7.6	3.1
북미	184.2	172.8	183.3	170.3	118.6	4.8	1.4	1.0	0.4	1.4
미국	187.4	177.3	188.7	173.6	117.5	5.1	1.8	1.1	0.1	1.5
캐나다	106.2	80.9	72.4	92.4	141.7	2.1	△1.3	△0.2	3.0	1.1
유럽	120.1	120.6	124.8	123.3	141.0	2.6	1.8	3.8	6.2	5.5
EU	130.5	134.6	133.2	130.4	141.1	3.0	2.4	4.9	6.1	5.7
그외	101.6	91.9	110.3	111.0	140.7	2.0	0.4	1.6	6.4	5.1
중남미	103.6	110.4	122.1	123.2	117.4	1.1	△2.3	△1.0	4.0	2.4
기타	92.3	86.7	90.9	108.3	110.0	3.6	△0.3	0.0	1.4	3.8
전체	130.3	129.0	134.9	133.8	130.5	4.6	2.8	2.8	4.1	3.8
개도국	117.5	116.5	120.1	124.0	130.7	4.7	3.5	3.3	5.4	4.4
선진국	158.5	153.6	162.8	152.0	130.1	4.4	1.7	1.8	1.9	2.5
BRICs	121.5	120.4	128.2	137.7	142.6	9.6	7.8	6.9	8.2	5.6

나. 업종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20.5	118.8	122.9	129.1	136.3	6.9	5.3	5.3	6.6	4.6
전기전자	139.4	137.0	153.3	163.0	178.0	20.6	14.6	6.8	22.8	15.9
자동차	132.9	128.6	127.9	121.4	121.3	19.7	17.2	12.6	3.9	2.8
1차금속	94.4	93.2	104.0	101.3	101.9	1.1	△0.5	0.6	0.9	1.8
화학	84.2	96.9	110.0	138.1	148.6	△3.2	3.8	5.2	10.2	6.3
기타기계	110.2	117.3	117.7	124.1	138.5	1.8	1.7	3.8	3.7	5.0
전기장비	127.4	125.2	133.5	144.7	137.7	5.1	3.2	4.0	4.2	3.0
운송장비	67.6	64.5	43.1	62.1	71.8	△2.2	△0.1	△7.7	△0.5	△3.6
고무/플라스틱	96.3	82.8	93.3	87.4	95.2	7.3	3.2	4.6	2.3	3.1
식료품	115.0	113.1	139.3	110.3	113.9	2.6	2.6	4.4	3.0	1.8
의복	114.3	111.0	117.3	115.2	112.4	2.4	3.8	0.7	0.9	0.6
섬유	108.1	114.7	111.6	96.9	105.6	2.6	3.2	3.3	4.3	0.9
금속제품	105.1	95.0	78.0	107.0	110.9	5.9	3.4	3.1	10.8	2.6
기타제품	191.7	159.1	143.8	186.3	167.3	3.6	12.6	4.7	8.5	7.1
신발	91.8	82.9	88.1	90.5	92.2	4.5	4.7	4.0	4.5	2.4
기타	132.9	133.2	136.4	150.5	148.2	2.7	0.7	1.9	3.3	3.4
광업	122.1	115.7	99.8	106.6	127.1	0.8	△1.0	△0.2	3.3	4.8
도소매업	156.6	158.0	162.0	149.8	124.0	7.4	7.0	4.5	2.5	5.5
부동산업	151.5	113.1	157.0	158.3	108.8	1.0	1.0	1.0	1.4	0.6
정보통신업	120.7	114.2	174.0	149.8	184.9	2.6	△3.3	△4.7	△0.4	△7.8
건설업	76.6	79.4	75.9	78.7	104.4	△7.3	△1.6	△0.3	0.6	2.4
전기가스업	115.0	94.1	108.1	101.8	91.0	14.9	5.1	1.7	5.2	1.9
전문과학기술업	104.7	97.5	118.5	116.0	157.2	1.6	△0.4	△3.6	△5.3	△10.9
운수창고업	88.3	128.4	119.7	117.3	106.7	1.3	2.3	2.3	3.0	2.5
기타	152.1	110.1	110.8	103.8	111.7	3.3	0.8	0.6	0.5	0.8
전체	130.3	129.0	134.9	133.8	130.5	4.6	2.8	2.8	4.1	3.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 배)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131.8	130.5	136.6	134.7	131.3	4.9	3.1	2.9	4.5	4.2
중소기업	113.0	111.1	118.7	123.5	119.6	2.1	1.2	2.3	1.8	0.3
기타	114.4	116.0	110.4	122.1	151.6	1.9	0.8	1.1	0.3	2.1
전체	130.3	129.0	134.9	133.8	130.5	4.6	2.8	2.8	4.1	3.8

7.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

가. 지역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아시아	12,003	6,376	9,251	10,123	7,218	17.9	8.8	11.9	12.9	9.8
중국	8,955	4,773	6,945	4,425	3,579	26.5	12.6	17.6	11.2	9.4
ASEAN	1,812	1,459	2,087	4,331	3,053	8.8	6.7	8.4	16.5	12.4
그 외	1,235	144	220	1,367	586	9.7	1.1	1.6	10.6	5.3
북미	1,771	△2,142	674	673	146	5.1	△5.4	1.4	1.3	0.2
미국	2,192	△539	878	711	297	7.8	△1.6	2.2	1.6	0.6
캐나다	△421	△1,603	△204	△38	△151	△6.6	△23.3	△2.8	△0.5	△2.0
유럽	674	1,172	2,521	3,239	2,610	2.9	4.9	10.3	11.2	9.9
EU	1,030	1,357	1,760	2,516	1,905	6.5	8.2	10.1	11.9	9.0
그 외	△357	△185	761	723	705	△5.1	△2.4	10.6	9.3	13.5
중남미	564	△783	189	1,380	354	5.5	△6.7	1.4	10.4	3.1
기타	△1,058	△1,298	△1,605	△1,186	559	△7.8	△7.2	△8.0	△6.0	3.4
전체	13,954	3,325	11,029	14,229	10,887	9.4	2.0	6.0	7.4	5.8
개도국	11,510	4,452	8,987	12,183	8,515	13.3	4.6	8.6	11.6	8.9
선진국	2,444	△1,128	2,042	2,046	2,372	4.0	△1.6	2.6	2.4	2.6
BRICs	10,346	4,782	8,748	7,225	5,037	24.5	10.4	18.3	14.9	10.7

나. 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13,137	6,483	11,264	13,455	8,332	19.9	9.1	14.8	17.2	10.9
전기전자	5,958	3,044	5,396	7,703	6,255	37.6	18.1	31.6	42.1	32.5
자동차	5,661	3,557	3,999	3,279	1,952	52.7	28.8	30.5	21.9	12.4
1차금속	△141	△1,051	△36	△150	△96	△2.1	△15.0	△0.5	△2.0	△1.1
화학	492	278	481	740	561	9.7	4.7	6.8	11.3	7.6
기타기계	△139	△275	261	89	160	△2.4	△4.4	4.2	1.7	3.8
전기장비	647	255	644	662	621	18.3	7.5	16.0	16.5	16.5
운송장비	△546	57	△714	32	△1,384	△15.7	1.7	△19.0	0.9	△59.9
고무/플라스틱	419	350	457	255	91	18.5	10.5	13.7	9.5	5.3
식료품	170	119	242	131	2	7.7	5.2	9.6	4.9	0.1
의복	10	64	△11	△19	△41	0.6	3.1	△0.6	△0.9	△2.3
섬유	148	69	125	131	9	10.1	4.6	8.8	7.6	0.5
금속제품	223	85	135	335	91	15.7	6.4	8.6	22.0	6.3
기타제품	139	71	165	130	243	12.8	8.8	12.0	9.5	19.7
신발	49	38	83	91	15	6.4	4.6	8.7	8.3	1.4
기타	47	△178	36	45	△147	1.3	△4.7	0.9	0.9	△3.1
광업	△793	△4,671	△2,306	△1,527	△78	△2.4	△12.7	△5.8	△4.1	△0.3
도소매업	2,436	2,110	1,807	1,702	2,597	11.5	8.9	6.3	5.0	8.4
부동산업	△24	90	181	223	△269	△0.6	1.2	1.7	1.9	△2.2
정보통신업	63	△257	37	14	△248	2.6	△8.6	1.1	0.2	△4.2
건설업	△1,428	△870	△520	△98	344	△43.0	△20.8	△9.6	△1.8	5.3
전기가스업	600	248	154	274	205	14.3	5.7	3.5	5.7	7.0
전문과학기술업	△85	△1	297	△12	△115	△2.4	0.0	11.0	△0.3	△0.9
운수창고업	42	207	145	127	113	1.8	8.0	5.5	4.6	4.2
기타	6	△16	△30	70	6	0.1	△0.1	△0.3	1.0	0.1
전체	13,954	3,325	11,029	14,229	10,887	9.4	2.0	6.0	7.4	5.8

다. 투자자 기업규모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수익					투자수익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13,584	3,824	10,041	13,846	11,163	10.5	2.7	6.3	8.3	7.3
중소기업	266	△290	1,135	304	△297	2.0	△1.9	6.2	1.5	△1.0
기타	104	△209	△147	79	21	1.9	△2.7	△2.5	1.4	0.4
전체	13,954	3,325	11,029	14,229	10,887	9.4	2.0	6.0	7.4	5.8

IV. 2018 회계년도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경영분석

1. 개요

가. 분석 배경

■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18년말 기준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잔액은 646억 달러로 총 잔액의 17.3% 비중임. '18년 투자금액은 162억 달러로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금융보험업 영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필요성이 높아짐.

■ 그러나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현지법인과 손익구조 및 성과지표 등이 크게 상이하여, 재무제표의 단순 비교분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에, 앞서 본문에서는 비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본 파트에서 별도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 : 각 투자가가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보고서²⁾

나. 분석대상 현지법인 현황

■ 분석대상 금융보험업 현지법인은 총 133개사로 '18년 말 기준 투자잔액은 107억 달러.

- 총 164개의 현지법인³⁾(투자잔액 116억 달러)이 자료수집 대상이었으나, 청산, 미결산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현지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은행업이 25억 달러로 23.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증권중개업이 24억 달러로 22.3%, 보험업이 9억 달러로 8.4%를 차지.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⁴⁾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은행업	15	2,532	23.5
증권중개업	15	2,406	22.3
보험업	11	908	8.4
금융리스업	11	499	4.6
기타 ⁵⁾	81	4,452	41.2
전체	133	10,797	100.0

■ 현지법인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자잔액 기준 아시아가 75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69.5%)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 지역이 17.1억 달러(15.8%), 북미 지역이 9.3억 달러(8.7%), 중남미 지역이 6.5억 달러(6.0%)를 차지. 분석대상 현지법인 중 상기 4개 지역 외에 소재한 법인은 없었음.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현황

(단위: 개, 백만 달러, %)

	법인수	투자잔액	잔액비중
아시아	87	7,502	69.5
북미	18	939	8.7
유럽	23	1,706	15.8
중남미	5	651	6.0
전체	133	10,797	100.0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투자잔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보고서

3) 금융보험 투자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등)는 연간사업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

4) '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국내은행, 외국은행, 상호저축은행을, '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포함

5) '기타'는 자산운용회사, 투자 자문업, 기타 투자기관 등 포함

2. 경영성과

가. 재무현황

(1) 업종별 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총 자산규모는 1,246억 달러이며, 부채총계는 1,067억 달러, 자본총계는 178억 달러 수준을 기록.

- 총 자산규모는 은행업(681억 달러), 금융리스업(80억 달러), 보험업(49억 달러), 증권중개업(30억 달러)순으로 높았음.
- 분석대상 전체 현지법인의 자기자본비율⁶⁾은 14.3%를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증권중개업(85.8%), 보험업(28.6%), 금융리스업(16.3%), 은행업(9.6%) 순.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자산총계	68,075	2,994	4,937	8,014	124,645
현금및예치금	9,572	601	992	893	19,669
유가증권	9,347	1,915	2,327	27	18,312
부채총계	61,545	425	3,527	6,703	106,773
예수부채	47,522	132	0	21	74,318
차입부채	10,594	90	23	6,321	23,853
자본총계	6,530	2,569	1,410	1,310	17,872
자본금	2,716	2,049	1,625	925	11,453

(2)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 현지법인의 자산규모를 분석하면 아시아 1,115억 달러, 유럽 75억 달러, 북미 50억 달러, 중남미 6억 달러 순임.

- 자기자본비율은 중남미(35.2%), 북미(28.4%), 유럽(19.3%), 아시아(13.3%)순.

6) 자본총계/자산총계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전체
자산총계	111,528	4,974	7,521	621	124,645
현금및예치금	18,682	356	591	39	19,669
유가증권	15,513	979	1,444	376	18,312
부채총계	96,741	3,561	6,068	402	106,773
예수부채	70,030	3,368	739	180	74,318
차입부채	18,316	153	5,184	200	23,853
자본총계	14,787	1,413	1,453	219	17,872
자본금	8,873	1,238	1,049	292	11,453

나. 손익현황

■ 분석대상 현지법인은 영업수익 72억 달러, 영업손익 11억 달러, 당기순이익 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⁷⁾은 0.69% 시현.

(1) 업종별 현황

■ 영업수익 규모는 은행업(24억 달러), 보험업(18억 달러), 금융리스업(6억 달러), 증권중개업(1.9억 달러) 순을 기록.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은행업(3.7억 달러), 금융리스업(1.3억 달러), 증권중개업(0.6억 달러) 순이며 보험업에서는 당기순손실(△0.05억 달러) 기록.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증권중개업(2.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금융리스업(1.7%), 은행업(0.5%), 보험업(△0.01%) 순.

7) 당기순이익/자산총계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업종별 손익현황

(단위: 백만 달러)

	은행업	증권중개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전체
영업수익	2,387	185	1,796	617	7,185
영업비용	1,925	114	1,801	445	6,079
영업손익	462	70	△5	172	1,106
당기순이익	366	63	△5	134	863
ROA	0.54	2.11	△0.11	1.67	0.69

(2)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영업수익의 89.6%에 달하는 64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3.8억 달러), 북미(2.2억 달러), 중남미(1.4억 달러) 순임.

- 당기순이익 규모로는, 아시아(8억 달러), 유럽(36백만 달러), 북미(31백만 달러), 중남미(12백만 달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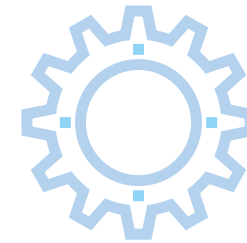
ROA는 중남미 지역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아시아(0.7%), 북미(0.6%), 유럽(0.5%) 순임.

금융보험업 분석대상 현지법인 지역별 손익현황⁸⁾

(단위: 백만 달러)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전체
영업수익	6,440	219	382	144	7,185
영업비용	5,439	183	332	126	6,079
영업손익	1,001	36	50	18	1,106
당기순이익	784	31	36	12	863
ROA	0.70	0.62	0.48	1.93	0.69

8)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보험료수익,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이익 등 포함

**제 4 부****참고자료**

236	1. 한국표준산업분류
241	2. 지역분류표
246	3.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¹⁾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농업	Agriculture
02	임업	Forestry
03	어업	Fishing
B 광업 (05~08) Mining and quarrying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6	금속 광업	Mining of metal ores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Mining of non-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C 제조업 (10~34) Manufacturing		
10	식품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1	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beverages
12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4	1차 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s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28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32	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
33	기타 제품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36	수도업	Water supply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sewage, wastewater, human and animal waste treatment services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materials recovery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F 건설업 (41~42) Construction		
41	종합 건설업	General construction

1) 소분류 및 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내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42	전문직별 공사업	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G 도매 및 소매업 (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 운수 및 창고업 (49~52) Transportation and storage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50	수상 운송업	Water transport
51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6	음식점 및 주점업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J 정보통신업 (58~6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activities
61	우편 및 통신업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 금융 및 보험업 (64~66)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64	금융업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보험 및 연금업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 (68) Real estate activities		
68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71	전문서비스업	Professional services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Business support services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Renting and leasing activities; except real estate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P 교육 서비스업 (85) Education		
85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86	보건업	Human health activities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Social work activities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97	가구 내 고용활동	Private households as employers of domestic personnel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private households for own use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99	국제 및 외국기관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참고 2

지역 분류표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1. 아시아	Asia	태국	Thailand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동티모르	Timor-Leste
방글라데시	Bangladesh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부탄	Bhutan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브루나이	Brunei	베트남	Vietnam
캄보디아	Cambodia	합 계	30개국
중 국	China	2. 대양주	Oceania
홍 콩	Hong Kong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인 도	India	피 지	Fiji
인도네시아	Indonesia	뉴질랜드	New Zealand
일 본	Japan	파푸아 뉴기니	Papua New Guinea
카자흐스탄	Kazakstan	사모아	Samoa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라오스	Laos	통 가	Tonga
마카오	Macao	바누아투	Vanuatu
말레이시아	Malaysia	서사모아	Western Samoa
몰디브	Maldives	미국령 사모아	American Samoa
몽 골	Mongoli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French Polynesia
미얀마	Myanmar	괌	Guam
네 팔	Nepal	키리바시	Kiribati
파키스탄	Pakistan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필리핀	Philippines	미크로네시아연방	Micronesia
싱가포르	Singapore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스리랑카	Sri Lanka	북마리아나	Northern Mariana
대 만	Taiwan	팔라우	Palau
타지키스탄	Tajikistan	투발루	Tuvalu
		합 계	19개국

* 아세안(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3. 북 미	North America	그레나다	Grenada
캐나다	Canada	과테말라	Guatemala
미 국	U.S.A.	가이아나	Guyana
그린란드	Greenland	아이티	Haiti
생피에르미크론	St. Pierre and Miquelon	온두라스	Honduras
합 계	4개국	자메이카	Jamaica
4. 중남미	Latin America	멕시코	Mexico
앤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니카라과	Nicaragua
아르헨티나	Argentina	파나마	Panama
아루바	Aruba	파라과이	Paraguay
바하마	Bahamas	페 루	Peru
바베이도스	Barbados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벨리즈	Belize	세인트킷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버뮤다	Bermuda	세인트루시아	St. Lucia
볼리비아	Bolivi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브라질	Brazil	수리남	Suriname
케이만군도	Cayman Islands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칠 레	Chile	우루과이	Uruguay
콜롬비아	Colombia	베네수엘라	Venezuela
코스타리카	Costa Rica	프랑스령기아나	French Guiana
쿠 바	Cuba	과데로프	Guadeloupe
도미니카연방	Dominica, Commonwealth	마르티니끄	Martinique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미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S)
에콰도르	Ecuador	영국령버진제도	Virgin Islands(U.K)
엘살바도르	El Salvador	합 계	42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5. 유 럽	Europe	마케도니아	Macedonia
알바니아	Albania	몰 타	Malta
아르메니아	Armenia	몰도바	Moldova
오스트리아	Austria	네덜란드	Netherlands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노르웨이	Norway
벨라루시	Belarus	폴란드	Poland
벨기에	Belgium	포르투갈	Portugal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Herzegovina	루마니아	Romania
불가리아	Bulgaria	러시아연방	Russia
크로아티아	Croatia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키프로스	Cyprus	슬로베니아	Slovenia
체 코	Czech Republic	스페인	Spain
덴마크	Denmark	스웨덴	Sweden
에스토니아	Estonia	스위스	Switzerland
핀란드	Finland	터 키	Turkey
프랑스	France	영 국	U. K.
그루지야	Georgia	우크라이나	Ukraine
독 일	Germany	안도라	Andorra
그리스	Greece	채널아일랜드	Channel Islands
헝가리	Hungary	페로아일랜드	Faroe Islands
아이슬란드	Iceland	지브롤터	Gibraltar
아일랜드	Ireland	맨아일	Isle of Man
이탈리아	Italy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라트비아	Latvia	모나코	Monaco
리투아니아	Lithuania	몬테네그로	Montenegro
룩셈부르크	Luxembourg	산마리노	San Marino
		합 계	51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6. 아프리카	Africa	말라위	Malawi
알제리	Algeria	말 리	Mali
앙골라	Angola	모리타니	Mauritania
베 닝	Benin	모리셔스	Mauritius
보츠와나	Botswana	모로코	Morocco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모잠비크	Mozambique
부룬디	Burundi	나미비아	Namibia
카메룬	Cameroon	니제르	Niger
카보베르데	Cape Verde	나이지리아	Nigeri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	르완다	Rwanda
차 드	Chad	상투메프린시페	Sao Tome and Principe
코모로	Comoros	세네갈	Senegal
콩고인민공화국	Congo, Rep.	세이셸	Seychelles
콩고민주공화국	Congo, Democratic Rep.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코트디부아르	Côte d' Ivoire	소말리아	Somalia
지부티	Djibouti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이집트	Egypt	세인트헬레나	St. Helena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수단	Sudan
에리트리아	Eritrea	스와질란드	Swaziland
에디오피아	Ethiopia	탄자니아	Tanzania
가 봉	Gabon	토 고	Togo
감비아	Gambia	튀니지	Tunisia
가 나	Ghana	우간다	Uganda
기 니	Guinea	자이르	Zaire
기니비사우	Guinea-Bissau	잠비아	Zambia
케 냐	Kenya	짐바브웨	Zimbabwe
레소토	Lesotho	마요뜨	Mayotte
라이베리아	Liberia	레위니옹	Réunion
리비아	Libya	남수단	Republic of South Sudan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합 계	58개국

국 명		국 명	
한글표기	영문표기	한글표기	영문표기
7. 중 동	Middle East	오 만	Oman
바레인	Bahrain	팔레스타인	Palestine
이 란	Iran	카타르	Qatar
이라크	Iraq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이스라엘	Israel	시리아	Syria
요르단	Jordan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Kuwait	예 멘	Yemen
레바논	Lebanon	합 계	14개국

참고 3

(투자잔액 1,000만 불 초과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결산기: 년 월 일 ~ 년 월 일)

1. 한국투자자(모기업) 개요

투자자명		계열명:
담당자	소속부서:	직성명: 전화:
업종(중분류) ¹⁾		자기자본 백만원 사후관리은행
투자자 법인성격	☐ 실제영업법인 ☐ 특수목적회사(SPC)	
외국인투자기업 ²⁾ 여부	☐ 아니오 ☐ 예	- 최대주주명: (지분율: %) ³⁾ - 최대주주 소속 국가:

주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

주2)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함

주3)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소속국가: 및 최대주주명: (지분율: %)

2. 현지법인 개요

법인명 ¹⁾		대표자
소재지(국가, 주, 성) ²⁾		
투자업종 ³⁾		주요취급품목 ⁴⁾
인원현황	임원:()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는 한국인	
설립등기일		영업개시일
법인성격	☐ 실제영업법인 ☐ 특수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목적국: - 최종 투자업종:	설립 형태
투자형태 ⁶⁾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	
지배구조	☐ 비지주회사 ☐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국 가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	순투자액 ⁸⁾ (천미불)		계열여부 ⁹⁾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주주현황 ⁷⁾						
	합 계		100.0			
현지법인 자본현황			전기말		금기말	
		자본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자본조정		천미불		천미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천미불		천미불
		이익잉여금		천미불		천미불
		합계(A)		천미불		천미불
한국투자자 지분투자 내역		한국투자자 지분율 합(B)		%		
		지 분 투 자(A × B)		천미불		천미불

주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는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속에 영문 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속에 함께 표시함

주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함

주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함

주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중을 기재함

주5) 구주 및 신주 비율의 합은 지분인수비율임

주6) “공동투자”는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작투자”는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함

주7) 주주현황은 지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투자자 모두를 국가별로 기록하여 함

주8) 순투자액은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록함

주9) 계열여부 코드: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 또는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계열관계(1), 한국측 최대지분투자자와 비계열관계(2)

3.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자 대부투자 내역 (금기말 현재)

대부투자	대여금 (단위: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 지분율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 타		
	계(A)			
	채권인수 ²⁾ (단위: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 지분율 10% 이상 투자자			
	- 지분율 10% 미만	주투자자 관계사 ¹⁾		
		기 타		
	계(B)			
합계(A+B)				

주1) 주투자자 관계사란 주투자자가 10%이상 투자한 한국소재 회사를 말함

주2) 채권인수는 채권, 무보증회사채, 상업어음, 약속어음, 비참가적 우선주를 말함

4.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¹⁾ 현황

	금 액(천미불)		지 분 율(%)		배당금 및 이자 (금기, 천미불)
	전기말	금기말	전기말	금기말	
지분투자					배당금:
대부투자 (대여금 및 채권인수)					이 자:
매출채권					
합 계					

주1)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10% 미만일 경우에만 역투자에 해당됨. 10% 이상일 경우에는 역투자가 아니라 독립된 직접투자에 해당됨

5. 현지법인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¹⁾

(단위: 천미불)

배 당 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
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주1) 당 회계기간 중 현지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기준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천미불)

차입처	코드 ¹⁾	차입 금액	보증자	차입기간		금리		용도 ³⁾
				코드 ¹⁾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 ²⁾	고정

주1) 코드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코드별로 분리 작성:

① 차입처코드: 1.한국금융기관, 2.한국금융기관의 해외법인, 3.현지금융기관, 4.외국계금융기관, 5.관계회사
(모기업 포함), 6.신디케이트론, 7.회사채 등 기타② 보증자코드: 1.관계회사(모기업 포함), 2.한국금융기관, 3.한국금융기관 해외법인, 4.외국계 금융기관, 5.현지법인
물적담보, 6.현지법인 신용, 7.합작투자자, 8.기타(구체적 기재)

주2) Libor(Sibor, TB) + spread 형태로 기록할 것

주3) 용도코드: 1.시설자금, 2.운전자금, 3.채무상환, 4.기타(구체적 기재)

다. 현지법인의 판매처별 매출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라. 현지법인의 매입처별 매입금액 및 비중 (당 회계기간 중)

	현지매입		대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금액							
비중							100.0%

주) 관계회사는 국내모기업 또는 현지법인과 지분관계에 있는 법인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¹⁾

(단위: 천미불)

자 산			부채와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한국 투자자 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앞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1. 유동부채 (매입채무) -한국 투자자 앞 -한국투자자의 관계사 ²⁾ 앞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		
2. 고정자산 (투자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주1)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주2) 한국 투자자의 관계사란 한국 투자자가 10% 이상 투자한 한국 소재 회사를 말함

바. 현지법인 손익계산서 (당 회계기간 중)

(단위: 천미불)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매출액			7.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리스료)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2. 매출원가(당기매입액)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매출총이익			9. 법인세비용		
4. 판매비와 관리비			10. 당기순이익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주) 회계기간중 평균환율 적용.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 작성

사.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현황

(1) 자회사

(단위: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 요 재 무 지 표						
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 손자회사

(단위: 천미불)

손자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손자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증손자회사 이하

(단위: 천미불)

현지법인과 관계	회사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투자잔액		
					증권투자	대부투자	합계
주요재무지표							
현지법인과 관계	회사명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향후 영업전망					

현지법인
운 영 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

☐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 · 원자재 조달)

☐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 송금 등)

☐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

☐ 기타:

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 노동관련 분야:

☐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

☐ 분쟁해결 절차:

☐ 세제:

☐ 금융:

☐ 회계:

☐ 기타:

현지법인
향후계획

1. 현지법인의 향후 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2. 현지법인 철수 및 이전 계획인 경우, 향후 투자 대상 국가
국가명 :

대 정부
건의사항

6. 첨부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

2018년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방문규
편집인	이승건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우편번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